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디자인학 박사학위논문

『하멜 보고서』의 편집디자인

다르게 읽기를 제안하는 페이지의 시각적 형식에 관하여

Designing Hamel's Journal :
A study of visual styles & ways of reading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정 희 숙

우리에게 책은 아직도 읽을 만한 정보를 담는 가장 익숙한 형식이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다양한 페이지 제시 기법들은 각기 다른 쓰기 기술과 독서 관습, 독서 목적으로부터 기인했고, 오랜 시간 인쇄 문화의 성장과 함께 일종의 장르적 패턴이나 암묵적 사인처럼 작동한다. 독자들은 이제 시각적으로 편집된 상태를 보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의 실마리를 얻는다.

글의 장르와 결부되고 일반화된 시각적인 형식들은, 디자인의 편리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독자들의 요구와 출판 환경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표면적 스타일과 타이포그래피의 부분적 문제에 매몰되게 할 우려가 있다.

연구자는 이같은 배경에서 ‘읽기의 역사’, ‘책의 역사’로 눈을 돌렸다. 책의 시각적 형식들이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독자, 저자, 출판계의 상호 작용은 어떤 방식으로 책의 형식에 개입했는지, 혹은 그것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금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은 ‘읽기 방식’이다. 책은 고정된 글쓰기 기술과 기록의 형식이어서 이것이 읽기 방식을 규정해 온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읽기 관행과 책에 대한 관념, 기대가 책의 형식을 바꾸어 온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읽기 방식’의 차이로부터 책의 구성 틀과 지면 제시 방법을 찾는 작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소재인 ‘하멜 보고서’는 국내에 잘 알려진 모험 이야기로, 원래는 17세기의 항해 보고서지만 지금까지 모험기, 소설, 역사 연구서로 다양하게 출간되어 온 독특한 내력의 텍스트다. 이 소재를 선택한 것은, 연구자가 글, 그리고 책이라는 형식의 ‘정확성’, ‘권위’와 같은 보편적 관념보다는 ‘오류’,

또는 ‘유연한 변형’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며, 글이 길지 않아 작품 연구에 용이하면서도 관련 자료가 충분했고, 또 근대 서양인의 한국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연구는, 먼저 책의 역사에 관한 문헌 연구와 동시에 픽션과 논픽션 버전의 ‘하멜 보고서’ 1차 편집디자인을 시작으로 두 에디션의 세분화를 통해 각각의 읽기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순서로 진행했다. 픽션과 논픽션은 글의 기본적인 장르적 구분으로, 편집디자인의 시각적 형식의 면에서도 반대되는 특징이 나타나며, 각각은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읽기와 전문적이고 학문적 읽기 방식과 연결된다.

책의 역사에 나타난 읽기 방식과 시각 형식의 변화를 보면,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저자의 의도대로 읽도록 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특정 관심사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단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띄어쓰기, 즉 단어라는 단위를 구분해주고, 제목과 본문, 단락과 장 등으로 글을 구조화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은, 글의 ‘시각적 번역’의 방법이다.

‘하멜 보고서’의 2차 편집에서는, 에디션의 세분화 방법으로 ‘1)단위의 조정, 2)강조와 압축, 3)관련 글과 자료의 제공’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설정하고 픽션과 논픽션의 작품을 조금씩 변형하는 데 적용했다. 이런 방법들은 읽는 속도와 몰입의 문제, 글의 연결성, 내용의 난이도, 전문성에 차이를 주며 단계적·선택적 읽기를 비롯한 다양한 읽기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읽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는 하멜 보고서의 원고 표기법으로부터 내용의 순서와 구성까지를 바꾸었는데, 특정 주제, 특정 읽기 방식을 유도하기 위해 관례적으로는 편집자의 역할에 의존하던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직접적인 ‘의미의 번역’을 위한 것이었다. 이 외에 글의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글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암시하거나 은유하는 시각적인 요소를 사용한 것은 글의 ‘배경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 결과물로는, 하멜 당대의 ‘조선’, 즉 ‘이방인의 눈으로 본 17세기 조선’이라는 주제의 편집본 연구에 중점을 두어 발전시켰으며, 전체 과정에서 만들어진 페이지 편집물들을 각각의 책으로 완성하여 제시하였다. 처음 설정한 픽션과 논픽션의 장르적 구분은, 세분화를 통해 경계가 점차 모호해져 갔으며,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이를 뒤섞거나 전도시키면서 연구자가 의도한 ‘읽기 방식을 축으로 한 작품 전개’에 더 가까워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집디자인에서 ‘읽기 방식’과 ‘그에 부합하는 시각적 형식’이라는 논리를 강조하여도 독자의 자의적이고 자유로운 읽기를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돕고, 특정한 구조와 흐름으로 읽고 이해하게 하며, 독서를 더욱 풍요로운 경험이 되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 또한, ‘읽기’에 다시금 주목함으로써 장르적인 규범이나 스타일의 동어반복적 적용을 피한 디자인 방법론을 찾고, 새로운 독자와 출판 시장에 대응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어 : 읽기 방식, 책의 역사, 인쇄 문화, 편집디자인, 북타이포그래피

학번 : 2009-30991

목차

국문 초록 _ 3

1.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_ 12

1. 2. 연구 범위와 과정 _ 15

2.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책의 특성

2. 1. 책 읽기와 기술 _ 18

2.1.1. 글쓰기 기술과 물질성 _ 18

2.1.2. 고대의 글쓰기 기술 _ 20

2.1.3. 코덱스의 특성 _ 24

2.1.4. 인쇄술과 쓰기·읽기 기술 _ 28

2. 2. 책의 역사와 독서관습 _ 32

2.2.1. 서양 책의 역사와 독서 관습 _ 33

2.2.2. 커뮤니케이션 순환과정으로서의 책의 역사 _ 40

2.2.3. 책의 역사와 책의 시각적 형식 _ 44

2.2.4. 시각적 번역 체계 / 페이지의 편집적 요소의 발달 _ 62

2.3. 18세기 이후 출판의 확장과 편집 디자인 _ 68

- 2.3.1. 출판시장의 확장 _ 68
- 2.3.2. 현대적 타이포그래피 _ 70
- 2.3.3. 다양한 책의 기능과 가치 _ 75

3. 작품 연구

- 3. 1. 하멜 보고서 개요 _ 84
 - 3.1.1. 하멜 보고서 출간 이력 _ 84
 - 3.1.2. 하멜 보고서 내용의 특성 _ 91
- 3. 2. 하멜 보고서 에디션 구성 _ 99
 - 3.2.1. 1차 작품 연구 _ 99
 - 3.2.2. 출판 기획 중심어 설정 _ 110
- 3. 3. 2차 작품 연구 A: 정서적 읽기 _ 112
- 3. 4. 2차 작품 에디션 B: 전문적·학술적 읽기 _ 120
- 3. 5. 3차 작품 연구 _ 136

4. 결언 _ 187

참고문헌

그림 목차, 표 목차

그림2-1. 이라크 남부에서 발견된 점토판	21
그림2-2. 린드 수학 파피루스(Rhind Mathematical Papyrus)	21
그림2-3. 홍수 서판(Flood Tablet)	21
그림2-4. ‘Page from the Book of the Dead of Hunefer’	22
그림2-5. The reading device: a short history	25
그림2-6. 시나이사본(Codex Sinaiticus)	26
그림2-7. 종교개혁 100주년 전단지	28
그림2-8. 17세기 이탈리아의 석적행상인, 1646년의 판화	39
그림2-9. The Communication Circuit	41
그림2-10. 책의 역사속 책의 형태, 독서 방식, 중개자들의 변화	43
그림2-11. prelims and end-pages의 배열 예시	45
그림2-12. 『Lucan』, 알도 마누치오,	48
그림2-13. 『구텐베르크 42행 성서』	48
그림2-14. 『New Testament』	50
그림2-15. 15세기 표제지	50
그림2-16. 15세기말 16세기초 복잡한 표제지	51
그림2-17. 1530년대의 현대적인 표제지	51
그림2-18. 『Biblia Sacra』의 표제지	54
그림2-20. 『Mainz Psalter』의 콜로폰(colophon) 페이지	54
그림2-21. 고딕체(왼쪽)와 포조 브라치올리니의 핸드라이팅(오른쪽)	57
그림2-22. 피에트로 벰보(Pietro Bembo), 『에트나 화산에 대하여(De Aetna)』,	58
그림2-23. 『베르길리우스(Virgil)』, 알도 마누치오	59
그림2-24. 본문용 숫자, 제목용 숫자의 구분	67
그림2-25. 존 바스커빌이 1757년 버밍햄에서 출판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드 4절판본	72
그림2-26. 다국어 성경 (Bible. Polyglot)	76
그림2-27. 요스트 호홀리의 북디자인	76
그림2-28. 한 서점의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 특별 매대.	81
그림3-1. 프레데릭 하멜의 필사본 보고서의 첫 페이지	85
그림3-2. 1668년 스티히터판 하멜 보고서의 타이틀 페이지	88
그림3-4. 스티히터판의 본문	88
그림3-3. 스티히터판의 조선왕국기 표제지	88
그림3-5. 사아그만판 하멜 보고서,	88
그림3-8. 1929년에 어린이 용으로 출판된 하멜 보고서	89
그림3-6. 1732 프랑스판 하멜 보고서	89
그림3-9. 신문판 『청춘』, 14호, 1918, www.hamel.go.kr	89
그림3-7. 1813 영문판 하멜 보고서	89

그림3-10.	『진단학보』, 1934년에 실린 ‘란선제주도난파기’ 연재의 1편	90
그림3-11.	하멜 보고서의 기록 순서	91
그림3-12.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군인과 웃는 소녀’	93
그림3-13.	사아그만판의 코끼리와 악어 삽화	94
그림3-14.	‘Rhinoceros’, Albrecht Dürer.	95
그림3-15.	하멜 보고서의 구조와 조선 내의 체류 지역.	101
그림3-16.	〈A-1〉의 각 장의 본문 포맷.	103
그림3-17.	〈A-1〉의 가제본	104
그림3-18.	〈A-1〉의 가제본, 표제지	105
그림3-19.	〈B-1〉의 본문, 방주, 각주를 모두 사용한 그리드	106
그림3-20.	〈B-1〉의 본문 레이아웃	107
그림3-21.	〈B-1〉의 제본 모습. 표지 이미지는 목판화 삽화의 일부분 사용했다.	108
그림3-22.	〈B-1〉의 제본 모습	109
그림3-23.	〈A-2-1〉 본문에 포함된 인라인(in-line) 편집자 주, 설명글의 삭제	114
그림3-25.	〈A-2-1〉 표제지	116
그림3-24.	〈A-2-1〉의 본문 흐름	116
그림3-26.	〈A-2-2〉의 본문 흐름, 크기가 다른 불연속적인 본문 사이즈.	117
그림3-27.	〈A-1〉, 〈A-2-1〉과 〈A-2-2〉의 본문 포맷 비교	118
그림3-28.	〈A-2-1〉, 실목음 양장 제본과 자켓을 입힌 모습	119
그림3-29.	〈A-2-2〉, 무선 제본 상태	119
그림3-30.	〈B-1〉과 〈B-2-1〉의 편집 구성 비교	122
그림3-31.	〈B-2-1〉, 본문 포맷 설정	123
그림3-32.	〈B-2-1〉 표제지	124
그림3-33.	〈B-2-1〉의 권두	125
그림3-34.	〈B-2-1〉 본문 레이아웃	126
그림3-35.	〈B-2-1〉 본문 레이아웃	127
그림3-36.	〈B-2-1〉 본문 레이아웃	128
그림3-37.	〈B-2-1〉 책 속의 책	129
그림3-38.	〈B-2-1〉 제본 상태의 페이지들	130
그림3-39.	〈B-2-1〉 제본 상태의 페이지들.	131
그림2-29.	하멜 체류기간의 양력, 음력 달력	132
그림3-40.	〈B-2-2〉 포맷	133
그림3-41.	〈B-1〉, 〈B-2-1〉, 〈B-2-2〉, 본문 포맷 비교	134
그림3-42.	〈B-2-2〉, 중철제본 상태의 페이지	135
그림3-43.	〈A-3-1〉포맷과 페이지 형태 짜기	137
그림3-44.	〈A-3-1〉의 표제에 사용할 서체 비교	139
그림3-45.	하멜 보고서 스티히터 판의 표제지	140
그림3-46.	〈A-3-1〉의 표제지.	141
그림3-47.	〈A-3-1〉 양장 제본 상태의 본문.	141

그림3-48. 〈A-3-2〉 표제지	142
그림3-49. 〈A-3-2〉 장표제지.	143
그림3-50. 〈A-3-2〉 본문 흐름	144
그림3-51. 〈A-3-2〉 제본 상태의 표지와 본문	146
그림3-52. 〈A-3-2〉 제본 상태의 본문	147
그림3-53. 〈A-3-3〉의 본문 타이포그래피	149
그림3-54. 〈A-3-3〉의 본문 흐름	150
그림3-55. 〈A-3-3〉 제본 상태의 본문	152
그림3-56. 〈A-3-3〉 표지	153
그림3-57. 〈A-3-4〉 본문 타이포그래피	155
그림3-58. 〈B-3-1〉, 제주도부터 전라도를 거쳐 서울로 이동한 하멜 일행의 이동 경로	156
그림3-59. 〈B-3-1〉 제본 상태의 본문. 책 속의 책을 빼고 제본했다.	157
그림3-60. 〈B-3-2〉 중철 제본 배열표.	159
그림3-61. 〈B-3-2〉 본문 포맷	159
그림3-62. 〈B-3-2〉, 본문 흐름	161
그림3-63. 〈B-3-2〉 제본 상태의 본문	162
그림3-64. 〈B-3-2〉 제본 상태의 본문.	163
그림3-65. 〈B-3-3〉의 두 가지 포맷	164
그림3-66. 〈B-3-3〉의 본문 내 주석	165
그림3-67. 〈B-3-3〉의 본문 흐름.	166
그림3-68. 〈B-3-3〉 제본 상태의 표지와 본문	168
그림3-69. 〈B-3-3〉 제본 상태의 본문	169
그림3-70. 〈B-3-4〉의 본문 포맷	171
그림3-71. 〈B-3-4〉의 본문 전체 배열	173
그림3-72. 〈B-3-4〉 22-23p	175
그림3-73. 〈B-3-4〉 최종본에서 빠진 조선왕국기 페이지 디자인.	176
그림3-74. 〈B-3-4〉, 조선의 기록	177
그림3-75. 〈B-3-5〉 본문 흐름	178
그림3-76. 〈B-3-5〉 제본된 상태의 표지와 본문을 펼친 모습	180
그림3-77. 〈B-3-5〉 제본된 상태의 본문, 〈A-3-1〉과 세트 구성	181
그림3-78. 제본 상태의 하멜 보고서 에디션 커버	183
그림3-79. 작품 전시	185
 표1. 책의 형식 요소	 45
표2. 책의 기능적 특성(Functionalities of the Book)	78
표3. product dimensions susceptible to versioning and their likely users/uses	80
표4. 하멜에 관한 조선측의 기록	101
표5. 하멜 보고서의 주요 사건과 흐름	113
표6. 하멜 보고서의 포맷 정리	182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편집디자인⁰¹에 북디자인의 역사와 논리를 의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한 문화사로 시각을 확장하였다.

책이 뒷받침하는 ‘정보의 고정성’과 ‘일관된 목소리’라는 특성은, 깊이 있는 사고를 촉진하고 축적시켜 학문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지만, 디지털 일상에 침투한 지금의 환경에서, 책은 독자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된 것으로 취급된다. 이제 많은 이들은 “컴퓨터를 주된 매체로, 반면 인쇄물들은 부차적이거나 특수한 매체로 간주하고, 텍스트라고 할 때 인쇄의 특징(안정성과 권위) 대신 컴퓨터적인 성향(유연성, 상호작용성, 배포 속도)을 떠올리게 될 것⁰²으로 전망한다.

이에 반해 ‘책의 역사’⁰³는, 저자, 독자, 그리고 이를 사고 팔며 유통시킨 조건들 속에서 책의 의미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현재도 그 변화는 진행 중이라는 시각을 제시한다. ‘안정성’, ‘권위’와 같은 책에 대한 여러가지 개념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멜 보고서’는 17세기 유럽에서 동양무역이 확대되고 유럽 밖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을 무렵, 한 네덜란드인의 이국적인 모험기로 등장했다.

-
01. 논문에서는 책의 내부 구성과 페이지의 디자인에 집중하여 연구하고자 했으며, 이를 ‘편집디자인’으로 지칭했다. 이는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의 『타이포그래피 사전』(안그래픽스, 2012)에서 편집디자인(editorial design)을 “책, 신문, 잡지, 책자 형식의 인쇄물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일, 북디자인, 신문디자인, 잡지디자인이 인쇄물의 외관까지 포함하는 용어라면 편집디자인은 출판물의 내부 디자인에 집중하는 용어이다.”라고 정의한 것을 따른 것이다.
 02. 제이 데이비드 볼터, 『글쓰기의 공간』, 김익현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p.5
 03. 역사학의 한 분야, 2.2장 참조.

국내에는 ‘하멜표류기’로 더 잘 알려진 이 책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de VOC)의 무역선이 폭풍우를 만나 제주도에 표착한 후, 살아남은 선원들이 조선에 억류되었다가 탈출하여 일본을 거쳐 본국으로 돌아간 일에 대한 기록이자 공식적인 보고서다.

‘하멜 보고서’는 우리에게 17세기 조선의 단면을 외부인의 눈으로 증언하는 자료이다. 하멜 이전에도 한반도를 다녀간 서양인은 있었지만 이와 같이 장기간 체류하며 그 기록을 남긴 경우는 하멜이 처음이다. 때문에 언어의 장벽, 당시 억류 상태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활동 범위, 주관적인 서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묘사와 생동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흥미로울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 보고서는 166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출간된 이래,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와 국내 출판시장에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출판되어 왔는데, 그 내용은 하멜이 본래 쓴 목적이나 내용과 다르게 각색되거나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모험기, 소설, 학술 연구서로 읽혀 왔다.

이와 같은 ‘하멜 보고서’ 사례의 흥미로운 점은, 한가지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출판 기획’의 개념이 없던 과거에도, ‘다양한 읽기’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과, 이에 대해 텍스트의 임의 변형, 전용의 형태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책이라는 형식의 대응 방안이 있었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읽기의 다양성’과 이를 위한 물질적 조건인 ‘책’의 시각적 형식의 관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였으며, 이에 따라 책의

특성과 읽기 방식⁹⁴의 변화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설명하는 ‘책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책의 역사’는 책의 ‘시각적 형식 중심’의 연대기적 기술에 ‘독자’와 ‘출판가’, ‘독서 문화’를 포함하는 확장된 시각을 제공하므로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와 편집디자인의 장르적 관습과 논리를 극복한 편집디자인의 새로운 개념적인 배경이 될 것으로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멜 보고서’의 다양한 ‘읽기’를 유도하는 편집 디자인 작품 연구를 계획하였다.

04. 읽기 방식(ways of reading)은 여기서는 주로 ‘책’을 읽는 여러가지 방식을 말한다. 그 빠른 정도를 구분하여 일반적인 읽기와 속독, 지독(천천히 되새기며, 음미하며), 몰입의 정도에 따라 속독, (가볍게), 정독과 열독으로, 또한 전체를 읽는 통독과 부분을 읽는 발췌독, 소리를 내어 읽는 낭독과 눈으로만 읽는 묵독, 혼자서 내면적으로 읽는 방식과 누군가와 함께 읽는 방식, 일회적, 반복적 읽기, 읽는 목적에 따라 정서적 읽기와 학습과 전문적 목적의 읽기 그리고 종교와 의례로서의 읽기, 놀이와 여가로서의 읽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책과 독서의 역사에서는 개인의 읽기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사회, 문화적 조건과 배경을 공유한 독자 집단과 이들이 공유하는 읽기를 연구하므로 ‘읽기 방식(mode of reading)’이나 ‘읽기 관행’(reading practices)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1.2. 연구 범위와 과정

책과 편집디자인의 역사와 논리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문화사로서의 ‘책의 역사(history of books)’에 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18세기 이후, 즉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이 인쇄술로부터 분리된 후의 디자인적 변화에 관하여 타이포그래피사를 간략하게 첨부하였다.

문화사로서의 책은 로제 샤흐티에(Roger Chartier)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역사학자들과 로버트 단턴(Robert Darnton) 등이 추적한 ‘독자의 읽기 행위’의 역사를 연구하되 온전히 책의 형식적 변화와의 연관성이 분명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자 했다.⁰⁵

“책의 역사는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가 만나서 생성되는 의미의 구축 과정이 연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⁰⁶라는 물음을 던진다. 이 분야는 처음에 ‘누가 책을 읽었나’와 ‘누가 무엇을 읽었나’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 ‘어떻게 읽었나’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변화해 왔으며, 텍스트의 물리적인 형식 뿐 아니라 독서 주체의 행위를 부각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18세기 이후 현대적인 책의 디자인사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디자인의 명료함’, ‘의미의 분명함’을 추구하는 방향성과 그리드(grid)와 같은 편집 디자인의 기술적 개선을 통해 이를 구현하고자 한 시도들이 나타난다. 다른 측면으로는 계획적이고 의식적 선택의 문제로 ‘현대화’하면서 서로 다른 미의식과 이념이 개입되고 그 충돌이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05. 로빈 킨로스(Robin Kinross)는 ‘인쇄술’과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인쇄사, 서지사, 문화사, 타이포그래피사를 꼽고, 기존 타이포그래피 역사를 가장 모호하고 내실 없는 분야로 평가하기도 했다.

로빈 킨로스, 『현대 타이포그래피 : 비판적 역사 에세이』, 최성민 옮김, 스펙터 프레스, 2009.

06. 로제 샤흐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역음, 『읽는다는 것의 역사』, 이종삼 옮김,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p.451. 샤흐티에가 폴 리쾨르의 말을 빌어 설명하였다.

연구는 크게 4장으로 구성하였으며, 2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책을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책은 텍스트라는 추상적인 재료가 독자, 그리고 관계된 모든 사회적 요건들과의 사이에서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든다.

- 2.1. 의미 교환의 매개물이 되는 책의 ‘물질성’을 중심으로 관련 이론을 서술하고 사례를 제시하며, 책의 코덱스(codex) 형식을 독서 관습과 관련지어 검토했다.
- 2.2. 서양 책의 역사가 추적한 독서 관습의 특징적 전환 국면을 찾고, 이에 대응하여 나타난 세부적인 쓰기 기술, 책의 시각적 형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2.3. 18세기 이후 출판시장의 확장과 책의 기능과 가치의 다양화, 그리고 북디자인에 반영된 현대성을 검토했다.

3장에서는 ‘하멜 보고서’의 내용 연구와 기획 방향 설정, 세부 디자인 실행 내용에 대해 기술했다.

- 3.1. 출간 이력과 내용의 특성을 기술했다.
- 3.2. 읽기 특성을 크게 두 가지 차원, ‘정서적 읽기’와 ‘학술적·전문적 목적의 읽기’로 나누고 이를 적용한 1차 편집디자인 에디션을 시작업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부 문제를 정리했다.
- 3.3. 1차 작품의 두 구분점으로부터 2차 파생 작업을 연구했다.
- 3.4. 2차 작업을 발전시킨 최종 수정안을 연구했다.

4장은 전체 디자인 연구 과정을 요약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2.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책의 특성

2.1. 책 읽기와 기술

2.1.1. 글쓰기 기술과 물질성

책은 그리고 출판 유통계의 오랜 역사는, 다양한 방식과 관점에서 서술되어 왔다. 이미 새롭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새로운 환경에 합당한 디자인적 대응’을 요구받는 지금, 미디어 연구는 ‘정보의 개방과 확장, 연계’라는 상황 분석과 ‘개인화’와 ‘감성적 경험의 필요성’과 같은 시사점을 던진 바 있다.

마크 포스터의 ‘정보양식론(mode of information)’, 데이비드 볼터(Jay David Bolter)의 재매개론(Remediation)은, 디자인학 내에서는 종종 책이 미디어 형식 변화의 긴 타임라인에서 ‘어떤 고정된 좌표값을 갖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곤 했지만, 이들은 사실 미디어의 변화를 분할된 연대기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각 소통 형태의 ‘의미 작용’, ‘공간’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마크 포스터는 정보 생산 방식(the mode of production)의 변화에 따라 시대를 구분했는데, 대면적이고 구어적으로 매개된 의사소통, 인쇄를 매개로 해서 글로 씌어진 의사소통, 전자적으로 매개된 의사소통의 순서이다. 각 시대는 상징적 소통의 형태(forms of symbolic exchange)를 취하며 이러한 형태는 그 내적이며 외적인 구조와 의미작용(signification)의 수단 및 관계를 내포한다. 거칠게 단순화하면, 정보를 생산하고 주고받는 방식이 바뀔으로써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관계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볼터 역시 글쓰기 기술⁰¹의 변화를 추적, 이 기술과 도구를 포함하여 사회, 문화 체계와 매체가 이루는 긴장 관계를 ‘글쓰기 공간’으로 지칭했다. 여기서 도구란 구체적인 물리적 도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 장치,

01. 볼터의 글쓰기 테크놀로지(writing technology)는 기계를 의미하는 경성 기술(hard technology)만이 아니라, 글쓰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적, 사회적 상호관계의 총합을 의미한다. 『글쓰기의 공간』, 김익현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p. 31

의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글쓰기 공간’에서 추상적인 글은 기술과 도구를 통해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며, 이 ‘물질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형식이 다시 의미망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서지학 연구에서, 맥킨지(Donald F. McKenzie)⁰²가 윌리엄 콩그리브의 희곡집 연구⁰³를 통해 텍스트의 형식, 그 물질성 또한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과 일맥상통한다.

“편집 체제와 글자체의 외형적 차이, 다른 질감의 종이 사용과 제본 방법, 장소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서적 가격 등과 같은 외형적 조건들도 동일한 텍스트의 차별화된 의미창출에 간섭한다.”⁰⁴

“비실체라는 것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체험, 즉 무대 위 공연을 보는 것과 책장 위 텍스트를 읽는 두 체험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를 완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⁰⁵

요컨대 글쓰기 기술로서의 책은, 물리적인 도구와 관습, 의례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사회 체계 하에서 추상적 글이 ‘물질성’을 갖고 영향력을

02. 영국의 서지학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 대한 사회경제학적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이 학교에서 문헌학 및 텍스트 비평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헌 학자’ 혹은 ‘전통 문헌학의 경계와 정체성을 바꾼 인물’ 등으로 칭송되며, 영국문헌학회(Bibliographical Society) 회장을 역임했다. 영국 최초의 출판 역사를 종합한 책인 『케임브리지 영국 책의 역사』를 기획했다.

03. ‘활판술과 의미: 윌리엄 콩그리브의 경우(Typography and meaning : The Case of William Congreve)’, 『Making Meaning: “Printers of the Mind” and Other Essays』, Univ of Massachusetts Press, 2002, pp.198-236

04. D. F. McKenzie, What Past Is Prologue: The Bibliographical Society and History of the Book’, p.268, 육영수, 『책과 독서의 문화사 : 활자 인간의 탄생과 근대의 재발견』, 책세상, 2010, p. 173에서 재인용.

05. 로버트 단턴, 『책의 미래』, 성동규, 고은주, 김승완 옮김, 교보문고, 2011, p.213에서 재인용

발휘하게 한다. 그리고 이 기술의 변화는 주요한 전환점을 구분할 수 있지만 각각의 마디는 불가역한 경계를 갖고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시기의 속성이 동시간대에 공존하며 연속성을 갖는다.

2.1.2. 고대의 글쓰기 기술

글쓰기 기술의 고대의 모습이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사실의 기록’에서 시작해서 ‘생각의 기록과 탐색’으로 확장해 갔다는 점이다.

쓰기 기술은 문자의 발명과 동시에 시작되어 함께 발달해왔다. 벽이나 땅에 그림을 그리고 말을 표시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던 의미는 고정되어 보존되기 시작했다. 또한 존 설(John Rogers Searle)은 문자가 복합적인 사고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며 새로운 실재를 창조한다고 설명한다.

“말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글로 적어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고등 수학이나 복잡한 형태의 철학 논증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자를 단지 미래를 위한 기록 수단, 과거와 현재에 관한 사실을 전달하는 수단만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문자는 한없이 창의적이다. (중략) 즉, 무언가를 적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돈, 기업, 정부, 복잡한 사회 같은 새로운 실재를 창조한다. 문자는 그런 일에 반드시 필요하다.”⁰⁶

[그림2-1]의 이라크 남부 우르크의 점토판은 남아있는 기록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하는 것으로,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꾼들에게

06. 닐 맥그리거, 『(대영박물관과 BBC가 함께 펴낸) 100대 유물로 보는 세계사』, 강미경 옮김, 2014, 다산북스. p.126



그림2-1. 이라크 남부에서 발견된 점토판, 3,100~3,000 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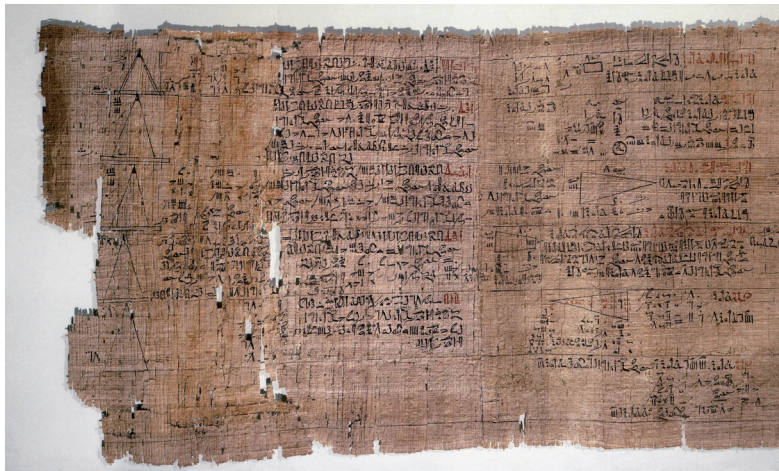


그림2-2. 린드 수학 파피루스(Rhind Mathematical Papyrus), Egypt, about 1550 BC, 대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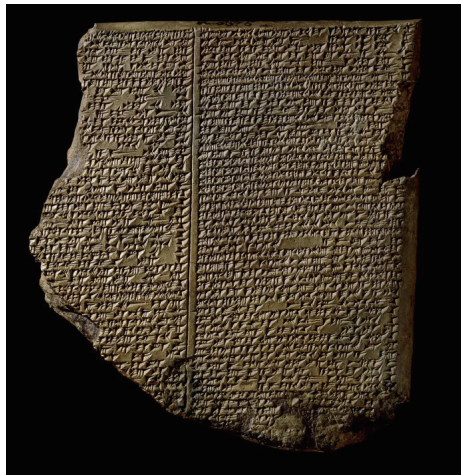


그림2-3. 홍수 서판(Flood Tablet), 700~600BC



그림2-4. 'Page from the Book of the Dead of Hunefer', 19th Dynasty(1292-1187 BC), 대영박물관, google art&culture

식량으로 배급하던 맥주의 배급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점토판은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도시국가에서 재정의 관리, 임금의 지급과 같은 복잡한 통치에 필요한 문자와 쓰기 기술이 발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⁰⁷

[그림2-2]의 린드 파피루스 또한 점토판에서 파피루스로 쓰기 도구와 기술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행정과 관리 체계를 뒷받침한다. '사물의 의미를 파악하고 모든 비밀과 불명료한 것을 알기 위해 계산을 하는 정확한 방법'이라는 붉은 색 제목의 이 파피루스는, 84개의 수학 문제와 답을 담고 있으며, 상형문자가 아닌 행정용 속기부호로 되어있다.

대개 말이나 노랫말 형태로 기억을 통해 전승되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쯤 전부터이다. 중동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는 홍수 서판[그림2-3]가 있으며, 이집트에는 '죽음의 서(The Book of the Dead)' 두루마리[그림2-4]가 있다. 홍수 서판은 성서 속 노아의 방주

07. 닐 맥그리거, 앞의 책, p. 125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의 고대 홍수 설화를 담고 있는데, 이는 길가메시 신화의 일부다. 닐 맥그리거는 기록된 ‘길가메시 서사시’가 출현하면서 “문자는 사실을 기록하는 수단에서 사상을 연구하는 수단으로 옮겨갔으며, 문학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탐색하게 해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도 거할 수 있게 해준다.”⁰⁸고 설명한다.

이집트의 ‘죽음의 서’는 사후 세계로의 여행에 관한 신화, 즉 주인공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과정을 일인칭 화법으로 쓴 ‘이야기’이다. ‘낮이 밝으면 다다를 곳의 장(The Chapter of Coming Forth by Day)’이라고 불리던 이 장례용 문서는 본래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의 벽, 통로에 새겨지다가(pyramid texts) 목관이나 석관의 표면으로(coffin texts) 그리고 파피루스 문서로 만들어졌다. 이 사후 세계 가이드북은 일반인들도 예술가에게 제작을 의뢰할 수 있었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구입할 수도 있었다.⁰⁹

2016년 노벨문학상은 책이 아닌 ‘노래’¹⁰에 돌아갔다. 문학과 책을 거의 동일시하는 요즘의 시각으로는 이례적인 일이지만, 사실 이와 같은 긴밀한 관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고대의 책이 문학보다는 행정정보와 같은 사실의 기록물로 여겨졌듯이, 책 또는 다른 쓰기 기술을 통해 상호교환되는 글의 내용과 성질, 그리고 물질적 형태 간의 대응관계는 가변적이다.

08. 닐 맥그리거, 앞의 책, p. 135

09. 필립 B. 맥스,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황인화 옮김, 미진사, 2002, p.34

10. 스웨덴 한림원은 2016년 밥 딜런(Bob Dylan)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림원은 “미국 노래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 내며 귀를 위한 시를 썼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2.1.3. 코덱스의 특성

책과 독서의 전환 단계에서 구텐베르크의 활자(movable type) 만큼이나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오늘날의 가장 일반적인 책의 형태인 코덱스(codex)¹¹라는 형식의 도입이다. 기원은 약 1세기 무렵,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만들 때에 채용하면서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널리 퍼진 것으로 생각된다.¹² 이 형식은 두루마리(scroll)¹³에 비해, 종이 한 장의 앞 뒤를 모두 사용하므로 긴 성경의 내용을 담기에 용이했고, 경제적이었으며 휴대성 또한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점에 더해 “새로운 읽기 경험을 제공하였는데, 그것은 비선형적인 읽기(nonlinear reading)이다.”¹⁴

조지 란도우(George P. Landow)와 폴 들레니(Paul Delany)는 전통적으로 쓰여진 텍스트는 선형적(linear)이고, 제한적이며, 고정된 특성이 있으며 하이퍼텍스트는 이러한 전통적인 텍스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보는 한편, 코덱스라는 형식과 텍스트가 하이퍼텍스트적 특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수 세기 동안 독자들은 텍스트 관리를 위한 방법들을 발전시켜 왔다. 어떤 방법은 책 한 권 안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권 사이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이퍼텍스트원형(proto-hypertext)이 만들어졌다. 아무리 컴퓨터의 특별한 능력이 쓰기와 인쇄의 오랜 역사를 거쳐 발전되어 온 텍스트 관리방법을 능가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하이퍼텍스트를 디자인하기 위한 중요한 모델은

-
11. 우리가 ‘책’이라는 말은 할 때는, 물리적인 형태뿐 아니라 거기에 담긴 글까지 가리키게 된다. 이와 달리 코덱스는 그 안에 담기는 내용과 분리된 형식 자체만을 뜻한다. 책자형 책은 코덱스 형태의 책을 가리킨다.
 12. 기독교인들은 코덱스의 내구성을 선호했으며 자신들을 이교도의 두루마리 문서로부터 차별화하고자 했다. 필립 B. 맥스, 앞의 책 p.56 참조
 13. 여러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두루마리가 상대적으로 더 고급기술로 여겨지며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는데에 선호되던 방식이다.
 14. Lev Grossman, ‘From Scroll to Screen’, New York Times Sunday Book Review, september 4,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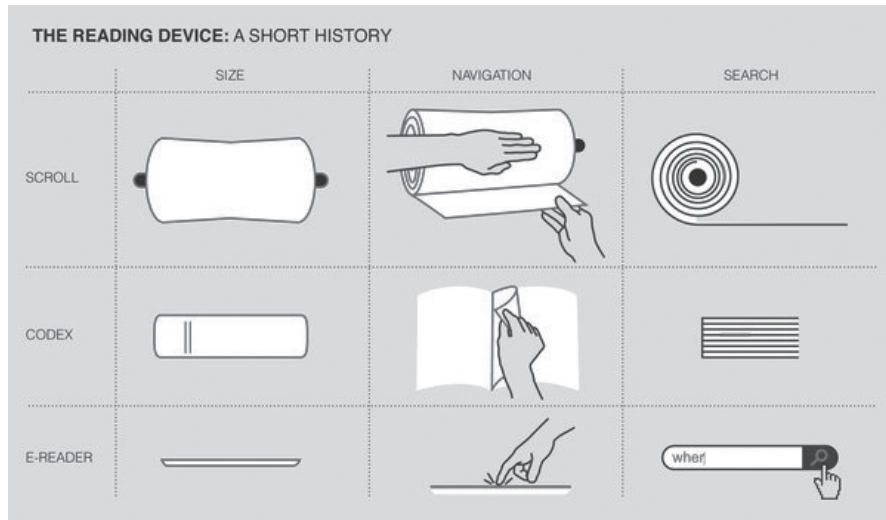


그림2-5. The reading device: a short history, Lev Grossman

하이퍼텍스트원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인 책 한권에서도 목차, 페이지 번호, 잘, 절, 주석, 각주와 색인과 같은 내적인(internal)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 (중략) 외적인 (external) 하이퍼텍스트의 기능은 전통적으로 작가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서나 서지학자가 덧붙인 것이었다.”¹⁵

타임즈지(Time magazine)의 북평론가이자 소설가인 레브 그로스만(Lev Grossman)은 그의 컬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선형성을 전자책의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전자책을 읽을 때에, 책의 책장을 이리저리

15. 조지 랜도우, 폴 들레니,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그리고 문학연구: 예술의 현재 1991’, 『멀티미디어: 바그너에서 가상현실까지』, pp.257-373, nabi press, 2004,



그림2-6. 시나이사본(Codex Sinaiticus), 4세기, <http://codexsinaiticus.org/>

넘기며 글의 시작과 뒷부분을 자연스럽게 오가는 행동은 불가능하며, 결국은 한페이지씩 넘기거나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혹은 단어찾기에서 단어찾기로 좀더 넓게 뛰어다니거나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웹 서퍼의 하이퍼텍스트적인 그것과는 다르지만, 역시 코덱스에 비선형적 특성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¹⁶

선형적인 글쓰기와 코덱스의 연관성을, 볼터는 “우리 문화가 인쇄된 산문들은 선형적이어야만 한다고 기대하기 때문에”¹⁷ 나타난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보았다. 실제로 책자형 책의 구조 자체는 애초에 이것저것의 ‘묶음’이라는 것과 쪽에서 쪽으로 부분에서 부분으로 옮겨가는 ‘조각독서’를 쉽게한다는 점이 두루마리와 다른 특이점이다.¹⁸ 본래의 이같은 특성이 유기적

16. Lev Grossman, ‘The mechanic muse—from scroll to screen’, The New York Times, Sunday book review, sep.4,2011

17. 제이 데이비드 볼터, 『글쓰기의 공간』, p.32

18.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역음, 앞의 책, pp.146~148

통합을 기대하는 독서 관습의 작용에 의해 그 시각적 장치들을 발전시키며 적응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틴어로 ‘코덱스’는 글을 새기는 나무토막(block of woods used for writting)을 뜻하는데 4세기에 두꺼운 양피지 묶음(large parchment volumns)이 개발되면서 ‘책(book)’을 의미하게 되었다.^{19, 20} [그림2-6]의 시나이사본(Codex Sinaiticus)은 가장 오래된 신약성경으로 오늘날 성경의 원형이다. 당시 성경의 사본(manuscript)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는데, 4세기 초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자,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있던 성경 사본들을 통합해 하나의 완결된 성경으로 만들었다.

구약 48권과 신약 27권을 모두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했다. 무엇보다 얇은 양피지를 만드는 기술이 필수적이었으며 쉽게 번지지 않는 오배자 잉크(oak gall ink)의 개발이 뒷받침되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표지와 두께를 가진 책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같은 묶음은 일종의 작품을 보존하는 ‘용기’ 역할을 했다. 책자형 책은 한 작가의 하나 또는 여러 작품, 같은 경향의 다른 작가가 쓴 각각의 글들을 함께 수록하거나, 관련없는 것들을 잡다하게 수록하여 ‘도서관 아닌 도서관’을 형성했다.²¹

시나이사본에는 수정된 부분이 매우 많다. 약 2만3천 개의 철자 및 신학적 내용 검토가 그리스어 원본을 옮겨 적은 뒤 추가되었다. 초기 성경 필사본들은 유사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공인된 성경으로 진화해 갔으며, 이런 방식으로 책이라는 형식에 ‘통합·통일성’과 (원본의) ‘권위’라는 속성이

19. BBC 다큐멘터리 ‘The Beauty of Books’, Episode 1 Ancient Bibles’, 2011

20. 마틴 라이언스는 이를 최초의 거대 판형 제본책이라고 말했다.

21. 로제 샤프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역음, 앞의 책, p.146



그림2-7. 종교개혁 100주년 전단지, 1617, 라이프치히, 대영박물관 소장

밀접하게 결부되기 시작했다.²² 책자형 책은 여러 글의 통합 과정에서 작품 내의 작은 구분과 별개의 다른 작품을 분리하는 방식 등 ‘편집상’의 기교가 서서히 발달한다.

2.1.4. 인쇄술과 쓰기·읽기 기술

1617년 유럽 인쇄산업의 중심지 라이프치히에서 인쇄된 ‘종교개혁 100주년 전단지’는[그림2-7] 프로테스탄트들이 가톨릭교회에 맞서 그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100년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못질해 교회의 권위에

22. 초기 대다수 코덱스는 한 가지 주제만을 담고 있지 않고 종종 다른 언어로 쓰여진 다양한 내용을 모은 형태였다. 마틴 라이언스, p.36

도전하던 날을 목판화로 묘사했다.

“루터는 그 아래쪽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그를 축복하며 하늘에서 내려 보내는 거대한 빛줄기에 의지해 성서를 읽고 있다. 루터가 고개를 들자 빛이 그의 앞에 놓인 종으로 쏟아진다. 여기서 성서는 곧 하느님의 말씀이며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만난다는 뜻이다.”²³

1440년대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 발견을 기점으로, 책의 형태나 출판되는 책의 종류가 급작스럽게 바뀐 것은 아니었다. 이 새로운 기술로 가장 초반에 많이 인쇄된 것은 카톨릭교회의 종교서적들이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13세기 중반부터 지속되어온 독서 수요의 증가와 출판 시장 확대의 촉매제가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쇄물을 경험하게 되었다. 책이 늘어나자 이제 개인이 인쇄된 성경을 교회와 성직자의 도움 없이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책 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종교인들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전문 역사가의 견해에 따르면 근대 인쇄술의 특징은 ‘확산’, ‘표준화’, ‘보존’, ‘고정성’이라는 네 단어로 요약된다.”²⁴ 인쇄술은 지식과 정보를 확산시켰을 뿐 아니라 ‘읽기와 쓰기’의 기술과 관습 자체도 확산시켰으며, 이 과정 속에서 서서히 세부적인 모습들을 바꾸어 갔다.”²⁵

초기 인쇄본 업자들은 필사본과 똑같은 모양의 책을 만들곤 하였으며, 이전 시기의 페이지 편집 기술을 이어받아 이를 인쇄술에 적용했다. 그러나 초기 인쇄술에서 금속활자 가공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내구성은

23. 닐 맥그리거, 앞의 책, p.597

24. 아이젠스타인, 『인쇄출판문화의 원류』, pp.42-92, 육영수, 앞의 책, p.27에서 재인용

25. 육영수, 앞의 책, p.27

떨어졌다. 또, 높은 비용, 유통 문제, 다양한 지방어의 활자 제작 필요성 때문에 점차 이음자(ligature)나 축약어의 활자 제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표준화와 규격화가 이루어졌다.

한 사람이 책을 낭독하면 그것을 듣고 여러 필경사가 동시에 써서 만드는 필사본의 복제 과정은 자연히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개정판 인쇄의 과정은 내용을 검증하도록 유도했다. 동시에 인쇄술을 통해 고전을 복원하려는 인문주의자들과 라틴어 외의 지방어 출판을 필요로 하던 왕과 귀족의 수요도 문법적인 통일과 표준화를 유도했다.

책을 대량 인쇄하는 데에는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를 인쇄술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볼 수 있다. 우선 인쇄책 이전에 종이보다 먼저 페이지를 만들던 재료는 파피루스와 양피지다. 파피루스는 이집트 특산물로 타 지역에서는 공급이 불안정하다. 파피루스는 앞면(recto)은 수평방향으로 섬유질을 이어붙이며 뒷면(verso)은 수직방향으로 짜므로 결방향이 달라 한쪽에만 글을 썼다. 양면을 다 쓰는 책자형 책과 단면을 쓰는 파피루스는 적합한 조합이 아니었으므로 유럽 지역에서는 구하기 쉬운 양피지로 빠르게 옮겨갔다.

중세 시대는 그리스도교적 책문화가 성립되었다. 이 시대의 고급 채색 사본(illuminated manuscript)은 최고급 송아지 가죽(vellum)²⁶으로 만들었는데,²⁷ 이 채색 사본이 빛나는(illuminated) 이유는 금박과 은박을 입히고 푸른색 청금석 안료를 써서 책장을 넘길 때 말그대로 빛을 받아

26. 양피지(parchment)는 양가죽이며, 송아지 가죽은 독피지(犢皮紙)라고도 한다.

27. 윈체스터 성경의 경우 만드는 데 250여 장의 송아지 가죽이 소비되었는데, 우선 2,000장이 넘는 가죽을 모은 후 그중 흠이 있는 것을 골라내고 남은 양질의 재료로 제작한 것이다. 구텐베르크가 가동활자를 이용하여 처음 성경을 인쇄했을 때, 종이 본 150권, 벨럼(vellum) 본 30권, 총 180권을 만들었다. 모두를 양피지로 만들었다면 5천여 장의 송아지 가죽이 필요했을 것이다. 마틴 라이언스, 『책, 그 살아있는 역사』, 서지원 옮김, 21세기북스, 2011, p.22, p.57

반짝거렸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책은, 신의 말씀을 담은 ‘아름다운 육체’로서, 또는 강력한 봉건 영주와 왕의 권력을 과시하는 값비싼 예술품으로서의 전통을 갖게 된다.

12세기에는 이슬람을 통해 중국의 ‘종이’가 유럽에 들어오는데, 14세기 무렵에는 제지업이 베네치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도시에 자리잡았다. 중세 유럽의 종이는 나무가 아니라 냥마, 즉 양모 등으로 만든 직물의 낱아서 버리는 것, 혹은 배의 밧줄 따위의 여러가지를 섞어서 만들었다. 유럽인은 처음에 종이를 크게 신뢰하지 않아 중요한 공문서에는 사용하지 않을 정도였지만 14세기까지 그 사용이 점진적으로 늘어 인쇄술이 완성될 무렵에는 꽤 큰 시장이 형성되었다. 풍차의 힘을 이용하는 기술 도입, 아마와 린넨 생산량의 증가, 냥마 가격의 하락이 토대가 되었다.²⁸

나무가 종이 재료로 쓰이기 시작한 19세기까지 냥마가 종이를 만드는 주요 재료였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 위기가 계속 나타났고, 이를 타계하기 위해 몰래 종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쩔 수 없이 작은 판형의 책을 만들어 내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

책의 대량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제지 기술과 자원의 공급을 바탕으로, 유럽의 인쇄술은 늘어나는 독자의 수요에 부응했으며, 더 많은 독자층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그들을 기존의 교회 중심의 종교적 읽기로 부터 이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소수의 부유한 계층의 취향을 반영하고, 종교적 권위를 보여주고자 했던 글 쓰기의 기술은, 더 많은 책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조건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 다양화했다.

28. 뤼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책의 탄생』, 강주현, 배영란 역, 돌베개, 2014. pp.53-55

2.2. 책의 역사와 독서관습

2016년 젤리북스(Jellybooks)는 사람들의 독서 방식을 분석한 데이터를 발표했다.

“평균적으로 테스트된 책들 중 절반도 안되는 책만이 독자들에게 끝까지 읽혔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초기 챕터에서 책 읽는 걸 포기한다. 여성들은 50에서 100페이지 정도를 읽고 그만두는 경향이 있고, 남성들은 30에서 50페이지 정도를 읽은 후 그만둔다.”²⁹

또, 온라인 서점 아마존닷컴은 2015년 처음으로 오프라인 서점 ‘아마존북스’를 열었고 추가 지점을 늘리고 있다. 이곳이 다른 서점과 다른 점은 철저하게 온라인에서 수집한 판매 관련 데이터와 사용자 리뷰를 활용하는 ‘데이터 큐레이션’ 서점이라는 것이다. 출판 유통시장에서는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지금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얻는 개인의 사용정보를 활용해, 매우 개인적인 영역에 있던 독서를 ‘개량화’ 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방식은 ebook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거부 반응, 법적인 문제와 같은 넘어야 할 제약사항이 산재해 있다. 데이터들은 책의 상품성, 열독율 등을 말해주므로 어떤 책에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투자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시간

29. 젤리북스는 영국 런던을 근거로 독서 분석 연구를 진행한다. 사례에서는 ebook을 독자 그룹에 배포한 뒤, 독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디바이스가 기록한 모든 사용 정보를 업로드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정보를 분석하면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책 한권의 어디까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자주’ 읽는지를 알 수 있다. Alexandra Aalter and Karl Russell, ‘Moneyball for Book Publishers: A Detailed Look at How We Read’, March 15, The New York Times

읽는 현상의 이유와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는 이와는 별개의 영역이고 새로운 문제다. 연구를 진행한 앤드류 롬버그(Andrew Rhomberg)의 말처럼 아직도 우리는 일반서 출판시장에서의 독자들에게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다.

과거 역사 속의 독자의 모습에 대한 가장 신빙성 있는 그림은 현재로서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책의 역사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책을 읽는 독자는 한데 묶어서 정의내리기 어려운 개별 주체이다. 그러나 책의 역사학은, 역사의 전환기에 독자와 사회의 요구가 책을 통해 어떻게 충족되고 다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수많은 개별 케이스를 토대로 질적 연구를 진행해 독서의 주요한 흐름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그래픽디자인사를 따라가면서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로 이어지는 시각문화의 흐름 사이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극을 이해하고,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보이는 개별 스타일들의 연대기적 나열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연구자는 책의 역사 분야의 성과에 기대어 제한적이거나 독자와 책임기 문화, 출판시장의 관계망 속에서 책의 시각적 요소가 변화해 온 과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2.1. 서양 책의 역사와 독서 관습

‘책의 역사(History of books)’의 목적은, 미국의 학자 로버트 단턴에 따르면, “어떻게 생각(idea)이 인쇄물을 통해 전달되고, 인쇄된 말(printed word)에 대한 노출이 어떻게 지난 500년 동안의 인류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는 것”³⁰이다. “국내 학계에는, 이 주제를 소개한 글들이 그동안 산발적으로 발표되긴 했지만, 책과 독서의 역사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30. Robert Darnton, ‘What is the history of books?’, 『Daedalus』, Vol. 111, No. 3, 1982. pp. 65-83.

사회학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글이 거의 없는”³¹ 이유로 여기서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단서들을 나열하고 소개하였다.

이 장의 목표는 책의 시각적 요소, 특히 내부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해 고찰하면서, 책의 역사가 표방하는 텍스트, 책, 독자 간의 관계망을 고려한 ‘종합적인 서술’을 가져와 그것이 ‘읽기를 위한 장치’이자 책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변용의 산물임을 확인하는 것이다.³²

책의 역사(Histoire du livre)는 ‘아날 학파’³³라고 통칭되는 일단의 프랑스 역사가들의 새로운 역사학 방법론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아날 학파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뤼시앵 페브르(Lucien Febvre)가 앙리-장 마르탱(Henri-jean Martin)과 공동으로 1958년에 출간한 『책의 탄생 L'apparition du livre』은 이 분야 연구를 촉발한 계기가 되었고, 아날 학파 4세대인 로제 샤르티에(Roger Chartier)에 의해 크게 성장했다.

현재 이 분야의 책은 로제 샤르티에와 굴리엘모 카발로가 엮은 『읽는다는 것의 역사』(2006), 로버트 단턴의 『책의 미래』(2011)등이 번역 출간되었으며, 이들의 연구 배경과 흐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소개한

31. 육영수는 ‘책의 역사’가 신생 역사학의 하나로 서구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수용, 발전된 반면, 국내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관심이 커져 응용적 도약 단계로 이행 중이라고 썼다. 문헌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번역된 책도 많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육영수, 앞의 책, p.55

32. 뤼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의 『책의 탄생』은 1957년 ‘인류의 진화(L'Evolution de l'Humanite)’ 총서에서 중세말에서 근대로의 이행을 설명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인쇄된 책이 등장하는 15세기부터 18세기말까지, 그것이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술사적인 시각을 포함하여 다룬다. 책의 역사학의 ‘원조’로 기록되지만, 국내에는 2014년으로 뒤늦게 번역 출간되었다. 『책의 탄생 : 책은 어떻게 지식의 혁명과 사상의 전파를 이끌었는가』, 강주현, 배영란 옮김, 돌베개, 2014

33. ‘1929년에 창간된 학술지 ‘아날(Annales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을 중심으로 활약한 이들은 창립 멤버에서 현재의 제4세대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사, 망탈리테사, 장기 지속의 역사, 문화인류학, 사생활의 역사 등과 같은 분야를 개척하면서 역사학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육영수, 앞의 책, p.55 참조

육영수의 『책과 독서의 문화사』³⁴(2010)가 있다.

육영수에 따르면 책과 독서의 역사는 멀게는 분석 문헌학(analytical bibliography)과 희귀본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엄격히는 루시앵 페브르가 자신의 관심이었던 종교 개혁기와 가톨릭 개혁기의 정신적 풍속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인쇄출판의 문화사를 접목하고자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³⁵ 이 아이디어는 국립 도서관 사서이자 젊은 학자였던 앙리 장 마르탱을 만나 『책의 탄생』의 출간으로 열매를 맺었으며, ‘역사를 움직이는 힘으로서의 책(the book as a force in history)’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후속 연구를 촉발했다.

이후 샤르티에의 분석에 따르면, 페브르와 마르탱 이후의 책의 역사의 문제는, “과도하게 통계학적 연구 방법에 의존했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특정 텍스트를 자기 나름대로 소화·이해 혹은 오해하다는 점과 책의 기술적·시각적·외형적 변화가 때로 특정 독자층의 형성과 독서 과정, 의미 전달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책의 역사’가 ‘독서의 역사’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³⁶

따라서 샤르티에는 『읽는다는 것의 역사』 서문에서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역사가들의 임무는 고전고대 이래 서양사회의 특색을 이뤄 온 독서의 여러 가지 방식을 그 다양성과 특이성을 살려 재구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1) 『읽는다는 것의 역사』 속 읽기 방식

그리스 로마 이전에는 음독(낭독)이 가장 많이 보급된 독서 형태였다. 여기서 낭독이란 청중을 위해 책을 읽는다는 뜻이다. 당시 책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34. 육영수는 이 분야를 ‘책과 독서의 문화사’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 용어 체계가 불확실하여 이 논문에서는 ‘책의 역사(History of books)’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35. 육영수, 같은 책, p.58

36. 육영수, 같은 책 p.72

연속기법(scriptio continua)³⁷를 사용했기 때문에 책을 읽으려면 문장의 수사 구조와 운율을 숙지해야 의미를 구별해서 읽을 수 있었다.

음독이 지배적이기는 했지만, 묵독도 일부 행해졌으며, 직업적 목적의 독서 외에도 개인의 여가와 오락을 위한 독서가 있었다. 제정로마³⁸에 오면 여성들의 독서도 나타난다. 이후 『읽는다는 것의 역사』가 추적한 독서 관습 가운데 특징적인 형태를 시대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수도원의 독서(자유로운 독서에서 소수의 규범적 독서로)

3~4세기에 책자형책(codex)의 생산이 늘어나 일반적인 책의 형태가 된 반면, 사회와 문화의 큰 변화로 이교도와 기독교도를 불문하고 지식인, 즉 독자의 수가 감소하고 여성 문맹자 수는 크게 늘어났다. 5,6세기가 되면 교회 질서 안에서도 독서는 아주 희귀한 일이 되고 만다. 그리스어가 늦게까지 사용된 비잔틴 세계의 독서에는 음독의 습관이 남아있었던 반면, 서유럽에서는 교회, 학교, 궁정의 폐쇄된 공간의 독서인 묵독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독서는 영적인 수행이며 종교 관련 서적에 한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같았다. 이와 같은 수도원의 독서는 다른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작게 중얼거리거나 눈으로만 읽게 되었고, 더 이상 수사적인 리듬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점차 구두법(句讀法)과 띄어쓰기 습관이 나타났다. 한가롭게 읽는 문학적인 독서는, 정확한 지시 부호로 의미가 규정된 텍스트를 주의깊게 읽는 규범적 독서로 옮겨갔다.

37. 이 방식은 원래 그리스적인 것으로 보인다. 고대 로마 시대에도 띄어쓰기는 있었으나, 라틴어가 그리스어 문자 체계를 받아들여 완성되고 중세의 공용어가 되면서 이 연속기법이 중세시대까지 이어진다.

38. 기원전 27년에서 기원후 476. 로마 공화정 이후.

스콜라적 독서

11~14세기에 도시가 부활하고 학교도 부활하면서 학교가 책의 장소가 되었다.³⁹ 이때의 책 읽기는 함께 새로운 책을 쓰기 위해 하는, 스콜라학⁴⁰ 특유의 ‘함께 집성(compoilare)’ 하기 위한 바탕이었다. 따라서 많은 책을 단편적으로 읽었으며, 텍스트를 깊게 파고들어 이해하며, 전체적인 취지, 혹은 학설의 전체를 파악하려고도 했다. 이전 시기에 줄어들었던 식자층이 다시 증가하면서 책이 ‘지적 작업의 도구’로 재탄생하여⁴¹, 지식의 저장고라기보다는 여러가지 다른 지식을 끌어내는 원천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고대의 책을 해석하려한 것으로 후에 인문학자들에 의해 비난을 받았다.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의 독서

인쇄술의 시대가 되자 중세가 남긴 수많은 필사본들은 일종의 선별 작업을 거치게 된다. 어떤 책을 대량으로 찍을 것인가는, 15세기 사람들의 입맛과 책을 팔고자 노력하던 서적상의 손에 달려있었다. 이때 인문주의자들이 발굴해 낸 고대 그리스·라틴 고전 작가들의 작품도 인쇄본으로 만들어졌고 16세기까지 크게 인기를 누렸다.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은 스콜라학적 색채를 띤 대학 문화의 전통과 그들의 고딕체(blackletter)로터 거리를 두기를 원했다. 고전에 관심을 가지기

39. 『책의 탄생』에 따르면 중세 필사본의 발전 과정은 ‘수도원의 시대’와 ‘수도원 밖의 시대’로 나뉜다. 12세기 말 13세기 이후가 되면 대학이 설립되고, 새로운 계급 부르주아 독자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도원 외부에서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화한 인쇄공들의 작업이 시작된다.

40. 스콜라학(Scholasticism)은, 신학, 철학, 법학을 포함해서 중세유럽에 성립한 학문형태의 총칭.

41.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역사가들도 저작물 각 부분 머리에 요약문을 첨부하여 독서와 참조의 편의를 제공했다. 『박물지(Historia Naturalis)』의 모든 부분에서 플리니우스(Plinius)는 황제 티투스에게 헌정한 편지 외에 후속 36권의 내용을 각각 숫자를 붙여 요약하고 관련 출전 목록도 첨부했다.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op. cit, p.27 참조.

시작한 독자층은 알도 마누치오(Aldus Manutius)와 같은 출판가들이 펴낸 수많은 그리스어 문법서와 입문서를 통해 ‘원전’을 읽을 수 있는 수요층을 형성하며 더 많은 고전 작품들이 출판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시기부터 인쇄업자와 독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주석(註釋)으로 오염되지 않은 더 정확한 텍스트와 훌륭한 원고, 문헌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누가 저자인지가 중요해졌다.⁴²

프로테스탄트의 독서

1500년 이전에 제작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출판물의 수는 약 3만5,000종 정도인데, 1500년에서 1600년 사이 15만에서 20만 종 가량의 책이 쏟아져 나온다. 부수로 따지면 1,500만에서 2,000만부로부터 1억 5,000만부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같이 늘어난 인쇄본은 고전 문헌 뿐 아니라 종교 개혁 사상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쇄술 발전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한 독서 수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하던 대중들은 이제 라틴어가 아닌 지방어(자국어)로 쓰인 성경과 각종 인쇄물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의 출판물이 널리 퍼지며 인기를 끌자,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국가는 검열을 확대하는 한편, 이단의 확산을 막기 위해 카톨릭을 옹호하는 출판물의 제작에 힘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여파로 유럽 내에 큰 규모의 출판 조합과 유통망이 생겨났다.

출판업자들은 독자층을 넓히기 위해, 그리고 프랑스의 왕들은 국가의 통일 정책으로서 자국어 번역물의 출판을 장려했다. 번역은 성경과 그리스

42. 중세시대의 성직자는 학자인 동시에 독자이자, 저자였고, 수도원은 책의 유통 주체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종교 서적을 필사하는 것이 신앙의 의무였으며, 수도원을 돌아다니며 책을 필사했다. 중세 이후부터 18세기까지 일반 독자층 시장이 서서히 자리잡으면서 책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저자’와 분리되었다.



그림2-8. 17세기 이탈리아의 석적행상인, 1646년의 판화

로마의 고전으로부터 인문주의자들의 저서 그리고 동시대의 작가들의 자국어 문학 작품들로 확대되었다. 라틴어가 점차 쇠퇴하고 자국어 문학이 발전하면서 도서 시장은 점차 세분화했다.

새로운 책은 계속해서 자유롭게 전유(appropriate)되고 유통되었으며, 설교와 통제로부터 벗어난 독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해석하려는 이단적인 독서가 전례적인 집단 독서와 뒤섞이며 혼재하게 된다.

대중 독서(근대화된 독서)

18세기 후반 계몽사상의 보급과 도시의 발달에 따른 대중 공간의 확대로 이들 새로운 부르주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학과 문학서적이 크게 증가했다. 새로운 책에 실린 15세기 목판화는 대중이 이미 ‘귀로 들어’ 알고 있던 성서 속 한 장면이나 성인의 얼굴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으며, 더불어 그림 속의 미술 양식을 대량으로 확산시켜 일상생활에 파고들게 했다. 그리고

16세기 말 동판화는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시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시 발전한 자연과학 지식의 축적과 확산에 기여했으며, 대항해시대의 먼 이국의 풍경을 화보처럼 실어날랐다.

이들은 점차 제멋대로 다양한 책을 자유롭게 읽는 독서 형태를 보이며, 그들의 통치자나 교회로부터 이탈해갔다. 새롭게 나타난 소설의 인기가 대단했는데, 권위적이거나 학술적인 독서로부터 정서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의 독서로의 이행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음을 뜻했다.⁴³

수도원의 독서로부터 짚어 본 몇 가지 독서 방식은 지금까지의 읽기 방식을 유형별로 분류해주는 의미가 아니다. 책의 역사는 “서양 근대에 나타난 책 읽기의 두드러진 특징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과 고찰을 통해 당대인들이 공유하던 사고 구조, 일상 생활, 세계관 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⁴⁴ 따라서, 독서 관습, 읽기 방식은 특정 시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떼어내어 현재 시점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2.2.2. 커뮤니케이션 순환과정으로서의 책의 역사

역사학자이자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장이기도 한 로버트 단턴⁴⁵은 책과 독서의 역사를 대표하는 아날학파가 계열사적 분석에 과도하게 의존, 즉 책이

43. 알도 마누치오가 책을 읽는 즐거움을 만들어낸 최초의 현대적인 의미의 출판가로 불리운다. 개인적인 독서는 13세기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한 독자층과 인쇄술 이후 출판업의 발달로 점차 무르익었고, 이 시기에 이르러 매우 일반적인 독서 형태로 자리잡았다.

44. 육영수, 앞의 책, p.41

45. 로버트 단턴은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유럽사를 가르쳤으며, 한국에서도 널리 읽힌 『고양이 대학살 The Great Cat Massacre』을 비롯하여 다수의 저작과 왕성한 학술활동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2007년에는 하버드대학교로 돌아가 칼 포르차이며 교수가 되었으며 도서관장에 취임했다. 전자논문 프로젝트인 구텐베르크-e 프로그램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로버트 단턴, 『책과 혁명-프랑스 혁명 이전의 금서 베스트 셀러』, 주명철 역, 알마, 20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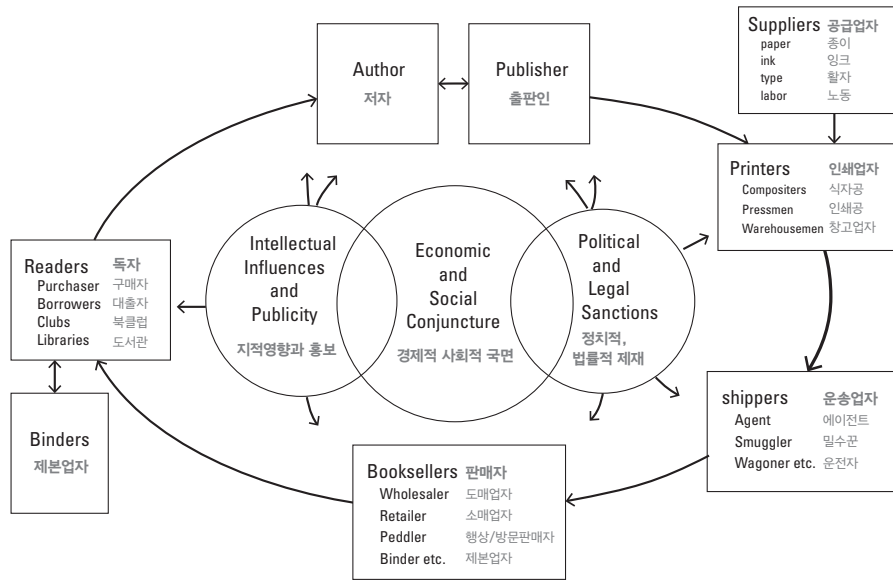


그림2-9. The Communication Circuit

생산, 보급, 소비되는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을 한계로 보았다.⁴⁶ 그는 책이 만들어지고 사회에 퍼져나가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의 생애 주기는 저자로부터 시작해 출판인, 인쇄업자, 운송업자, 서적상, 그리고 독자에게 연결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회로(The Communication Circuit)’로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순환과정을 완성시키는 것은 독자다.⁴⁷

커뮤니케이션 회로에는 저자와 독자 외에도 출판사, 인쇄제본업자, 운송업자, 도소매업자와 같은 관련 직종의 주체들과 홍보의 측면, 출판 법에 관한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2-10]에서는 책의 역사와 독서 관습을 간략화하고 있는데, 14세기 무렵 대중 독서가

46. 육영수, 앞의 책, p.95

47. 로버트 단턴, 앞의 책, p. 264

성장하면서 ‘매개자들’⁴⁸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텐베르크 이전부터 필사본 업자들과 인쇄 업자들이 대중용 인쇄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좀더 작고 가벼운 판형의 책과 다양한 인쇄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⁴⁹ 프톨레마이오스의 라틴어로 된 『지리학Geography』은 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대형 판형의 멋진 지도와 삽화를 넣어 인기 있는 책이 되었고, 호화 판본과 한정판 등은 일종의 기호(嗜好)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바로 필사본 업자들과 인쇄 업자들의 적극적인 매개활동 때문이었다.

활판인쇄술 이후에는 구두법과 철자의 표준화가 가속화되었지만, 텍스트의 내용은 여전히 구어적, 구전적인 문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책을 소리내어 노래했고, 귀로 들었다. 출판업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시가집’, 한 두편의 로망스를 스페인의 플리에고 수엘토(pliego suelto)나 영국의 브로드사이드 발라드(broadside ballad)와 같은 8면짜리 책자로 바꾸어 내놓는 출판 전략을 펴서 같은 책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했다.

48. 15세기 전반까지 필경사들이 고대 저자와 근대 독자 사이에서 훗날의 인쇄출판업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은 대량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필경사를 고용하였으며, 제작할 텍스트를 결정했다. 앤서니 그래프턴은 필사본업자와 인쇄업자들을 일컬어 매개자들이라고 표현했다. 로제 샤프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역음, 앞의 책, p.302

49. [그림2-8]의 서적 행상인의 모습처럼, 사회 서열의 맨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때로는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인쇄물이나 서적을 팔러 다녔다.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서적을 몰래 팔던 사람들은 호된 벌을 받았다. 로버트 단턴, 『책과 혁명: 프랑스 혁명 이전의 금서 베스트 셀러』, 주명철 옮김, 도서출판 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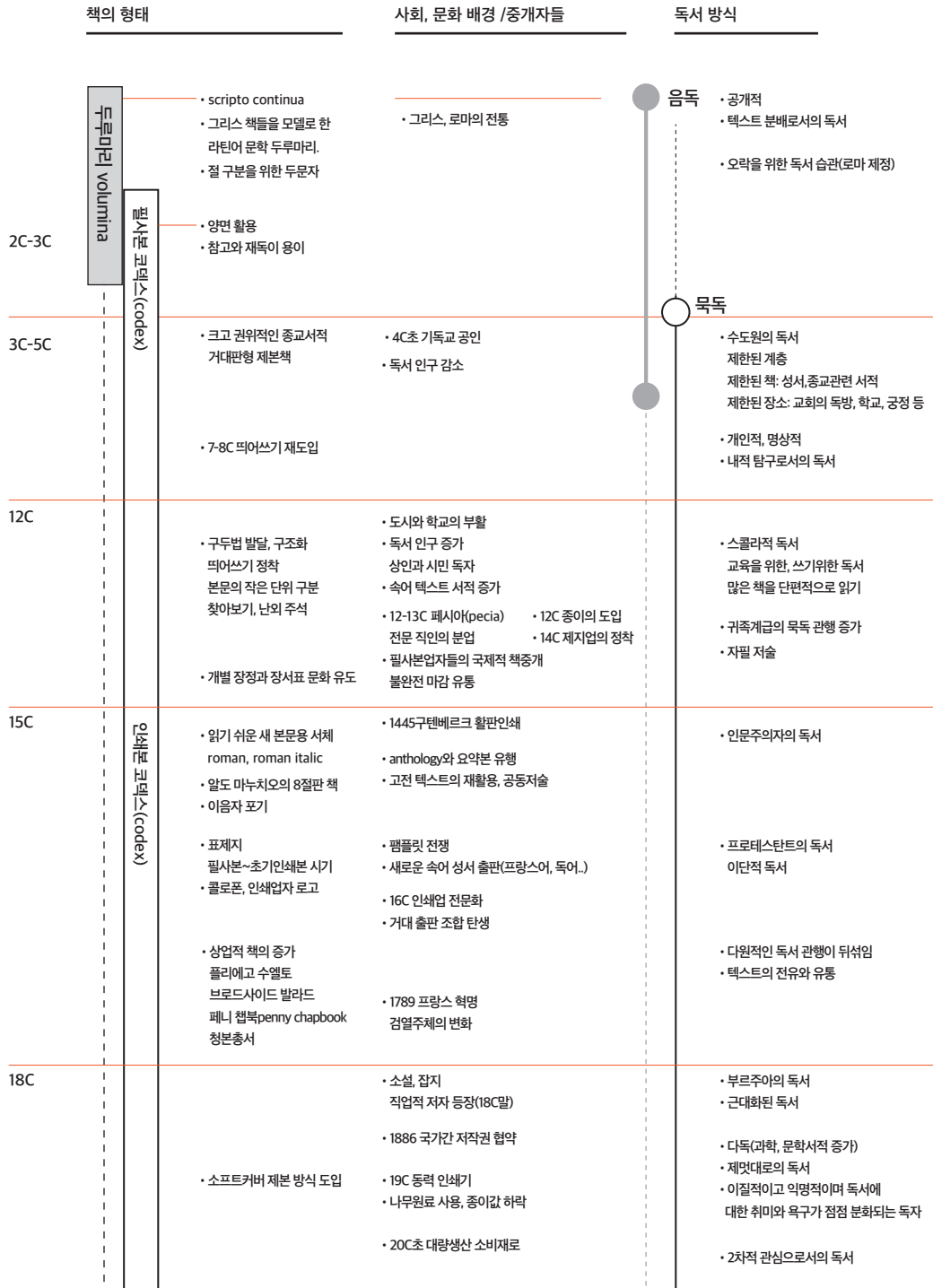


그림2-10. 책의 역사속 책의 형태, 독서 방식, 중개자들의 변화

2.2.3. 책의 역사와 책의 시각적 형식

우리가 알고 있는 책에서의 구두법 기호와 단락과 표제와 같은 글 단위들, 목차와 인덱스와 같은 참조 시스템은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읽기 방식과 함께 발달해 왔다.

현재 북디자인에서는 책의 형식을 세부적으로 나눌 때, 외형을 결정짓고 비례와 크기를 정하는 포맷(format)과 표지(cover)를 포함한 패키지 요소, 본 내용, 그리고 그 앞과 뒤, 혹은 중간에 들어가는 책의 페이지 구조 요소(prelims and end-pages), 페이지 내의 구성과 텍스트의 짜임 등을 결정하는 북타이포그래피(또는 micro typography라고 하는) 요소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이 구분에 따라 각각의 요소들의 본래의 쓰임, 읽기 방식과의 관계를 추적해 보았다.⁵⁰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은 페이지 구성과 타이포그래피적 요소에 있으므로 외형적 부분은 개괄적인 내용만을 다루었다.

(1) 외형 요소

책의 표지가 지금과 같이 책의 얼굴의 역할, 그리고 광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꾸며진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활판인쇄기술, 인문주의 그리고 근대적인 독자와 출판 시장이 성립되기 이전과 이후로 책의 개념이 크게 달라진다. 이전 시기 책은 종교와 사회 체계에 종속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특수 계층의 귀중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외형에 있어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장식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그 장식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범위의 독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독서행위의 배경이 되는 의례와 환경의 의미가 강했으며, 예술 분야의 양식적 흐름과 연동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책은 “그 자체가 예술작품이어서 독서용이 아니라

50. 이 구분은 연구의 편의상 요스트 호홀리(Jost Hochuli)의 저서 『Designing books : practice and theory』(Hyphen, 1996)의 구성을 참조하여 나눈 것일 뿐, 사실 이 영역의 구분은 매우 모호하며, 통틀어서 타이포그래피의 영역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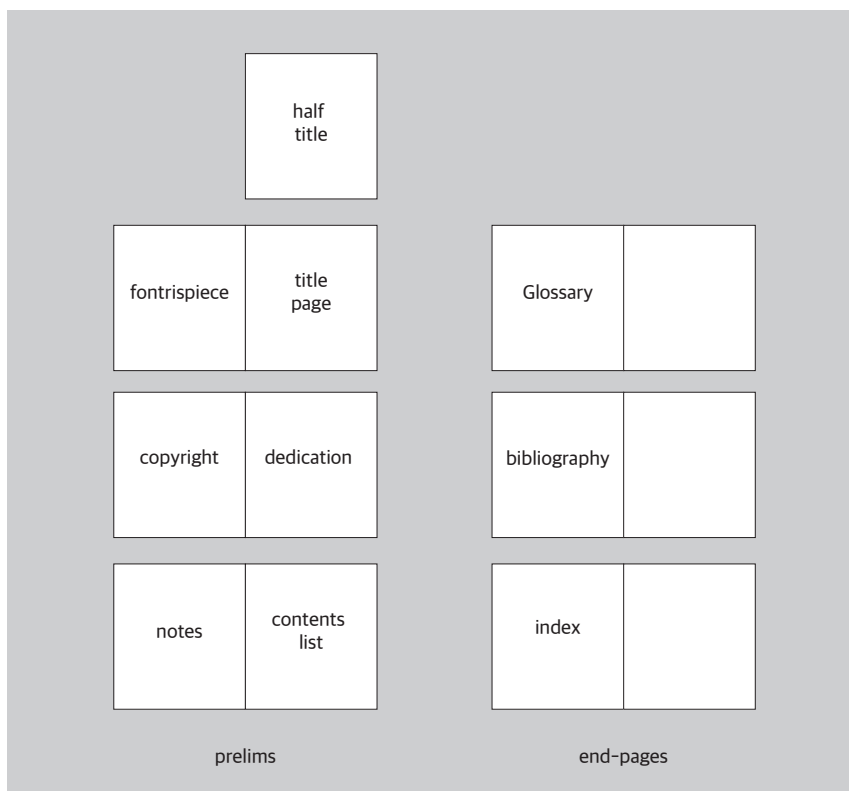


그림2-11. prelims and end-pages의 배열 예시

표1. 책의 형식 요소

(1) 외형 요소

종이, 재질
포맷(format)
표지cover
자켓(dust jacket)
제본방식(binding)
접지
묶음

(2) prelims and end-pages

표제지(half title / title page)
title page verso
프런티스피스(frontispiece)
헌사(dedication)
목차(contents list)
일러두기(notes)
서지사항(bibliography)
인덱스(index)

(3) micro typography

글꼴
단락 짜기(type setting)
크기, 자간, 행간
단락구분, 정렬
정서법
띄어쓰기
맞춤법, 표기법(문장부호
사용)
페이지 여백(margin)
주석
running head, 페이지 번호

감상용이었다.”⁵¹

4세기에 제본책(book)의 제작 방식이 개발된 이후 낱장을 묶은 본문 덩어리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표지를 덧붙이는 방식은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4세기의 보통 장정 방식(book binding)은 지금 우리가 양장이라고 부르는 하드커버(hard cover) 방식에 제본용 인두로 무늬를 찍었는데, 높은 신분의 독자를 위한 고급 제본에서는 벨벳과 실크, 금사로 된 천으로 판지를 감싸 만들었고, 그 외의 일반 장정에서는 소, 양, 또는 돼지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인쇄술이 퍼지기 이전 15세기에 이미 필사본업자들은 주문품과 대량판매용 필사본, 호화장정본을 각각 다르게 만들었다.

중세를 거치며 독자층과 수요는 꾸준히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서적상의 고객층은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제본사들은 돈이 될 만한 상업적인 표지 제본 장식에 주력했고,⁵²” 더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적절한 장식을 가미하는 일은 서적상에게 매우 중요했다.

위와 같은 한정된 시장과 고비용 조건은 책을 제본하지 않고 유통하는 것⁵³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한 종류의 판본은 한 도시에서는 소량밖에 팔리지 않으므로 당시 출판사들은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책을 판매했다. 이때 제본 상태의 책은 무게가 많이 나가 유통 비용이 높아지므로 보통 제본을 하지 않고 낱장 상태로 도시에서 도시로 옮겼다. 낱장 형태로 판매된 책은 지금의 주문형출판(POD)과 유사하게 구매자가 직접 제본 방식과

51. 루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앞의 책. p.48

52. 루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앞의 책. p.197

53. ‘The folded and gathered but as was’라고도 표현한다.

장식 문자를 그릴 채식사를 선택했다.⁵⁴

효율적인 표지 제본 장식을 위한 노력으로 먼저 제본사들은 커다란 전면 삽화를 도입했다.⁵⁵ 인두를 사용해서 무늬를 새기는 방식은 세심한 공정과 시간을 소요하는 작업인 반면 전면 삽화는 좀더 간소화된 방식이다. 또 16세기 초부터는 장식 모티프가 새겨 있는 작은 금속 롤러인 ‘롤렛⁵⁶’을 이용해 연속적으로 무늬가 찍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했다. 이 방법을 쓰면 단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장식 띠무늬를 넣을 수 있다.

이보다 더 고급 장정에서는 아랍으로부터 수입된 모로코가죽이 16세기 중엽 보편화되고, 금박으로 문양을 찍어내는 동양의 도금기법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려한 장식이 나타났다. 알도 마누치오(aldus manutius)는 동양적 모티프를 이 기법에 사용함으로써 이 양식의 확산에 기여했고, 빠른 속도로 프랑스까지 매료시켰다. 16세기 후반이 되면 프랑스 장인들은 이탈리아 특유의 스타일을 넘어, 매듭무늬나 꽃무늬를 넣은 모자이크 장식, 르네상스 스타일의 기하학적 무늬로 좀더 단아한 미를 추구한 장식을 선보였다.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인쇄본은 타지역의 화려한 고급 장정과 다른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특징은 알도 마누치오의 8절판(octavo) 고전책에서 잘 나타난다. 마누치오는 정치적 격무나 학문 연구를 떠나 자유로운 시간에 여가로서 책을 읽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 작은 판형 시리즈를 만들었다. 마누치오는 이 책을 ‘libelli portatiles(운반 가능한 책)’이라고 불렀다. 본문만 실려 있고 주석을 뺀 포켓북 판본들은 “유럽의 유명 대학들에

54. “간혹 미리 제본을 해서 파는 책은 ‘중고 책’으로 불렸고, 낱장 형태의 동일 판본의 두 배의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당시의 중고 책은 오늘날과 비교해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중고책을 오래되고 값이 싼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은 한참 후에 생겨났다. 책 가격은 제본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보존 상태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알렉산드로 마르초 마뇨, 『책공장 베네치아』, 참조. pp.18~24

55. E. Ph. Goldschmidt, 『고딕 및 르네상스 시기의 제본방식(Gothic and Renaissance bookbinding)』, 1928, I, p.54부터를 재인용

56. 프랑스식으로 롤렛(rouleto)으로 부르며 롤(Brass Rolls)도 같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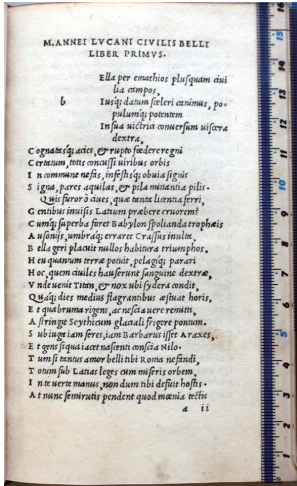


그림2-12. 『Lucan』, 알도 마누치오, 1502,



그림2-13. 『구텐베르크 42행 성서』, royal folio판(307×445mm)

다니는 학생들과 학자들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만큼 저렴했다.”⁵⁷ 이 작은 판형은 이전부터 성직자들이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종교 서적에 쓰였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고전을 인쇄한 인물이 알도 마누치오다.⁵⁸ 1501년 베르길리우스(vergilus)를 시작으로 로마 시인 카툴루스(Catullus), 티불루스(Tibullus), 프로페르티우스(Propertius)의 시집을 출간 3,000부 넘게 판매하여 당시로서는 베스트셀러였다.

중세의 책은 대부분 1:1.5 ~ 1:1.25 비례를 사용했고, 지금의 A4용지 비례와 같은 1:√2의 비례도 사용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 전통을 이어 좀더 가로가 좁은 판형도 발전시켰는데 좁은 형태의 페이지들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두 단으로 짤 페이지들을 소화할 수 있는 넓은 페이지들은 법률이나 교회 텍스트에서 즐겨 썼다.⁵⁹

화려하게 금박으로 장식된 책은 왕이나 소수의 장서가를 위한 예술작업이므로 대중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18세기 무렵 일반 장정은 책 등에만 약간의 장식을 넣어 튼튼하게 제본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책등이 보이도록 책을 세워서 촌촌히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고, 19세기 동력인쇄기 시대에 들어서 지금과 같은 상태의 소프트커버(softcover)로 만들어진 책을 읽게 되었다.

57. 알렉산드로 마르초 마뇨, 앞의 책, p.27

58. 같은 40% 비율로 축소한 [그림2-12]과 [그림2-13]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느껴진다. 인쇄 용지, 또는 가축을 몇 번 접어서 만드는 가에 따라 folio, quatro, octavo등으로 나누는 것은 지금의 종이 규격 시스템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원래 종이의 크기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판형 이름을 보고 정확한 사이즈를 알기는 어렵다. 알디네 클레식의 사이즈는 [그림2-12](<http://aldine.edwardworthlibrary.ie/portable-aldines/>)을 참조하여 세로 길이 약 16cm로 놓고 축소했고, 구텐베르크 성경은 wikipedia의 기록을 따랐다.

59. 로버트 브링허스트, 『타이포그래피의 원리 : 4.0』, 박재홍, 김민경 [공]울김, 미진사, 2016, p.162



그림2-14. 『New Testament』, Lyon, Buyer, 1476
초기 간행본은 표제지가 없다.
이 책은 “Cy commence” 또는 “Here begins”의
라틴어 인사말(Incipit)으로 시작한다.
www.garamond.culture.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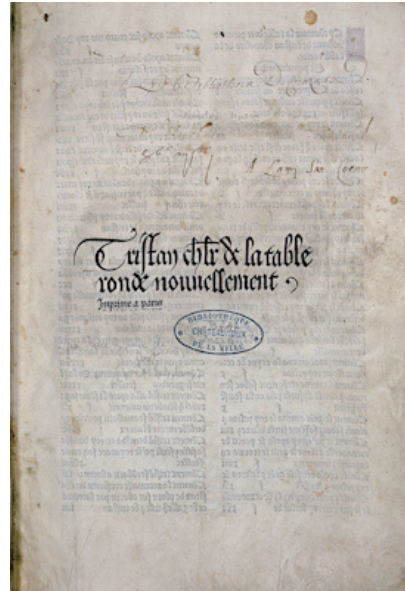


그림2-15. 15세기 표제지, 책의 시작 페이지 보호를 위해 책판매상들이
책의 첫 페이지를 백색으로 남기고 여기에 책의 제목을 간략하게 적어두기
시작하면서 책의 표제지가 만들어졌다. 『Tristant chevalier de la
Table ronde nouvellement imprimé à Paris』, Vérard, 1496.
www.garamond.culture.fr/

(2) prelims⁶⁰ and end-pages

prelims는 책의 표지로부터 본문의 시작 사이에 구성된 페이지들을 말한다.

영어권에서는 ‘front matter’라고도 칭하며, 국내에서는 서두(書頭), 권두(卷頭), 혹은, ‘앞붙이’라고도 번역한다. 대개 약표제지와 표제지, 판권, 프런티스피스, 일러두기, 서문, 목차 등이 들어간다. 본문 뒤 마무리 부분인 end-pages에는 참고문헌, 인덱스, 주석 등이 들어간다. 이 구성 요소들은 책의 내용과 장르의 특성, 문고본과 같은 저렴한 보급용인가의 여부, 그리고 저자, 출판사, 혹은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표제지

표제지(title page)는 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 즉 수도원 밖에서 책을

60. front matter, body matter, Back matter로 나누기도 한다.



그림2-16. 15세기말 16세기초 복잡한 표제지, 제목 페이지는 종종 복잡했고 어떤 정리된 방식이 없었다. 이 책은 목판화로 된 이 긴 텍스트는 지면을 꽉 채우기 위해 사용되었다. Francesco Filelfo, 『Epistolae』, Leyde, Johannes Severi, 1509. www.garamond.culture.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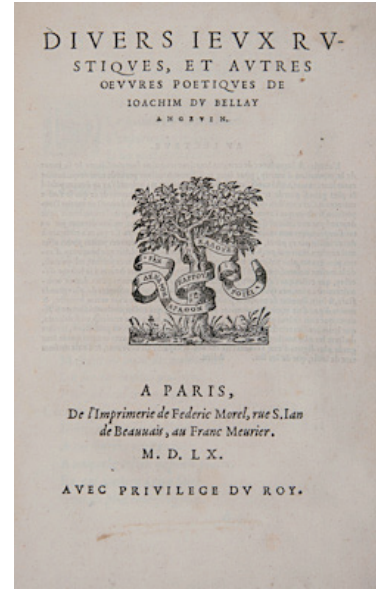


그림2-17. 1530년대의 현대적인 표제지. 제목, 저자명과 같은 정보가 잘 조직되어 있으며, 출판사와 출판일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 『Divers jeux rustiques et autres œuvres』, Paris, F. Morel, 1560. www.garamond.culture.fr/

필사하던 시기로부터 초기 인쇄본 시기로 넘어가면서 인쇄업자들이 만들어낸 것에 가까운데, 발생 원인은 유통과정의 문제 해결, 광고 효과에 대한 고려와 내용을 미리 파악하기 좋다는 유용함으로 볼 수 있다.⁶¹

앞서 언급한대로 초기 인쇄본이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책을 제본하지 않고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먼저 1475~1480년 사이, 일부 인쇄기술자들은 첫 번째 장의 앞면(recto), 원문의 시작 부분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뒷면(verso)부터 인쇄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책의 내용을 좀더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빈 앞면에 작게 표제를 인쇄하기 시작하면서

61. 위키피디아의 book design 항목을 보라. front matter의 각 요소를 구별해 놓은 표에 ‘voice’란은 각각이 누구의 메시지인가를 나타낸다. 표제지는 publisher또는 printer의 목소리이다. 중세 말 전문 필경사와 삽화가가 나타나고, 분업화를 통해 서서히 많은 양의 책을 유통시키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만, 인쇄술 이전에는 한 사람이 학자이자 수도승으로서 저자이자 독자이고, 필경사이면서 디자이너와 출판가의 역할을 넘나들었다.



그림2-18. 『Biblia Sacra』의 표제지, 1642, 푸생이 그리고
Claude Mellan이 동판화로 만들음.

속표지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 단계는 권말에 삽입되던 인쇄업체 로고들(printers mark)이 속표지를 장식하는 용도로 쓰이면서 권두로 온 것이다. 이 로고들은 인쇄물을 운송할 때의 식별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졌다가 판권지나 마지막 장의 백지 뒷면에 함께 인쇄하기 시작하면서 광고 일러스트의 역할을 했는데, 인쇄업자들은 이와 같은 상표가 장식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품질표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표제지는 만드는 방법이 규칙적이지 않았고, 지역적으로도 차이를 보였다. 초기에는 면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긴 문장 속에 표제를 심거나 본문의 주요 대목을 뽑아 표제를 덧붙여서 넣기도 하고, 서적상의 주소를 넣기도 했다. 복잡한 목판 테두리 장식은 영국과 게르만 어권에서 유행했고,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매우 간략한 형태로 나아갔다.

16세기 말 그림을 인쇄하는 기법이 목판화에서 동판화로 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동판화로 제작할 경우 목판화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하여 “17세기부터는 판화는 수많은 분야에서 정보전달이라는 중요한 역할”⁶²을 했지만, 글자와 그림을 이중으로 인쇄하는 공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때문에 표제지에서는 점차 이를 예술가들이 맡아 한꺼번에 ‘그리게’ 되었다. 루벤스(Peter Paul Rubens) 등 당대 유명 화가들이 책을 작업 무대로 활동하면서 바로크의 과도함이 나타났으며, 프랑스에서는 열주랑 중앙에 표제를 집어 넣는 방식이 유행했다.

1640년 왕궁 인쇄소의 출판물 속표지 꾸미는 일을 의뢰받은 푸생(Poussin)이 속표지에 고대식으로 옷을 걸친 위인들 그림을 그리면서 책의 제목을 중앙에서 떨어진 곳으로 밀어버린다. 푸생의 영향으로 표제는 삽화 ‘프런티스피스’의 일부가 되었고, 출판사들은 별도의 속표지, 즉 약표제지(half title page)에 순수한 서지 항목만을 모아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쇄 업자 로고와 콜로폰

판권 페이지, 판권장(colophon)은 책의 출간일, 발행인, 출판사, ISBN 등이 인쇄된 책의 출생증명서이자,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페이지이다. 필사본과 초기 인쇄본에서는 인쇄 장소와 인쇄업자의 이름, 그리고 책의 상세한 제목과 저자의 이름이 명시되었고, 책 말미에 삽입되었다.[그림2-19]

15세기에는, 목판에 새기기 시작한 인쇄 업자 로고(printer's mark)가 책의 속표지와 판권장에 추가되었다.[그림2-20] 인쇄업자 로고는 처음에는 대문자 약자를 표시한 게 전부였다. 원래 서적상이나 인쇄 업자들이 운송의 편의를 위해 책 꾸러미 위에 새기던 고유의 식별 기호를 그렇게 업체 로고로

62. 동판화 삽화가 들어간 출판물로 플랑탱이 1556년 출판한 Juan Valverde de Amusco의 『생생한 신체부위 화집(Historia de la composicion del cuerpo humano)』, 1571년 『건강 보감』, 1574년 『고대 및 근대 철학자와 의사 도상집』이 초기의 것에 해당한다. 책의 제목만으로도 삽화가 오늘날 책의 사진도판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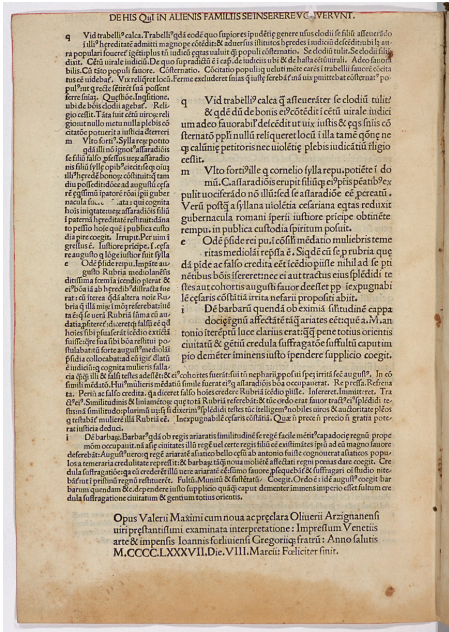


그림2-19. 15세기 콜로폰(colophon) 페이지, 로마 숫자

“M.CCCC.LXXXVII.Die.VIII.Marcii”로 이 책이 1487년 3월 8일에 인쇄되었다고 적고 있다. 『Facta et dicta memorabilia』, Venice, 1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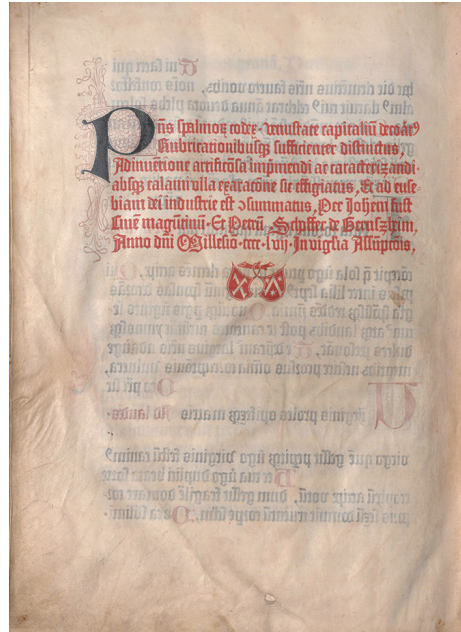


그림2-20. 『Mainz Psalter』의 콜로폰(colophon) 페이지, 1457.

인쇄업자 로고가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다. Johann Fust와 Schöffer 두 인쇄업자를 가리키는 방패가 나뉘는 위치에 엮여 있는 모양. 그리스 문자 X는 예수를, A는 로고스, 말을 뜻한다.

쓴 것이다. 그리고 서적상과 인쇄업자들은 점차 업장의 간판 모양을 따라 로고를 만들어 책 속에 집어넣었으며, 사훈 문구 같은 것도 함께 기재했다. 고전 우화나 문장을 책 속에 집어넣는 게 유행처럼 번지자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며 의미를 쉽게 알기 어려운 인쇄 업자 로고가 만들어졌다.

(3)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

서체

디자이너들은 글의 성격에 부합하는 서체를 고르고 사용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얀 치홀트(Jan Tschichold)와 같은 타이포그래피의 스승들도 글의 시대적 배경과 내적 논리로부터 이에 합당한 서체를 선택할 필요성을 고민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글꼴의 모양, 서체의 ‘물질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다만 현대적인 디자이너들 뿐은 아니었다. 필경사들이 묵독 관행의 영향으로 발달시킨 초서체⁶³, 언셜체와 카롤링거 소문자⁶⁴, 그리고 고딕체의 대표적 네 가지 분류처럼 지역별·특정 시기별 양식의 하위 구조로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독자와 장르의 특성을 고려한 구별, 즉 ‘용도별 서체’에 대한 개념이 꽤 오래 전에 형성되어 있었다.

인쇄술이 태동하던 1450년경, 책은 그 성격이나 용도에 따라 서체가 무척 다양하게 달라진다. 그 가운데 네 가지 주요 서체를 꼽아볼 수 있는 데, 각각의 서체별로 그 나름의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

로툰다(rotunda)체는 스콜라학과, 신학자와 대학교수들이 즐겨 사용했고, 텍스투라(textura)는 ‘미사경본체’로도 불리며 교회 관련 서적에 주로 사용되었다. 바타르(Bâtarde)는 공문서 작성과 속어로 쓰인 고급 필사본에 많이 쓰였다. 마지막으로 로만체(roman)은 인문주의자들이 즐겨 쓰던 것으로 ‘리테라 안티쿠아’⁶⁵(안티쿠아 문자)가 인쇄술과 함께 널리 쓰이게 된 것이다.⁶⁶

로만체는 카롤링거 서체에서 따온 것으로 인문주의자들의 유행시킨 서체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복원하려고 애쓴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헌에 합당한 글자체를 원했다.

-
63. 3-8세기 그리스-라틴어의 필사에 사용된 옛 서체. 묵독 이전까지는 다른 이의 낭독을 들었기 때문에 라틴어와 같이 고딕체로 씌어졌다. 고딕체는 읽기 어려웠기 때문에 본문 초서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64. 앵글로 색슨 필경사들은 최초로 동일한 문자에 존재하는 다른 서체의 수를 최소화하려고 했으며 마침내 소문자인 불변서체를 만들어냈다. 이것을 유럽에서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이 카롤링거 소문자 서체이다. 이 서체에서는 각각의 문자가 독자의 자형을 갖고 있으며, 합자인 et, 즉 &도 하나의 글자 취급을 받는다. 이것이 근대활자의 기초가 되었다.
65. 로만체(roman)를 말한다. 당대의 글자체 블랙레터와 대비되는 고대 로마의 글자체를 되살리고자 한 데서 ‘litterae antiquae(고대의 문자)’라고 불렀다. 로마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디자인 문헌에서 ‘로만체’로 쓰므로 본문에서는 문장 전체를 인용한 경우를 빼고 이와 같이 통일하였다.
66.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역음, 앞의 책, 137~139 참조

“고대 원전을 좀더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적어도 이들은 그게 원형에 가까운 서체일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⁶⁷. 그러다 보니 이를 중세 전통 문헌에 대비시켜보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인문주의 학자들은 새로운 서체를 써서 고전에 가까이 다가갈 뿐 아니라 중세의 블랙레터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싶어했다. “알베르티(Alberti) 같은 사람은 고딕체를 두고 전통적인 중세 건축의 장식 문양이라고 힐난”했으며, “페트라르카는 이 ‘조그맣게 억지로 써 넣은 문자’를 혐오”⁶⁸했다.

인쇄술이 발명되고 불과 1세기도 안 되어 로만체는 유럽의 거의 전역에서 주요 인쇄 활자로 채택되었다. 로만체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데에는 인쇄술과 인문주의의 동반 성공, 특히 베네치아의 알도 마누치오의 역할이 컸다. 최초의 근대적인 의미의 출판가로도 평가받는 알도 마누치오는 니콜라 장송에게 디자인을, 프란체스코 그리포(Francesco griffo)에게 활자 제작을 의뢰하여 로만체 활자를 만들었고, 로만체 칸첼라레스카(cancellaresca)에서 영감을 받은 이탤릭체를 만들어 유행시켰다.

마누치오의 이탤릭체는 지금과는 달리 본문 전체에 쓰였지만, 점점 본문 중의 인용 부분에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16세기 말에 지금처럼 로만체의 보조적 용도로 사용하는 관습이 발전했다. 즉, 서문, 두주(headnote), 방주⁶⁹와 운문이나 인용 단락의 구별이 그것이다.⁷⁰ 로버트 브링허스트(Robert Bringhurst)는 지금의 이탤릭체보다 기울기가 수직에 가까우며 ‘읽기에 용이하도록 디자인된’ 알두스 이탤릭체의 인본주의적 정통성이 디지털

67. 소문자(minusculus)는 후기 중세 북유럽에서 발달하여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에서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자 역시 비기독교 로마제국을 기독교화하여 계승해가던 신성로마제국의 유산이므로 큰 맥락에서 보자면 로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8.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역음, 앞의 책, p.294

69. 본문 옆이나 본문의 한 단락이 끝난 뒤에 써넣는 본문에 대한 주석.

70. 로버트 브링허스트, 앞의 책, 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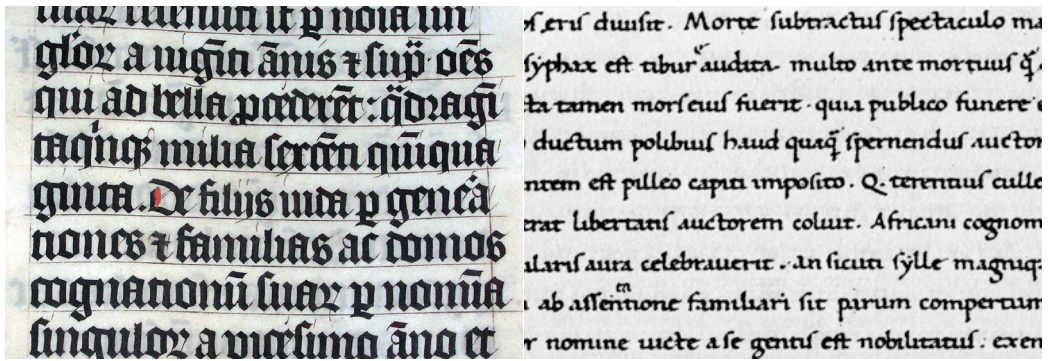


그림2-21. 고딕체(왼쪽)와 포조 브라치올리니의 핸드라이팅(오른쪽)

활자체로 복원되지 않고 있는(2012년까지) 점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⁷¹ 『책의 탄생』에 의하면 이탤릭체가 만들어진 것은 16세기 인쇄본이 필사본처럼 보이고자 한 경향의 하나였고, 무엇보다 “인문주의 시대의 필사본이 가진 아름다움과 기품을 인쇄본에 표현”⁷²한 것이었다.

로만체와 로만 이탤릭체의 성공은 독일과 프랑스로 번졌고, 이를 따라한 새로운 서체들이 등장한다. 완성도가 더 높은 서체들이 곧이어 인쇄 활자의 표본으로 자리잡았고,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었다.⁷³

표준화

필사본 시기로부터 유럽에서의 출판은 국제적인 성격을 띠었고, 초창기 인쇄업자들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일하던 관행이 있었다. 인쇄업계가 성장하면서 제작과 판매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즉 지나친 다양성은 고비용, 저효율을 의미하므로, 지역별 서체와 언어별 표기 관습은 서서히 통일화, 표준화의 길을 걸었다.

활판인쇄공들은 직접 각인기로 활자를 새기고 활자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는 많은 제작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인쇄술이

71. 로버트 브링허스트, 앞의 책, p.125

72. Mario Infelise, 『알도 마누치오』, p.241. 『책공장 베네치아』, p.69에서 재인용

73. 뤼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앞의 책, pp.144-146

PETRI BEMBI DE AETNA AD
ANGELVM CHABRIELEM
LIBER.

Factum a nobis pueris est, et quidem sedulo Angele; quod meminisse te certo scio; ut fructus studiorum nostrorum, quos ferebat illa aetas non tam maturos, quam uberes, semper tibi aliquos promeremus: nam siue dolebas aliquid, siue gaudebas; quae duo sunt tenerorum animorum maxime propriae affectiones; continuo habebas aliquid a me, quod legeres, uel gratulationis, uel consolationis; imbecillum tu quidem illud, et tenue; sicuti nascentia omnia, et incipientia; sed tamen quod esset satis amplum futurum argumentum amoris summi erga te mei. Verum postea, quam annis crescentibus et studia, et iudicium increuere; nosque totos tradidimus graecis magistris erudiendos; remissiores paulatim facti sumus ad scribendum, ac iam etiam minus quotidie audentiores.

A

그림2-22. 피에트로 벰보(Pietro Bembo), 『에트나 화산에 대하여(De Aetna)』, 1496, 알도 마누치오는 저자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처음으로 갈고리 모양의 쉼표, 어퍼스트로피, 악센트 부호와 세미콜론을 도입했다.

ALDVS STVDIOSIS
OMNIBVS .S.

P.V.M. Bucolica. Georgica. Aeneida quam emenda-
ta, et qua forma damus, uidetis. cætera, quæ Poe-
ta exercendi sui gratia composuit, et obscæna, quæ ei-
dem adscribuntur, non censuimus digna enchiridio.
Est animus dare posthac iisdem formulis optimos
quosque authores. Valete.

IN GRAMMATOGLYPTAE
LA VDEM.

Qui graiis dedit Aldus, en latinis
Dat nunc grammata scalptra dædaleis
Francisci manibus Bononiensis,

P.V.M. MANTVANIBV
COLICORVM
TITYRVS.

Melibæus. Tityrus.

Tityre tu patulae recubās sub
te gremio fagi
Siluestrem tenui musam meditaris
aenæa.
Nos patriæ fines, et dulcia linqui-
mus arua,

Nos patriam fugimus, tu Tityre lenius in umbra
Formosam resonare doces Amaryllida syluas.
O Melibæe, deus nobis hæc oia fecit.
Nanq; erit ille mihi semper deus, illius aram
Sæpe tener nostris ab ouilibus imbuet agnus.
Ille meas errare boues, ut arnis, et ipsum
Ludere, quæ uellem, calamo permisit agresti.
Non equidem inuideo, miror magis, undiq; totis
Vsq; adeo turbatur agris, en ipsæ capellas
P totius æger ago, hanc etiam uix Tityre duco.
Hic inter densas corylos modo nanq; gemellos,
S pem gregis ab silice in nuda comixæ reliquit.
Sæpe malum hoc nobis, si mens non leua fuisset,
De cælo tactas memini prædicare quercus.
Sæpe sinistra cana prædixit ab ilicæ cornix.
Sed tamen, iste deus qui sit, da Tityre nobis.
Vrbem, quam dicunt Romam, Melibæe putauit
S tulus ego huic no stre similem, quo sæpe solemus

그림 2-23. 『베르길리우스(Virgil)』, 알도 마누치오, 1501. 본문이 이탤릭체로 되어 있다.

recto페이지의 삽화는 알도가 인쇄한 책에 소유자가 화공을 불러 따로 그려 넣은 그림이다.

이전 시기의 모든 필사본을 대량 복제할 수 없어 일종의 선별과정을 필요로 했듯이, 지역별로 나타난 필사본 서체에도 통일화가 일어난다. 이어 좀더 느린 속도로 대표적 유형별 서체의 통일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체 하나가 다른 서체들을 제치고 유럽 전역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위스 일부 지역 그리고 스페인과 영국 등지에서 로마체가 쓰이게 된 것이다.⁷⁴

한편, 게르만어권 국가에서는 로마체가 대중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6세기에는 ‘움라우트’와 ‘슈바바흐’ 두 서체가 고딕체를 통합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쪽에서는 라틴어권과 영국이, 다른 한쪽에서는 게르만어권이 공존했고, 오랜 기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서체로 쓰인 글을 읽어왔다.⁷⁵

글의 분절과 단위의 표시

단락을 구분하는 pilcrow(¶)는 디지털 편집·퍼블리싱 프로그램에서도 단락 구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쇄되어 나오지는 않지만)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기원을 추적하면 그리스 정서법의 paragraphos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글의 단(culumn)의 왼쪽 꼬트머리, 글줄 아래에 가로로 선을 그어 글 덩이리가 나뉘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이후에 라틴어로 머리를 뜻하는 ‘kaput’의 약자 K를 써서 시작을 표시하다가 4세기쯤 작은 머리를 뜻하는 ‘capitulum’을 쓰기 시작, 12세기에는 ‘K’를 완전히 대체했다. 이 ‘C’ 형태에 몇 가지 스타일적 변형이 가해지고 나중에 반전된 ‘P’자 처럼 바뀐 것이 절과 단락 구분 기호가 되었다.

‘capitulum’, 머리글자는 단락이나 절의 시작을 나타내는 다른 방식으로 왼쪽 마진 쪽으로 본문 보다 크게 내어쓰기한 방식으로부터, 인슐라 스타일의

74. 뤼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앞의 책, pp.140-141

75. 뤼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앞의 책, p.147

장식 대문자(initiums)로 변화해 갔다.

중세 필사본은 인서핏(incipit)이라고 하여, 글의 시작 구절을 통해 전체 글을 여는 방식을 취했다. 이 시작 구절은 오늘날의 제목처럼 글 전체의 내용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책의 이름’이 아니고, ‘하느님의 어린양(Agnus Dei)’이나 ‘Hear, O Israel: the Lord is your God: the Lord is One’처럼 종교적 시작 주문(spell)과도 같은 말이다. 따라서 글에 대표성을 띠는 제목이 만들어지는 구문(構文)적 변화가 일어나고, 글의 출처, 원저자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저자’ 개념이 뚜렷해지면서, 비로소 지금과 같은 모습의 표제지가 분리, 완성되었다.

필사본 제작에서는 글의 끊어지는 부분, 단위 구분을 위해 필경사 외에 따로 주서자(rubricator)가 있어서, 붉은 색 잉크로 강조할 부분과 소제목, 구두점을 그려 넣었는데, 이 방식은 독자와 책의 제작이 늘어나는 속도를 미처 따라잡지 못한 듯했다. 두문자가 그려져야 할 단락의 앞부분과 단락기호(pilcrow)가 들어가던 부분은 미처 그리지 못한 빈 공간인 채로 끝나기도 했는데, 이 공간을 관습적으로 비우면서 지금의 단락 앞 들여쓰기로 이어진다.

주석, 참조 시스템, end_matter

알파벳 문자로 참조 위치를 보여주는 일련의 난외주석 체계는 10세기 말에 북프랑스의 베네딕트 수도원이 낸 책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그 뒤 법률서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14세기가 되면 문학작품 주석에도 사용되기에 이른다.⁷⁶

귀족 계급의 목록 관행이 증가하고, 궁정 문서가 늘어나면서 왕이 직접 글을 읽고 쓸 필요가 생기자 프랑스 등에서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번역 사업과 도서관 설립이 이어졌다. 새 귀족용 책은 차례, 알파벳순의 용어풀이, 주제별 찾아보기, 난외표제, 14, 15세기의 스콜라학 필사본의 특징이었던

76.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역음, 앞의 책, 4장 스콜라학 시대의 독서 유형 참조.

복잡하고 지적인 부록 등으로 가득 차게 된다.⁷⁷

2.2.4. 시각적 번역 체계 / 페이지 편집적 요소의 발달

(1) 시각적 번역 체계의 발달

초기 책의 역사를 간추리면, 글을 쓰는 자가 ‘저자’를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 받아적는 자를 의미하던 연속 기법의 시기를 지나, 종교적 의미의 묵독과 필경의 시기에 점진적으로 띄어쓰기, 그리고 글의 시작을 표시하는 방법이 나타나고(7-8세기), 스콜라학 시대에 오면 단락 기호와 먼주, 각주와 같은 더 복잡한 페이지 제시 기법⁷⁸의 발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때 변화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인쇄술의 도입과 같은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음독에서 묵독으로의 읽기 방식의 전환이다. 독자의 읽기 문화, 혼자 조용히 집중하여 읽는 내면적인 독서는, 12-13세기 스콜라학의 시대에 두드러진 시각적 번역 체계 발달의 씨앗이 되었다. 이는 묵독이 책과 학습을 긴밀하게 연결지음으로서 글을 작은 단위로 나뉘도록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로써 참조 기능이 늘어나고, 알파벳 순의 주제별 찾아보기, 난외표제 등이 스콜라학 시대의 책자형 책에 보편화된다.⁷⁹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구두법이란, 문장의 끝을 표시하는 마침표나 쉼표, 느낌표, 물음표 등의 기호, 인용부호 등 단어나 문장의 뜻이 모호해지는 것을 막고 좀더 분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안된 쓰기 관습으로, 문장과 문장 사이에 특정한 마크를 그려 넣거나 단락이나 장의 구별을 위해 시작부분을 들여쓰는 것, 혹은 두문자를 쓰는 것, 강조표시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77. 루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앞의 책, pp. 228~229

78. 글을 이해하기 좋은 적절한 단위로 나누고, 페이지 위에서 필사한 글씨 혹은 활자의 배열을 통해 ‘눈으로 읽기 위한’ 페이지 디자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79.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역음, 앞의 책, p. 216

‘소리내어 읽을 수 없는 기호’(punctation mark)를 사용한다.

로마에서는 기원전 1세기까지는 문장을 구분 짓는 ‘구두점’과 낱말 사이를 구분하는 부호를 사용한 바 있다⁸⁰. 그러나 이때의 구두법은 지금처럼 통일되거나 정착 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식의 연속기법(scripto continua)이 많이 쓰이던 시기에는 주춤하다가 성서 독해와 학습을 위한 글 읽기를 발달시키며 서서히 다시 나타나 13세기에서 14세기에 정착되었다.

구두법 중에서도 띄어쓰기와 단락, 절의 구분을 사용하는가의 여부는 소리내어 읽는 ‘낭독’과 조용히 눈으로 읽는 깊이 있는 독서(in-depth reading), 즉 ‘묵독’ 간의 차이와 각각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헤릿 노르트제이(Gerrit Noordzij)는 그의 책 『획, 글자쓰기에 대하여』에서 우리가 읽기라 부르는 것의 전제조건이 ‘단어(word image)의 발명’이며, 바로 ‘띄어쓰기라는 그래픽 장치’의 고안으로 나타났다고 썼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단어의 발명이 ‘셈족이 알파벳을 발명한 이후, 그에 필적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7, 8세기의 아일랜드의 필경사들은, 사실 그래픽 디자인사에서 중세적인 장식 두문자와 화려한 페이지 장식이 특징인 인슐라 스타일(insular art)⁸¹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들은 유럽의 책에 띄어쓰기를 다시 도입한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라틴어를 외국어로 하는 변경 지역에 있었으며, 필사 과정에서 당면한 텍스트 분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독자들을 텍스트에 더 쉽게 접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⁸²

구두법의 발달은 또, ‘필경사가 낭독을 받아 적는 방식’의 기록으로부터

80.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역음, 앞의 책, p. 126

81. 8세기에 게르만의 침략으로 급작스럽게 쇠락한 인슐라 양식이 장식에 있어 로마네스크와 고딕양식으로 이어진 중세사에서 주목받는 미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대륙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난 조용한 변경 지역이었던 까닭이 있다.

82.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역음, 앞의 책, p. 163

‘저자가 직접 글을 쓰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글쓴이가 자신의 의도대로 읽히는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⁸³ 독자가 늘어나면서 텍스트의 구문론적 구조 배후에 숨겨진 의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으며, 이것이 구두법 용례의 발전을 이끈다.⁸⁴

르네상스 이후 로만체 대문자와 소문자로 제목과 부제를 시각적으로 나누고, 이탤릭을 써서 인용 부분을 구별해 주는 작업도 이러한 시각적 번역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띄어쓰기와 구두법의 발달, 단락과 장의 구분과 같은 텍스트의 구조화는 책의 쓰기 기술, 즉 타이포그래피 측면에서 보다 읽기 쉬운 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필사본 시기에 이미 만들어진 시각적 번역의 틀은 초기 간행본 시기에도 연속되었는데, 필경사들의 작업은 활자 인쇄로 대체되었으나 처음부터 다색 인쇄를 했던 것은 아니므로, 일종의 불완전 마감 제품으로 만들어진 후, 여기에 주서자(rubricator)와 삽화가가 추가적으로 그림과 강조표시, 머리글자 표시, 단락 기호 등을 붉은색이나 푸른색 또는 금색으로 주서(rubrication)하여 마감하는 절충적 단계를 거친다.

구텐베르크 이후로도 한참동안 인쇄, 편집, 판매와 같은 출판업은 뚜렷한 역할의 구분 없이 한 사람이 동시에 맡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으며, 18세기 독서 시장이 확대되고 19세기 이후 산업적인 출판업이 나타난 이후로 전문적인 출판인,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맡게 될 때까지 계속된다.

83.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앞의 책, pp. 207-208

84.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앞의 책, p.169

(2) 개인 장서 문화의 발달

2.1.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서 수요의 증가와 제작 시스템의 발달⁸⁵, 14세기에 발달한 제지업의 뒷받침, 1445년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더 많은 책과 독자, 그리고 직업적 저자와 출판인을 낳았다.

15세기에 인기를 끌었던 세속적 주제의 목판인쇄 소책자가 다량의 그림을 실어 서민 계층 다가가는 데 성공한 것처럼,⁸⁶ 저작가들도 “특정한 형태가 수요를 환기시키고 자기들의 작품에 독자를 불러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⁸⁷

로만체와 인문주의자풍의 책이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호응을 얻기는 했지만, 독일 등의 특정 지역과 서민층에서는 고딕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쇄업자들은 다양한 독서 계층의 요구에 영리하게 반응했으며, 때에 따라 로만체와 호화로운 장정의 조합으로 된 책을, 또는 목판화 삽화와 고딕체 조합의 책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찍어냈다.

다른 한편으로, “필사본업자도, 그들의 후계자인 인쇄출판업자도, (...) 교양 있는 독자는 구입한 책을 새로 제본해야 된다고 부추겼다. (...) 고대의 화폐와 메달을 모방한 문양으로 책에 고대 분위기를 주게 하고, 소유자 이름이나 두문자나 또는 마음에 드는 문구를 고대풍으로 장식으로 꾸며 소유자의 취미가 고상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⁸⁸ 책이 사적 소유물로 취급되면서 유행과 개인 취미가 책의 형태에 반영되었다.

고대풍의 장식은 인문주의자들이 발굴하여 전파한 고전 문학의 유행이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알도 마누치오와 같은 인문주의의 책은 장식을

85. 12, 13세기는 유럽에서 독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시기이며, 이 시기부터를 ‘수도원 바깥의 필사본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시기에 전문적인 직인들이 책의 제작을 나누어 맡은 시스템을 페시아(pecia)라고 부른다.

86. 루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앞의 책, p.82

87.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앞의 책, p.309

88.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앞의 책, p.310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채색 그림이 들어가 원래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책이 되어버린 [그림2-23]의 마누치오의 『베르길리우스』처럼, 독자-소유자의 자유로운 책 이용 방식은 하나의 책 안에 두 개의 다른 편집 방식을 동거하게 만든다.

(3) 복수성과 풍부함

지금의 단락짜기는 매우 중요한 타이포그래피의 문제다. 어떤 크기, 공간 분배(자간과 행간)로 조절해야 긴 글을 읽을 때, 편안하게 몰입될 수 있는지가 좋은 단락짜기의 기본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책이 귀중품이었던 시기, 최대한 길게 잡아 동력 인쇄 이전에는 이러한 단락짜기의 과정에 제작 조건과 필사하는 사람의 편의가 많이 관여했다.

값비싼 양피지는 무엇보다 공간을 아껴써야 했으니, 행간을 많이 줄 수 없었고, 글자를 한 줄, 한 단에 더 많이 들어가게 쓸 필요가 있었다. 중세 시대 책은 대부분 글줄의 길이가 고르고, 네모난 깔끔한 면을 갖고 있다. 에릭 길은 이것이 “책을 읽기 보다 보는 물건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중세 필사본이 르네상스 시대의 인쇄물에 비해 떨어진다고거나 비인간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에릭 길은 중세 필경사들이 수많은 축약형과 화려한 장식, 글줄에 넣는 기호 등으로 깔끔한 정사각형 지면을 만들기 위해 매우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늘 조금씩 타협했다고 썼다.⁸⁹

[그림2-24]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로마자와 라틴 알파벳, 아라비아

89. 에릭 길,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에세이』, 안그래픽스, 2015, p.97

Number xiii lowercase AND XIII UPPERCASE
AND THE NUMBER XIII IN SMALL CAPITALS
and the roman numeral xiii in italic

text 1234567890 figures
TITLING 1234567890 FIGURES
FIGURES 1234567890 WITH SMALL CAPS
italic text 1234567890 figures

그림2-24. 본문용 숫자, 제목용 숫자의 구분. 숫자가 단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유럽의 필경사들의 타이포그래피의 관습으로부터 이어졌다. 브링허스트 p.46 참조

숫자는⁹⁰, 세밀한 의미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각기 다른 라틴 알파벳 글리프 기호들을 갖는다. 같은 숫자라 하더라도 본문과 표제에 쓰일 때 각각 용도별로 구분된 형태의 숫자를 써서, 알파벳의 대소문자 시스템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했으며, 시각적 의미분별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브링허스트는 사진 제판술, 평판 인쇄와 디지털 탁상 출판의 기술 발전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표현해 내지 못한 이같은 필경 문화의 다양함, 복수성(plurality)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타이포그래피 영역에서의 모더니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⁹¹

90. 로빈 킨로스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섞어 쓰는 로마 알파벳의 전통에 대해 논하면서 대문자의 역할이 텍스트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타이포그래피적 레퍼토리라고 썼다. 여기서 분명하게란, ‘articulate’, 즉 뜻이 논리적으로 분명하고, 발음이 또박또박 명확한 등의 의미이다. 또한 독자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 글을 더 소화, 흡수, 완전히 이해하도록 은근한 방식으로(미묘하게) 도움을 주며, 문장 시작의 대문자를 써서 문장 사이의 경계를 지어주므로 읽을 때 편안함을 준다고 설명한다.

91. 로버트 브링허스트, 앞의 책, p. 133.

2.3. 18세기 이후 출판의 확장과 편집 디자인

18세기는 책의 역사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계몽의 시대이며 ‘이성의 시대’이고 출판업 확장의 시대다. 종교개혁과 신대륙의 발견과 새로운 과학지식의 전파로 기존 사회 질서와 세계관이 뒤흔들렸고, 불안과 혼란을 느낀 이들은 이를 ‘바로크적 감수성’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대중적 독서 시장이 성장해가면서 조금씩 현대적인 책의 장르와 형식이 발달한 배경에는 이와 같은 급변하는 사회, 정치적 상황과 기술의 혁신이 있었다.

2. 3. 1. 출판시장의 확장

우선 문해율의 변화를 보면, 1750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19세기 말 국가 차원의 초등 교육 제도가 도입되었고, 1890년대가 되면 거의 모든 인구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진정한 대중 독자층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출판업의 혁명적 팽창을 야기했다.

이전 시기까지 줄곧 출판 장르의 중심에 있었던 종교 서적과 법률 서적은 18세기 말 가벼운 내용의 소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감성적이고 세속적인 내용의 ‘고딕풍’ 소설⁹²은 유럽 전역에 걸쳐 열렬한 독자층을 형성했다. 상류 계급뿐 아니라 ‘농부’와 같은 다양한 계층이 소설 속 이야기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그만큼 새로운 독자층이 증가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을 뜻했다.

18세기 후반까지 책 제조 공정에서 인쇄공들은 긴밀하게 연결된 자치적 성격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출판업은 조합 시스템으로 왕과 교회에 판매세를

92. 중세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공포와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유럽 낭만주의의 소설 양식의 하나.

내고 규제와 검열을 받는 대신 자신들의 배타적인 출판권을 보장받는 폐쇄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 시기에 오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는 하락, 프랑스에서는 1789년 혁명이 일어나 검열과 규제의 주체가 사라졌으며, 1710년 영국의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을 시작으로 출판업자가 아닌 ‘저자’의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물론 저작권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작가들의 권리가 보장받게 된 것은 아니었고, 국가간 저작권에 대한 1886년의 ‘베른 협약’이 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국제 출판 시장은 혼돈의 무질서 상태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로 오래된 텍스트는 누구나 출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보호주의적 길드는 효력을 상실해 갔다. 값싼 재판본, 선집, 요약본을 포함해 연간 총 출판량이 네 배 증가했으며 더욱 커진 책 시장은 더 치열한 출판 경쟁을 의미했다.

1800년대 이후 시작된 기계화 역시 인쇄공을 위협하며 인쇄 문화와 출판 시장을 바꾸어갔다. 19세기 초반에 연판(鉛版)⁹³의 발명으로 책을 찍을 때마다 새로 활자를 조판할 필요없이 재판을 무한정 만들 수 있었다. 프리드리히 쾨니히(Friedrich Koenig, 1774-1833)가 1811⁹⁴년 ‘런던 타임즈’를 위해 발명한 증기 기관을 이용한 회전식 인쇄기는 시간당 1100장을 인쇄할 수 있었다. 1870년대부터 활자 조판에 사용하는 주석기⁹⁵가 발명되었고, 제본 역시 새로운 접지(종이를 접는) 기기와 제본 장치를 이용해 더욱 기계화가 진전되었다.⁹⁶

93. 활자를 짠 원판(原版)에 대고 지형(紙型)을 뜬 다음에 납, 주석, 알루미늄의 합금을 녹여 부어서 뜬 인쇄판. 활자가 닿는 것을 막고 인쇄 능률을 높일 수 있다.

94. 1814년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로빈킨로스, 앞의 책 참조

95. 활자의 문선(文選) · 주조(鑄造) · 식자(植字)를 한꺼번에 하는 기계.

96. 마틴 라이언스, 앞의 책, p.132-133

1860년대에는 형짚이 아닌 목재 펄프를 이용해 종이를 만드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져, 이제까지 총 비용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종이의 가격은 크게 하락, 결과적으로 책 생산 원가는 급격히 떨어졌다. 프랑스에서 1840년과 1870년 사이 서적의 평균 가격은 50퍼센트 하락했다.

1884년 호트마 메르켈탈러가 라이노타이프 기계(linotype machine)를, 1887-1889년 톨버트 랜스턴의 모노타이프(monotype)의 개발로 식자 공정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로써 동력인쇄기계의 발명과 제지 기술에 이어 식자 공정이 기계 기술로 개량됨으로써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책은 대량생산되는 소비재로 탈바꿈했다.

2.3.2. 현대적 타이포그래피

로빈 킨로스는 ‘인쇄술’과 ‘타이포그래피’가 분리된 시점을, 지식을 갖추고 의식적 계획을 수립하는 ‘현대적 태도’가 나타나는 1700년 경으로 보았다. 이 시기 이후의 타이포그래피의 문제를 현대성과 관련하여 풀어내면서 ‘사유’, ‘의도’를 강조한 역사 서술을 시도한 바 있다.

18세기 이후의 책을 비롯한 인쇄물의 디자인은 많은 부분이 이와 같은 ‘의식’과 ‘의도’들의 충돌의 연대기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때문에 킨로스가 언급한 데로 타이포그래피사에서 독자나 인쇄인, 일반 대중의 상호 작용에 대한 단서를 얻기는 힘들다. 즉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읽기의 방식에 대한 논의는 매우 한정적이고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18세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독립된 전문 분야로서의 지식’을 연구하고 그것을 ‘체계화’, ‘합리화’하려는 직접적인 시도들이 나타난 것이다. 대표적으로 조지프 목슨(Joseph Moxon)이 『기계 실습: 또는 인쇄술에 적용되는 수작업 안내서(1683-4)』에서 처음으로 ‘타이포그래퍼’를 정의내리며 인쇄술을 진지한

이론으로 취급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신생 과학 아카데미 특별 위원회가 활자의 단위 체계를 세우고 ‘로맹 뒤 르와’의 글자체 디자인에 합리적 원리를 부여하고자 한 사례가 있다.

1723년 프랑스어로 간행된 마르탱 도미니크 페르텔(M. D. Fertel)이 쓴 『인쇄술 실용 과학(La Science pratique de l'imprimerie)』은 본문 체계에 초점을 두어, 활자 크기와 양식, 소제목, 부속문, 공백, 장식물, 약물 등 타이포그래피 장치로 문자 정보를 구조화하는 법에 대한 의식적 관심을 보여주었다.⁹⁷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로서의 디자인 경향이 성장하면서 출판인과 타이포그래퍼는 점차 당대의 미의식이나 정치적 성향, 가치관에 대한 반응으로서 각기 다른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18세기말, 재미를 위한 소설의 비중이 커진 책 시장에서 출판업체들을 바로크 미술의 호사스러운 장식 대신 간결한 디자인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주석을 다는 것이 인기를 잃었고 책의 여백을 더 넓어졌다. 존 바스커빌(John Baskerville, 1706-1775)은 이 시기에 획의 대비가 더 강하고 좀더 수직적인 형태를 띠는 새로운 활자체를 개발했다⁹⁸. 획의 가는 부분이 선명하게 인쇄되려면, 표면이 매끄러운 종이와 뚜렷한 검은색 인쇄 잉크가 필요했는데, 바스커빌은 이를 모두 개발하여, 선명하고 간결한 지면의 책을 완성했다.

18세기, 화려함과 장식성은 반종개혁의 성향을 띠었다. 즉 카톨릭교회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홍보할 목적으로 화려한 장식적 예술을 활용한 점에서 종교적·정치적이었으며 구체제와 밀접한 개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97. 로빈 킨로스, 『현대 타이포그래피 : 비판적 역사 에세이』, 최성민 옮김, 스펙터 프레스, 2009, pp.25-30

98. 영어권 타이포그래피에서 ‘현대적(modern)’이라고 분류하는 활자체 이전의 과도기적 성향(Transitional serif)의 서체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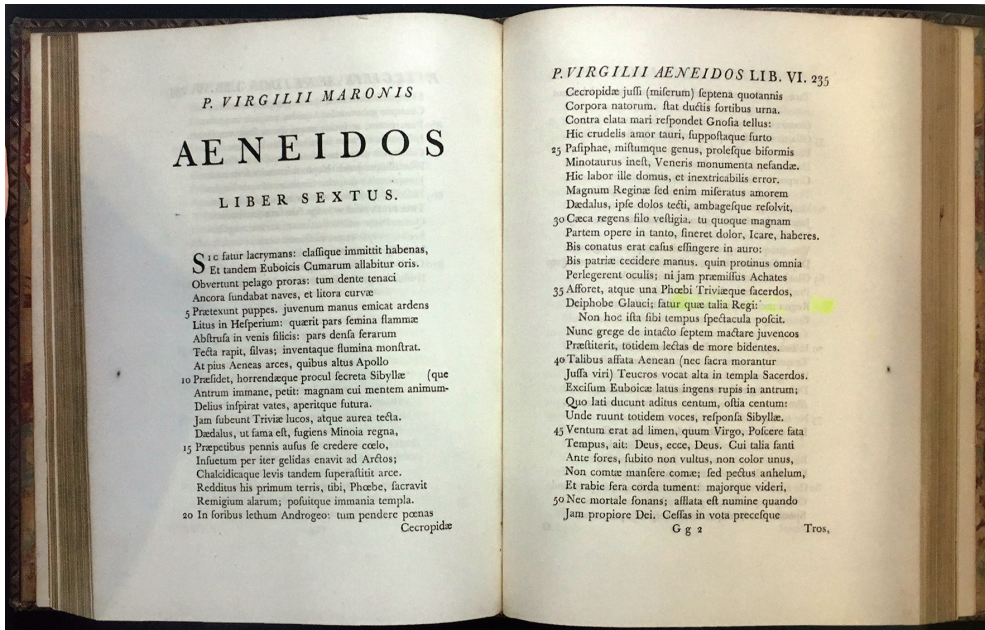


그림2-25. 존 바스커빌이 1757년 버밍햄에서 출판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4절판본.
바스커빌은 진하고 빨리 바르는 잉크와 지면에 줄무늬를 남기지 않는 부드러운 표면의 종이를 개발했다.
이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획의 콘트라스트가 강한 서체를 인쇄하는 것이 가능했다.

더 ‘간소하고 명확한’이라는 수식어는 기존 가치관에 대한 의식적 반발과 연결되었으며, ‘신교의’, ‘현대적인’, ‘이성적인’과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디도(didot) 활자체나 신고전주의의 타이포그래피는 로코코와 같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택하는 과정이기도 했고, 또한 인쇄사의 인식에서 기인한 선택이기도 했다.

디도(didot) 가문과 보도니(bodoni) 타이포그래피의 절제된 유행이 고대 근본 질서로 회귀하려는 전망을 가졌던 것이나, 1840년대 영국의 캐즐런식 구체 활자 부흥, 1890년대 윌리엄 모리스의 켄스컷 프레스가 ‘발명 초기 오십 년간, 또는 1500년 무렵까지의 책’을 타이포그래피의 이상으로 꼽고⁹⁹, 이것의 복원을 시도한 것도 시대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들은

99. 로빈 킨로스, 앞의 책, p.53

디자인의 문제에서 각기 그 전 시대의 것을 고쳐야 할 비합리로 규정하고, 인쇄사 속에서 대안을 찾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1800년대 이후 시작되어 19세기 책의 대량 소비재 시장이 만들어낸 기계화는 출판물의 질 문제를 쟁점화했다. 질의 저하는, 오로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때문이라기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출판업자들이 선택한 저가 상품 전략에 따른 현상에 가까웠다. 하지만 타이포그래퍼들은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나타난 제약들을, ‘높은 수준의 질을 보여주는 수공예적 전통과 그렇지 못한 기계적 현대의 대비’로 결부시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9세기는 또, 선거 포스터, 철도 시간표, 카탈로그 화보와 같은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수단들이 대량으로 인쇄되었고, 기존의 전통을 벗어나는 편집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을 촉진했다. 이는 독서와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정보 전달을 본질로 하는 인쇄물이 도서 인쇄 관습이나 취향보다는 내용 분절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더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서체 영역에서, 현대적 활자체가 대표하는 관습 파괴 현상은 표제 활자에서 거의 무한한 변형, 확장, 과장에 길을 터 준 듯하다.”¹⁰⁰ 이 시기에 파생한 새로운 활자 유형이 산세리프체와 볼드체이다. 산세리프체는 고대적이고 원소적인 원형 문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19세기 초 신고전주의 맥락에서 일정한 현대성을 보유했다.

20세기의 도서 디자이너들은 잘 만든 제품으로서 책 전체를 꼼꼼히 살피는 것을 이상적인 태도로 키워갔다. 그들에게 책의 모든 측면은 통일성을 갖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초기 몇 년간에 그 이후 시기를 점령한 타이포그래피 선언이 등장한다. 얀 치홀트는 1909년의 미래주의 선언, 다다,

100. 로빈 킨로스, 앞의 책, p. 43

데 스테일, 러시아 원소주의 등의 접근법이 새로운 타이포그래피의 기원임을 주장하며, ‘출판물의 형식을 내용에 일치시키는’, 목적 지향의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새로운 타이포그래피를 정의했다. 시대적이거나 개인적인 특성은 보편적이고 사회적 목적에 봉사하는 간략하고 단순하며 논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었다. 이는 “텍스트 요소가 담당하는 기능에 근거하여 형태를 만들어내는 최초의 객관적 조판 방식이다.”¹⁰¹

이 시기의 새로운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을 따르는 디자이너들을 ‘현대주의 디자이너’라 한다면 그들은 전통적 패턴에서 벗어난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산세리프체와 사진이라는 새 요소를 사용하면서 책을 ‘읽기 위한 도구’로 보면서¹⁰² 잡지나 신문 조판법에 상관 없이 책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지면의 조직 방법을 사용했으며, 특히 균형이나 절제보다는 시각적 대비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은 도서에 특별한 위상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또 하나의 디자인 문제로 보았다. 나중에 이 입장과 반대로 도서 타이포그래피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부류를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로 나누기도 한다.

양차 대전 이후 현대주의의 책과 편집디자인은 산세리프체와 비대칭 레이아웃, 격자 그리드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양식화함으로써 그들이 주장한 목적 지향의 의사소통 행위라는 의미를 스스로 흔들며, 하나의 시대적이고 집단적인 양식으로 굳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얀 치홀트와 막스 빌(Max Bill) 간에 벌어진 논쟁¹⁰³은 기능적 관점과 합리성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시각 요소가 특정 미학, 시대성과 결부되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

101. 얀 치홀트, 『신 타이포그래피』, 1928, 헬렌 암스트롱, 『그래픽 디자인 이론, 그 사상의 흐름』, 이지원 역, 비즈앤비즈, p.36에서 재인용

102. ‘책의 역사’는 이러한 조직, 즉 ‘시각적 읽기’를 위한 장치의 개발이 출판인쇄술 이전에 나타나기 시작한 점을 알려준다.

103. 박경식, “막스 빌, 얀 치홀트 서신 논쟁”, 『타이포그래피 교양지 히읏』, 7호, 활자공간, 2014, 7. pp.118-145

도덕적 문제로 바뀔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얀 치홀트는 초기의 원소적 타이포그래피의 몇몇 주장들을 철회하고 전통적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사용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산세리프체와 격자 그리드로 대표되는 단순성은 현대성과 끈질기게 개념적으로 묶여있다. 이는 기계화 초기의 기술적 한계에서 기인하여 18세기 이후의 일련의 현상들과 더불어 그 이미지가 공고해졌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섬세한 수공예적 디테일은 기계생산물의 단순함과 대비를 이루며, 전통과 현대적 속성을 구분하기 위한 잣대로 사용되는 경향이 남아있다.

2.3.3. 다양화한 책의 기능과 가치

(1) 전문 출판인과 출판 전략

대중 서적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19세기 출판업자의 역할은 더욱 전문화되었다. 이제 출판업자는 스스로 인쇄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기 보다는 간행을 위한 자본의 동원력, 작가 집단과의 유대 관계 형성, 광고 전략과 유통의 조정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했으며, 경쟁의 압력을 버틸만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요구받았다.¹⁰⁴

출판업자들은 수익이 불분명한 새로운 책의 성공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했다. 이때에 현대 도서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독서실(시간 단위로 책을 빌려 읽는 곳), 그리고 신문의 연재 소설 코너와 월간지도 중요한 서적 시장의 역할을 했다. 출판업자는 원고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 출판하거나 월간지 코너에 연재물의 형태로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비용을 분산시키고 책의 흥행 가능성을 미리 점쳐볼 수 있었다. 월간지에는 소설뿐 아니라 백과사전, 회고록,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연재물로 게재되었다.

104. 마틴 라이언스, 앞의 책, pp.138~140



그림2-26. 다국어 성경 (Bible. Polyglot, 1514-1517, Royal folio, 340 x 246mm).

Reihung und Industriehäuser am Rheinstadl
Auf den Abhängen über dem Rheinstadl, dem Halden, wurde ein geschlossener Wohn-Angewiesfeld mit der freien Wassernutzung des Falles des Rheinfalls am Traben gestiftet haben.

Die Ansicht von 1900 vom Hotel Bellevue aufgenommen, zeigt links den alten Dorfkerne. Deutsch erbaut und das Tierchen auf dem Hotel Rheinstadl über das Dächergerüst.

Auf der Haldenstraße über dem Rheinstadl entstehen sich die Fabrikanlagen der SAG.

Unter am Rheinstadl dehnt sich das Fabrikanlagen der SAG aus.

Charakteristisch der Anlagen-Unterwelt der Haldenstraße. Früher führte der Zugang zum Rheinstadl nach der Lufthöhe. Die Leinwand der Altsiedler ließ diesen Weg zum steilen Haldenweg abwärts und dafür als Einzug des Haldenwegs entstehen.

Schwergelände zeugt sich die Scheibengasse, die heutige Rheinstadlstraße, durch die Rheinstadl. Auf dieser verlaufenden Straße wurde jahrhundertlang Süddeutsche zum Wirt transportiert.

Die häufig in geprellten Scheiben verformte Seite gibt der Straße im Volksmund den Namen Scheibengasse. Bis 1911 ist in den Gemeinderatsprotokollen von der Scheibengasse die Rede, sehr selten später wird diese als Rheinstadlstraße benannt. Zu den Seiten dieser Straße stehen, umgeben auf gleicher Höhe, die Villa Scheibler (links) und der Restaurant Rheinstadl (rechts), welchen spätere Anbauten ein vorwärtiges Aussehen verliehen.

Über den Dorf zarten sich die bewaldeten Haldenberge des Rheinstadls am Buch, baldig hin.

Siedlungsrand im Norden um 1900
Am südlichen Ende des Rheinstadls, der wichtige Zäuneralten oder Traben, Richtung Lütten nach Zürich. Auf dieser Faserstraße wurde ein alter Gebäude aus dem 18. Jahrhundert über den alten Rheinstadl bei Lütten nach Zürich geführt.

In dieser Längs- und Hauptstraße mündeten früher beim Rheinstadl die alte Kaserne und beim Rheinstadl die alte Straße aus dem Kaserne.

Die Straßen waren früher nicht asphaltiert. Sie wurden jedes Jahr steckenweise mit grobem Kies belegt und mit den Füllsteinen besanden. Einmal im Jahr wurde die Straße neu besanden. Die Straße war häufig der Zustand.

Strahlungsreihe Papp, sollte im Jahr 1899 sein, daß die obere Straße zwischen Scheibler und Rheinstadl, entlang eines guten Fundaments während der ersten Jahrzehnte fast ganz neu werden sollte.

Einmal am Rheinstadl stand die Goldberg- oder Pöckelbäcker. Ursprünglich als Gärtnerei benannt, gehörte es 1864 der Gemeinde Neudamm.

Über diese Pöckelbäcker wies als Scheibengasse Rheinstadl-Roth.

hitz, wie es die Umkle der Stiftung Heinrich Meier in Christenholz 1900 besetzt hat.

Am Rand der Siedlung, die sich Ende des 19. Jahrhunderts bis zur Scheibengasse ausdehnte, erbaut sich über dem Rhein der Land- und Rheinstadl und in der Mitte die Rheinstadlstraße.

Im Dorfkerne nicht weit und nördlich des 1899 eingeweihte Kirchschneidhals.

Gründungsansicht

Ansicht über dem Rheinstadl von Hotel Bellevue aus gesehen, um 1900

Siedlungsrand im Norden des Dorfes, um 1900

그림2-27. 요스트 호홀리의 북디자인. [그림 2-26]는 각 구획마다 다른 언어의 성경이 들어가 있는 용도별 영역 구분으로서의 그리드를 보여준다면, 현대 타이포그래피에서의 그리드는 용도별 영역의 개념인 동시에, 세로(글)와 가로(이미지)의 조형적 리듬을 만들어내는 도구로도 사용되는 차이를 볼 수 있다.

대출용 3부작 소설 형태로 출간했다. 그리고 잠시 시간 간격을 둔 뒤 질 낮은 종이를 사용한 저렴한 재판본을 출간했다. 19세기의 작품의 상당수가 이러한 순서를 밟아 출판되었다.¹⁰⁵

동력 인쇄기계의 발명과 같은 인쇄 기술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컬러 화보의 출판이 보편화된 것이다. 20세기 초, 뮌헨의 피퍼(piper), 비엔나의 파이든(Phaidon)과 같은 화보 출판으로 유명한 출판사가 등장했다. 컬러 사진의 생산 단가가 대량 생산 서적용으로 쓰일 수 있을 만큼 내려간 것은 4색 오프셋 인쇄술(offset printing)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였다. 이로서 미술과 사진 서적뿐만 아니라 아동 서적, 요리책, 그리고 여행 안내서에 이르기까지 출판이 다양해진다.¹⁰⁶

(2) 책의 기능과 배경의 시각적 번역

책의 기능적 특성을 분류한 사례가 하나 있다. [표2]¹⁰⁷는 일반적인 인쇄본과 ebook의 기능을 비교하고자 만들어진 것인데, 눈여겨 볼 것은 책이 직접적인 ‘읽기(reading)’ 기능 외에 물리적인 오브젝트로의 특성과 책의 판매, 교환, 보유 등에 관련된 추상적인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표의 맨 아래의 ‘ineffable(형언할 수 없는)’ 항목이란, 책을 소유했다는 자부심 등을 의미한다. 현대의 편집디자인은, 읽기 방식의 변화와 동반하여 발달한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번역의 기술, 혹은 총체적 통일성 추구라는 현대의 도서 디자인 접근법을 통해, 글과 콘텐츠 뿐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부분까지를 통합하고자 한다. 과거 종교적인 서적이 글의 가치를 빛나는(illuminated) 장식으로 번역한 것이나, 중세적인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추구한 인문주의적인 책이, 우아하고 간결한 지면으로 이런 의도를

105. 마틴 라이언스, 앞의 책, pp.153-155

106. 마틴 라이언스, 앞의 책, p.193

107. Stuart Shieber, ‘Why books?’ conference october 2010. Radcliffe institute, Harvard, 강연

functionalities of the Book	physical	ebook readers
	reading	
	navigation	
	markup	
	accessibility	ebooks
	business/legal	
	preservation	
	ineffables	

표2. 책의 기능적 특성(Functionalities of the Book)

보여준 것은 이러한 ‘형언할 수 없는’ 기능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 맥킨지(Donald F. Mckenzie)가 말했듯, 연극을 보는 것과 페이지를 눈으로 읽는 것 사이와 같은 ‘경험의 간극’을 매우는 역할에 해당하며, 글의 직접적인 의미 뒤의 ‘배경’의 시각적 번역이라 볼 수 있다.¹⁰⁸

(3) 책의 사용자 가치

출판 전략에서 보면, 책은 정보재이다. 이러한 종류의 제품은 처음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소요된 비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고, 대신에 복제본을 만드는 데는 적은 비용이 드는 특징이 있다. 즉 정보를 제공, 유통하는 측은 제작비가 아니라, 이를 선택하는 “개인이 정보재에 대해 각기 매우 다른 가치(consumer value)를 매긴다는 점”¹⁰⁹에 주목해야 한다

또, 책을 사는 독자는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즉 가치를 전부 알지 못하고 값을 지불하며, 읽은 뒤, 경험한 후에야

108. 브링허스트의 표현으로는, 서체의 고유한 정신과 특이성이 텍스트와 상응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의미를 밝혀주며 텍스트에 통찰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

109. Carl Shapiro, Hal R. Varian. Boston, 『Information rules : a strategic guide to the network econom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c1999.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택에 필요한 여러가지 단서들을 고려하게 되는 데 바로 출판사와 저자의 브랜드, 서평, 맛보기 광고, 독자평, 그리고 책의 디자인을 들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기 이전에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출판사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펴왔으며, 유행에 맞추어 겉표지의 그래픽 이미지를 새롭게 바꾼다거나, 시리즈의 컬렉션을 변경하거나 독자의 연령에 따라 장편소설의 축약본을 만드는 등의 전략을 꾸려왔다.

최근의 출판사들은 양장본(hard cover)과 페이퍼백, 혹은 ebook을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발간한다. 이 경우, 내용, 심지어 본문의 디자인은 같을 때가 많고, 단지 겉 패키징 재질과 제본 방식만 다르게 변경된다. 제작 공정상 양장본은 과정이 더 길어 비용이 높으나, 격식을 차린 고급스러운 외형을 가지며 내구성도 더 뛰어난데, 전통적인 형식미를 갖춘 책을 원하거나 더 빨리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독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독자들이 책을 선택하는 기준은 주관적이다. 단순히 읽기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외형에 별다른 가치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기 좋은 책을 소유하는 데서 가치를 느끼기도 한다. 가격대비 실속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양장(hardcover)보다는 가격이 싸고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워 들고 다니기 편한 문고본(paperback)을 선호한다. 따라서 출판사 들은 이와 같은 독자들의 각기 다른 가치 추구를 고려하여 같은 책을 두가지 모두의 형태로 제공한다.

양장본과 단행본 외에 ebook의 형태도 선택 목록에 추가되었는데, 각각의 유통에는 현재 한 가지 단서가 붙는다. 이들은 동일한 시기에 한번에 출간되지 않으며, 대부분 양장본, 문고본, ebook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페이퍼백을 사려면 책이 발간된 후에 한두 달 가량을 기다려야 하고, ebook은 이보다 더 기다려야 한다. 정보의 신속함, 새로움 또한 차별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product dimension	likely Users/Uses
Delay	patient/impatent user
user interface	casual/experienced user
convenience	business/home user
image resolution	newsletter/glossy uses
speed of operation	student/professional users
format	on-screen/printed uses
capability	general/specific uses
features	occasional/frequent uses
comprehensiveness	lay/professional users
annoyance	high-time-value/low-time-value
auupport	casual/intense users

표3. product dimensions susceptible to versioning and their likely users/uses

책 뿐만 아니라 뉴스, 잡지나 영화도 마찬가지로 정보재, 경험재로서 과거와 다른 디지털 시장에 필요한 방식들을 찾고 있는데, 무료제공, 맛보기 부분을 제공하는 것과, 정보의 깊이와 폭에 몇 개의 다른 접근 권한을 선택하게 하는 것, 정보 접근에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있다.

이런 전략을 마케팅에서 버전의 다양화, 혹은 버저닝(versioning)이라고 부른다. 이 개념은 시장을 중심으로 더 많은 구매가 이루어져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데서 접근하고 있지만, 소비자 가치를 염두에 둔다는 데서 참고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버저닝은, 이를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를 최대화하려는 것과 개별 버전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최적의 맞춤을 제공하려는 것, 즉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방법에는 지연(delay), 사용자 인터페이스, 편리성, 해상도, 속도와 성능, 사용편리성(저장, 복제 기능), 제공정보의 용량, 포괄/종합적인 정도(comprehensiveness), annoyance, 기술지원이 있다.¹¹⁰⁾

110. 칼 샤피로 ; 헬 배리언 [공]지음, 『정보법칙을 알면.COM이 보인다』 임세윤 옮김, 미디어퓨전, 1999



그림2-28. 한 서점의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 특별 매대. 초판 그대로를 복사하여 만드는 영인본 형태의 책과 반양장본, 프리미엄 양장본, 손으로 따라 쓰면서 읽는 필사 라이팅북, 눈술대비를 겸한 중고생용 등으로 같은 책이 다양한 독자의 요구에 맞추어 다른 형태로 출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음독과 묵독의 읽기 방식과 집단적, 개인적, 정서적 성향의 읽기, 학습과 연구를 위한 읽기, 인용과 주석 달기, 소유 등으로 기술적인 차이, 독서 그룹의 문화적인 차이, 목적의 차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림2-2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일한 책은 시대에 따라 재평가 되고 변형되며, 독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읽기 방식과 환경을 제공하는, ‘각기 다른 가치를 최대화한’ 디자인으로 기획된다.

3. 작품 연구

3.1. 하멜 보고서 개요

‘하멜 보고서’는 헨드릭 하멜(Hendrick Hamel) 등 36명이 조선에 표착하고 나서부터 하멜을 포함한 8명이 1666년 일본으로 탈출해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관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나가사키를 출발할 때까지의 기록이다. 지금까지 ‘하멜 표류기’로 국내에 알려진 이 책은 처음에 하멜이 조선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에 제출한 보고서로 14년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원래 ‘1653년 8월 16일부터 1666년 9월 14일까지 께빠에르츠 섬¹¹¹에 난파되어 그들 중 8명이 그곳을 탈출하여 일본의 나가사키에 이르기까지 생존한 스페르베르호의 장교와 선원들이 겪은 조선 왕국의 풍습 및 위치 등에 관한 보고서’라는 긴 제목으로 시작한다.

3.1.1. 하멜 보고서 출간 이력

하멜은 1666년 탈출에 성공했지만, 조선과 일본 막부 사이의 ‘잔류 네덜란드인 송환 협상’이 끝날 때까지 1년여 기간을 더 나가사키에 더 머물렀다. 그가 쓴 필사본¹¹²은 먼저 본국으로 전해졌고, 『1653년 바타비아발 일본행 스페르베르호의 불행한 항해일지』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후에 이것이 불어, 영어 등으로 번역되면서 유럽에 한국의 존재를 알렸으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글과 그림이 추가되면서 수차례 재출간되었다.

가장 최근의 번역서 중의 하나인 유동익의 『하멜 보고서』¹¹³는 후틴크본(B.

111. 제주도를 말한다. 제주도를 처음 발견한 서양의 배 이름이 께빠에르츠였기 때문에 그 배의 이름을 따서 부르던 이름이다.

112. 네덜란드 국립공문서 보관소에 소장 중인 필사본은 하멜이 나가사키에서 직접 집필하고 수정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총독에게 제출한 필사본과 동일한 정본으로 알려져 있다.

113. 1920년 후팅크가 네덜란드어 정본을 고증해 펴낸 완역본이다.

Journal van't geene de overgebleven
officieren ende Matroosen van't jacht de
spierwer t'edert den 16^{en} augustij d^e 1803.
dat tselve jacht aan t' quelpaerts eyland
(staende onder den konink van Coree) hebben
verlooren, tot den 14^{en} september d^e 1808
dat met haer v^{er} ontrenticht ende tot nanga, w
sachy in Japan aangekomen zijn. Int selve
dijck van Coree is wederraren, mitsgaders
den ommegang van diu nativ. ende gelegent sijt
van't land

[illegible]

Die loten van huty Equat fozoon widdir, fozoon die about engeri die stam liget
wat van fozonota, die die arivotgerweri nacht, foz laager foz widdir foz nam

Den vorder aug^e met 't linnen vanden dagg. brennen ons diegt by den oeyen
 vylantw en wesen, soe geen ons bene te doen agter't wien ten anderw te comen
 om vanden gaden wint. dier geet goet water wel bruytke sijn, quamen vider
 met groot graven agter't wien ten anderw, coften oer wrijng bot vinder
 door den agter't iyt den groot rij lage daer geet den zand op vander. die
 vylantw wint den seijpke vint geuwer bij oeluch iyt 't vinder van goeder
 zand, soude liege anders op 't wien vinder. dier geet seijp vloerw geuwer
 door den vinder dier douchtegeyt vint wint. alsoe daer coften vint sijn
 geuwer muntgeet soe geet vander wint, met 't goeder vander dagg
 brennen ons soe diegt oer oet van Agina vinder te sijn dat de
 Agina vint in geuwer vint geuwer met heuwer lange stant geuwer
 op geuwer. soe ons doegde. dat wy daer moegde comen te vinder. dog te met

그림3-1. 프레데릭 하멜의 필사본 보고서의 첫 페이지

Hoetink)과 네덜란드인 헨니 사브나이에(Henny Savenije)의 하멜 보고서 필사본 자료를 참조하여, 영어나 불어가 아닌 네덜란드어를 직접 번역한 것으로 최근까지 출간된 판본 중 가장 원문에 충실한 번역서이다.

(1) 하멜 보고서 주요 출간 이력

- 1653-66 네덜란드인 하멜과 그 일행이 제주도 연안에서 항해 중
난파하여 조선에 억류되어 있다가 탈출할 때까지의 일을
나가사키에서 기록하고 동인도회사 총독에 제출
- 1668 반 벨센(Jacob van Velsen at Amsterdam), 조선왕국기(coree)
부분을 빼고 출판
- 1668 스티히터(Johannes Stichter at Rotterdam), 7개의
일러스트레이션 추가
- 1669-70 사아그만(Gillis Joosten Saeghman at Amsterdam), 3가지 다른
에디션 출판으로 시작, 2년동안 총 5권을 출간하여 대중적
성공을 거둠
- 1670 프랑스어판 출간
- 1672 독일어판 출간
- 1704 영어판 출간
- 1920 후틴크(B. Hoetink), 네덜란드어 주석서 출판.(the Linschoten
Society)
- 1971 게리 레드야드(Gary Ledyard), 영문판, 후틴크의 연구를
토대로 추가 연구
- 1918년 최남선의 『청춘』에 처음 번역되어 실린 바 있으며,¹¹⁴
네덜란드어, 불어, 영어를 거쳐 삼중역으로 국내에 소개

114. 전라남도 강진군 하멜정보관 참조. www.hamel.go.kr

- 1934년 『진단학보1-3』, 이병도 영역
- 1975년 『하멜표류기-조선왕국건문록』, 박윤희 역, 삼중당문고
- 2002년 『다시 읽는 하멜표류기』, 강준식 영역, 웅진
- 2003년 『보물섬은 어디에-네덜란드공문서를 통해 본 한국과의 교류사』, 지명숙, 알라벤 공저
- 2003년 네덜란드어 완역 한국어판 출간, 『하멜 보고서』, 유동익 역

(2) 국내 발간 현황

하멜 보고서는 1918년 『청춘』 14호에 ‘이백오십년전화란인 헨드릭 하멜 조선일기(삼십육인의 십사년간엄류실록)’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이 국내 최초 번역본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30년대에 이병도가 붙어판과 영어판을 번역하여 ‘난선제주도난파기(蘭船濟州島難破記), 『하멜표류기』를 발표했고, 미국의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판을 수록한 1975년판까지 꾸준히 수정하며 관련한 자료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김창수가 네덜란드의 후틴크연구서를 원본으로 『하멜 표류기/한국의 비극』을 출간했고, 1976년에는 하멜 보고서에 관한 연구서인 게리 레드야드의 책, 또 장 폴 바이즈(Jean paul Buys)가 후틴크판을 영역한 것이 소개된 것으로 1995년과 2002년의 강준식의 번역본, 김태진의 『하멜일지 그리고 조선국에 관한 기술』(1996, 서해문집)이 있다. 2003년 하멜의 제주 표착 35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번역서가 출판되었다.

아동출판 분야에서 동화와 그림책 형식의 하멜의 표류기가 꾸준히 출판되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허구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팩션(faction) 소설 『하멜』이 출간되기도 했다.

하멜의 표류 사건은 조선측의 자료로도 남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과 같은 공식 문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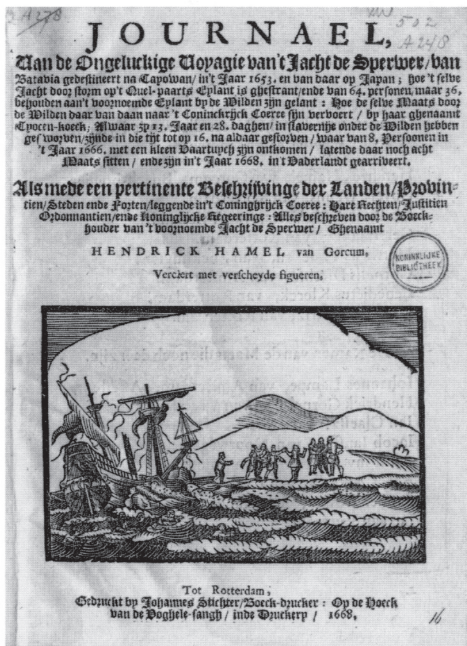


그림3-2. 1668년 스티히터판 하멜 보고서의 타이틀 페이지.
Courtesy Koninklijke Bibliotheek, The Hague



그림3-3. 스티히터판의 조선왕국기 표제지
Courtesy Koninklijke Bibliotheek, The Ha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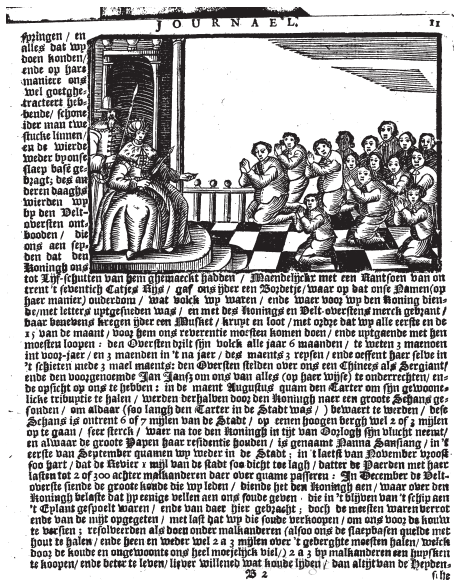


그림3-4. 스티히터판의 본문, digitized by goo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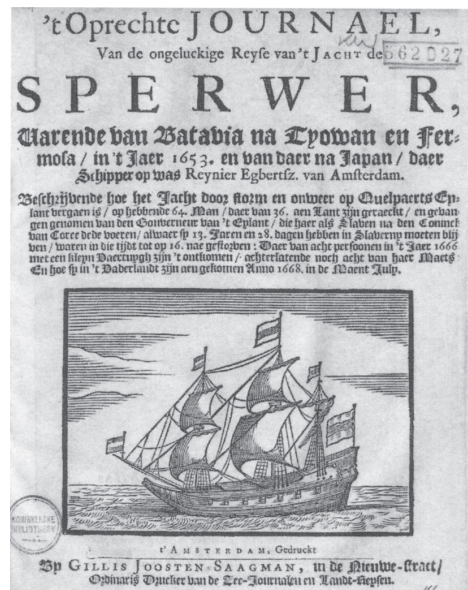


그림3-5. 사아그만판 하멜 보고서, 'Hamel's world' p.10,
Courtesy Koninklijke Bibliotheek, The Ha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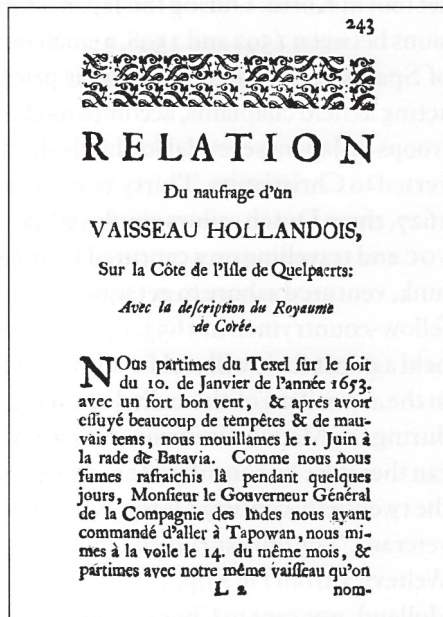


그림3-6. 1732 프랑스판 하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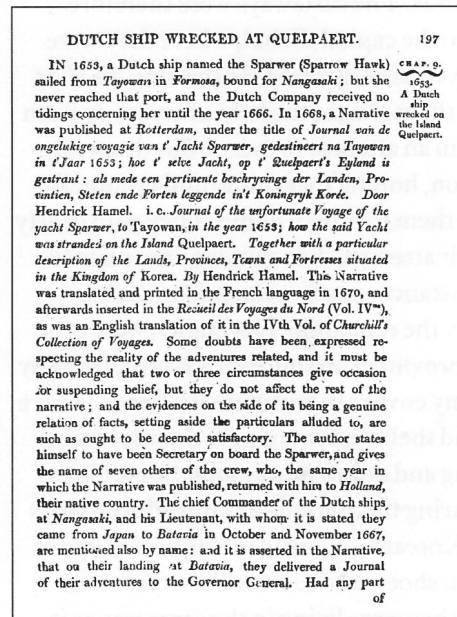


그림3-7. 1813 영문판 하멜 보고서



그림3-8. 1929년에 어린이 용으로 출판된 하멜 보고서.
G. K. de Wilde, 『The Wreck of the Sparrowhawk』,
『Hamel's world』 p.12



그림3-9. 신문관 『청춘』, 14호, 1918, www.hamel.go.kr

蘭船濟州島難破記 (一)

附朝鮮國記

헨드릭·하멜 著

李丙燾譯註

一六五二年
和蘭年
丁巳

* ТAYOBA ohh

佛譯及華譯本

타고 한 것은 轉

寫時의 誤인듯

하단, 蘭人이 今

이란자城을築

하던
때에
그

西紀一六五三年正月十日夜(譯註,朝鮮孝宗三年壬辰十二月十一日)에 우리一行은 順風을 얻어 獨逸 Textel 島(譯註,和蘭西海群島의 一)를 出帆하여, 그후屢次的暴風雨와 乖候를 겪고 六月一日 峇 다 비 아 Batavia(譯註,峇巴島의 都城)路上에 投錨하게 되었었다. 이곳에서數日間 元氣를 回復하자 곧(和蘭)東印度會社總督의 다이요안* Jayowan(譯註,峇灣의 安平)으로 向하라는 命令이 있어, 同月十四일에 스텔렌 스텔렌(Sterrenburg)(새 때에 雀鷹)의 名을 띠고 同地를 떠났는데, 이때 一行中에는 코넬리스·케셀 Cornelis Caeser(譯註,蘭文 原本에 依한)氏가 새로 參加하였으니, 그 目的은 다이요안 臺灣 및 그 屬地를 占領하려는 國法의 有

제주목사가 남긴 개인 문집이 있어 부분적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3.1.2 하멜 보고서 내용의 특성

(1) 보고서의 구성과 글의 특성

하멜 보고서의 정본으로 인정받는 네덜란드 국립문서보관소의 필사본은 1653년 하멜이 바타비아(batavia, 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항하여 일본으로 가던 중 조선에 표착, 억류되었다가 탈출한 1666년까지의 일들을 일지(journal)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1622년에서 1665년까지는 기근과 흉년이 계속되었던 시기로, 일행의 행적에 대한 내용 대신 조선의 풍습, 위치, 종교 등을 적고 있다. 하멜은 조선에 대한 정보를 일지와 분리해서 쓰지 않았지만 출판 업자에 따라 ‘조선왕국기’로 분리해 책의 끝부분에 넣기도 했다. 1666년 조선을 탈출한 후에는 나가사키에서 일본 관리에게 심문받은 내용과 바타비아로 가는 내용이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연구에서 사용한 네덜란드어 원역본은, 17세기 네덜란드어를 현재의 한국어로 직역한 것이기 때문에, 문장이 매끄럽지 않고 어색한 부분이 많다. 또 애초에 하멜은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보고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배가 좌초된 불의의 사건과 일행이 겪은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는 반면, 다른 기록은 매우 불규칙하거나 때로 무성의하다. 영어판의 번역본이나 기타 판본들은 다량의 편집자 주석과 부연 설명을 넣어



그림3-11. 하멜 보고서의 기록 순서

이를 보완하고 있다.

(2) 모험소설의 인기와 기록의 변형

1668년 무렵 네덜란드에서 출간된 책들은 모두 하멜이 고국에 돌아가기도 전에¹¹⁵ 책으로 나올 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강렬한 호기심을 일으키는 먼 이국의 이야기였다.

당시 네덜란드가 강력한 해양 무역 국가로 부상 중이던 17세기는¹¹⁶ 항해와 모험 소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일었다. 스티히터판은 하멜의 이야기에 목판화 삽화 7개를 더해 출간했는데, 조선의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는 화가의 삽화 속에서 조선의 인물들은 유럽인의 복색을 하고 있다.[그림3-4] 사아그만과 같은 출판가들은 독자의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 기록의 내용과 무관한 악어와 코끼리 삽화[그림3-13]를 포함시키고 다음과 같이 필사본에 없는 설명글을 추가했다.

“한국에서 코끼리는 보지 못했으나, 악어는 수두룩했다. 악어는 사람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몇몇 한국인들이 그들에게 들려 준 이야기로는 악어 한 마리의 배에서 절반쯤 먹어 해치운 어린애들 시체가 셋이나 나온 것을 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¹¹⁷

이와 같은 편집은 “하멜 보고서를 공상적 여행담의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115. 하멜이 네덜란드로 귀국한 것은 1670년이다.

116. 네덜란드는 스페인 필리페 2세가 네덜란드 선박의 리스본 입항을 봉쇄하자, 갑작스럽게 중요한 중개 교역 중심지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직접 인도양 무역 중심으로 항해하기 시작했다. 1602년 민간의 이익과 공적인 이익 모두를 위해 설립된 유한 책임 합작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oc)는 마치 주권국가처럼 해당 지역에서 교역 독점권을 행사했고, 오랫동안 서양 자본주의의 가장 유명한 상징이 되었다. 스티븐 솔로몬, 『물의 세계사』, 주경철, 안민석 옮김, 2013, 민음사, p. 252참조.

117. 지명숙, B.C.A. 왈라벤, 『보물섬은 어디에』,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그림3-12.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군인과 웃는 소녀', 1657년경. 이 시기의 플랑드르 화가들은 종종 그림에 당시 활발했던 세계지도 제작과 대중적 유통을 보여주는 그림을 남겼다.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판본의 저본이 되면서 서지사에 악영향을 주었다.”¹¹⁸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1668년에서 1670년의 스티히터판과 사아그만 판은 목판화와 블랙레터 조합으로 당시 대중 문예물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¹¹⁹ 16, 17세기의 삽화가들은 종종 과거 종교적인 성인의 이야기나 성서의 일화를 그릴 때 등장인물의 시대가 아닌, 독자가 살던 당대의 모습으로 이를 그려내곤 했으므로, 평범한 문예물 독자들은 이런 정도의 왜곡에 익숙했을 가능성이 크다.¹²⁰

118. 정성화, '하멜 보고서의 서지적 해설', 『하멜 보고서』, 중앙M&B, 2002, p.115

119. 16세기에 로만체는 유럽 전역에 보편화 된다. 그러나 게르만어권은 오래도록 블랙레터를 선호했으며, 대중 독자들도 목판화 블랙레터 조합을 익숙하게 여겼다. 『책의 탄생』 참조.

120. 로버트 단턴은 정보, 텍스트에는 근본적으로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를 전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개조되는 메세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의 미래』, 성동규, 고은주, 김승완 옮김, 교보문고, 2011, pp.7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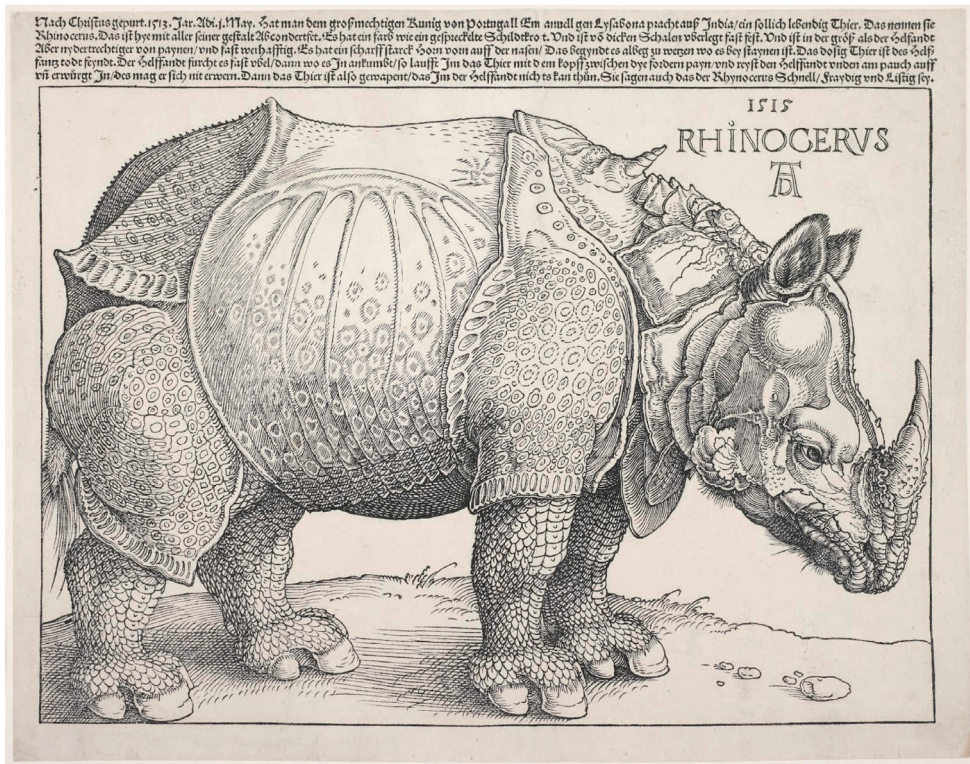


그림3-14. 'Rhinoceros', Albrecht Dürer, 1515, 대영박물관 소장

뒤러는 코뿔소를 보고 그린 것이 아니다. '열록덜룩한 거북이의 색이고, 두꺼운 비늘로 덮여있다'는 기록과 진술에 따라 그린 것이다. 뒤러의 그림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설득력이 있었는지 이후 300년간 유럽의 삽화가들은 살아있는 코뿔소가 비늘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뒤러의 목판화를 따라 그렸다. 구골 아트앤컬처.

(3) 조선 이미지의 형성

하멜의 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험소설이 출간되고, 프랑스어, 영어로 번역되면서, 유럽인에게 당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오정숙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멜은 자신의 체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조선의 위치, 자연, 제도(교육, 과거시험, 군대, 처형, 계급)와 풍습(효, 결혼, 종교, 매장, 집, 제사, 추석, 접대문화, 인삼), 청나라에 바치는 조공 등에 대한 생생한 기록으로,

당시 조선에 대한 풍부한 사회인류학적 자료를 제공한다. 이미지 표상의 차원에서 하멜이 반복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이미지는 우선 ‘고립과 폐쇄’의 이미지다. 공간적 차원에서 하멜은 조선을 많은 암초와 바위로 둘러싸여 접근하기 어려운 섬이자, 혹독한 추위와 폭설, 험준한 산과 매서운 들짐승이 들끓는 고립된 나라로 인식한다. 또한 조선이 서방 세계에 알려질까 두려워 자신을 비롯한 36명의 선원을 고국에 돌려보내지 않는 조선의 폐쇄성이 여러 차례 강조된다. 이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이미지로 고착화될 ‘은둔의 나라’ 이미지가 형성된다.”

“다른 한편 하멜은 조선의 고유한 문자와 언어, 책과 글읽기를 숭상하는 교육열, 잘 경작된 비옥한 땅, 외국인을 지극하게 접대하는 한국의 융숭한 손님 접대, 온화하고 단순한 한국인의 심성 등을 기록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문명화된 나라의 이미지를 전파한다. 하멜이 본 한국인은 가난하고 더럽고 무지하지만 또한 선하고 따뜻하고 호기심이 많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불레스텍스는 하멜의 관찰을 1580년 몽테뉴가 『수상록』 초판에서 최초로 사용한 바 있는 ‘착한 미개인’과 18세기 동양의 발견 시기에 본격적으로 전파될 ‘동양의 현자’라는 이미지 형성의 시초로 파악한다.”¹²¹

4) 17세기 한국사, 동아시아 국제 관계사의 한 장면

2002년은 하멜의 제주도 표착 35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지역 행사가 열렸을 뿐 아니라 학술 연구도 봄을 이뤘다. 새로운 연구는 하멜의 기록을 ‘한 개인의 모험 이야기’로부터 한국사,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121. 오정숙, ‘프랑스에서 한국이미지 표상의 역사 및 지형도’, 『프랑스문화연구』 제12집, 2006, p.111

동아시아 무역과 국제 관계사의 한 페이지로 재위치시켰다.

하멜 일행은 처음 이국땅에서 네덜란드인 박연(Jan Janse Weltevree)¹²²을 만나자 매우 안도하고 귀국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이들을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다. 1653년 조선은 병자호란(1635) 강화 협상에 따라 청에 볼모로 갔던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한 이후다. 효종은 배청(排淸), 북벌을 위해 친청파를 숙청하고(1651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어영청, 금군을 비롯한 전반적인 군사 및 훈련 제도를 개편·강화했다.

그러나 청이 이를 경계하여 조선 내정에 대한 감시와 압박을 멈추지 않았고, 당시 빈번한 자연 재해로 재정 문제가 심화된 상태에서 신료들의 반발까지 있어 적극적인 군사 강화 정책의 추진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전란으로 피폐해진 틈에 일본으로부터 다시 침략당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까지 있어, 이 시기 조선은 매우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대외적 태도를 취했다.¹²³

이와 같은 배경에서 조선은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의 존재를 숨겼으며, 훈련도감에 배속시켜 감시하면서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게 했다.

하멜 일행은 그럼에도 조선에 있는 동안 수차례 탈출을 시도하였으며, 1655년 일등항해사를 포함한 일행 두 명이, 귀국길에 오른 청국 사신 앞에 네덜란드 복장으로 나타나 본국 송환을 호소하는 사건을 일으킨다. 조선 조정은 청국 사신에게 뇌물을 주어 이를 무마했으며, 대신들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멜 일행의 사형을 주장했는데, 효종의 동생인 인평대군의 호의로 전라도 유배로 마무리되었다.

하멜의 기록은 일본에서는 아쿠타 시게루(生田滋)의 번역을 따라

122. 조선 인조 때에 귀화한 네덜란드인.

123. 한명기, ‘하멜 漂流 무렵의 조선과 東아시아-당시의 朝淸, 朝日關係를 중심으로’, 하멜표류 3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9, pp. 8-25

‘조선유수기(朝鮮幽囚記)’로 불린다. ‘유수기’란 하멜 일행이 죄인처럼 억류되었던 이야기라는 의미가 있다.¹²⁴

당시 일본은 데지마에 네덜란드 무역상관을 두어 교역을 하고 있었고, 기리시탄(=야소종문, 구교도) 금제 정책에 따라 조선과는 1644년부터 의심스러운 이국선이 표착할 경우 왜관에 알리기로 교린한 상태였다. 조선이 내부적으로 어렵고 국제 정세에 매우 어둡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일본은, 하멜 일행이 나가사키로 탈출해 오자, 아란타(네덜란드)가 일본의 속국이라며 조선을 공갈한다.¹²⁵ 조선은 일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일본의 간섭을 막기 위해 남아있던 네덜란드인을 송환하였다.

124. ‘서양 이국인 표착과 근세 조선·네덜란드·일본 국제 관계사’, 『하멜 보고서』, 중앙M&B, 2002, p. 127,

125. 한명기, 위의 논문, p 23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0월 23일 경오, “동래 부사 안진(安鎭)이 치제하여 아뢰기를, “차왜(差倭) 굴성진(橘成陳) 등이 역관들에게 말하기를 ‘10여 년 전에 아란타(阿蘭陀) 군민(郡民)이 물화를 신고 표류하여 탐라에 닿았는데, 탐라인이 그 물건을 전부 빼앗고 그 사람들을 전라도 내에 흩어 놓았다. 그 가운데 8명이 금년 여름에 배를 타고 몰래 도망와서 강호(江戶)에 정박했다. 그래서 강호에서 그 사건의 본말을 자세히 알고자 하여 서계(書契)를 예조에 보내려 한다. 아란타는 바로 일본의 속군(屬郡)으로 공물(貢物)을 가지고 오던 길이었다. 그런데 조선에서 물화를 빼앗고 그 사람들을 억류해 두었으니 이게 과연 성실하고 미더운 도리인가.’ 하고, 또 말하기를 ‘차왜가 나왔을 때 본부(本府)와 접위관(接慰官)의 문답이 예조가 답한 서계와 다르지 않아야 될 것이다. 또 도주(島主)와 강호의 집정자 사이에 크게 틈이 났는데, 만약 서로 어긋나기라도 한다면 도주가 먼저 화를 입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3.2. 하멜 보고서 에디션 구성

2장에서 ‘책의 역사’에 나타난 독서 문화와 책의 시각적 형식을 살펴본 것은 결국 북디자인, 북 타이포그래피의 의미를 반추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목독으로의 이행과 12, 13세기의 독서층의 확대는, 그 이전 시기에 기록하는 자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정보 보관 용기로서의 책을 드디어 사용하기 편리한, 읽는 자를 배려하는 도구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연속선 상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한 것이 상업적 인쇄술이다. 낭독, 즉 소리내어 읽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던 처음의 구두법은 이제 눈으로만 파악해도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시각적 번역들’, 새로운 타이포그래피적 관행들과 더불어 표준화의 길을 걸었다.

인쇄 문화는 물질성, 즉 고정된 형태 위에 성립된 것이므로 글의 유형과 그 시각적 형식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편집디자인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이러한 시각적 관습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출판에서 글을 크게 둘로 나누는 기준인 ‘픽션’과 ‘논픽션’으로부터 시작, 기본적인 사항만을 결정한 뒤 시작품을 진행하고, 이를 검토하면서 다시 세부적인 수정 방향을 세워, 각기 다른 지면 디자인의 책 에디션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디자인 판단의 우선 순위를 의식적으로 조정하여 ‘읽기 방식’을 가장 앞에 두려고 하였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정착된 장르적 패턴을 벗어난 디자인 접근 방식을 찾고자 했다.

3.2.1. 1차 작품 연구

〈A-1〉은 픽션, 즉 이야기로서의 읽기에 중점을 두었고, 〈B-1〉은 논픽션, 즉 학습으로서의 읽기와 전문적인 읽기를 위한 복합적인 정보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1차 연구작품 〈A-1〉은 본문이 들어가는 페이지는 가장 기본적인 1단 그리드를 사용하며, 보충 내용과 주석들은 별도의 섹션으로 구별하여 본문 뒤(end-matter)에 위치하도록 구성했다. 이렇게 바꾸면, 본문 페이지의 구조가 단순하므로 이야기의 흐름에 몰입하여 읽기에 유리하다. 일반적인 소설이나 에세이 단행본의 크기와 비례로, 개인적으로 휴대하며 읽기 간편한 형태가 적당하다.

〈B-1〉은 ‘하멜 보고서’의 정보가 가진 입체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각기 다른 관심사에 따라 원하는 데로 정보를 선택해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자료를 한번에 담는 지면 구조를 적용했고, 이를 위해 정보가 많이 들어가는 큰 판형(220×280mm)이 필요했다.

〈B-1〉은 일지글(journal)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각각의 내용을 별도의 장이나 섹션으로 구성하지 않고 같은 페이지 내에 그리드에 따라 구성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단행본보다는 매거진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다단 그리드의 페이지 모습이 만들어진다. 매거진에서는 흔히 따로따로 만들어져 통일성이 떨어지는 이미지 자료와 서로 다른 톤과 규모를 갖는 텍스트 덩어리들이 뒤섞여 있어, 그리드를 유동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멜 보고서는 앞서 적은 바와 같이 다수의 번역본과 연구서로 출판되었다. 그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초기 출판본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고증을 시도한 책이 네덜란드 학자 후틴크(B. Hoetink)의 1920년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는 여러 번역본, 그리고 중국과 조선에 관한 연구를 담은 책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위튼(Witsen), 그리피스(Griffis), 레드야드(Ledyard)의 책이 그것이다.

이 내용들은 지금 국내 독자의 ‘내용 이해’를 돕는 주석이라기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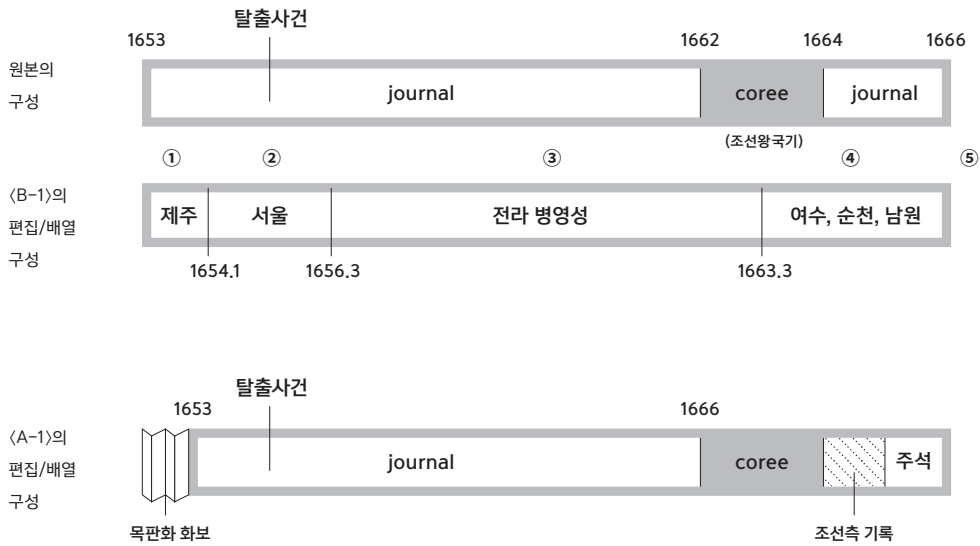


그림3-15. 하멜 보고서의 구조와 조선 내의 체류 지역. <B-1>은 원본 기록의 순서를 따르며, 화보, 연구서 주석과 조선측의 기록을 시간 흐름의 순서에 맞게 배치했으며, <A-1>은 이를 화보, 일지, 조선왕국기, 조선측 기록, 주석(미주)로 섹션을 분리하여 구성했다.

표4. 하멜에 관한 조선측의 기록

<p>① 하멜일행의 제주도 표착 후</p> <p>효종 4년(1653) 8월 6일</p> <p>: 제주 목사 이원진이 난파당한 서양인에 대하여 치계하다</p> <p>효종4년(1653) 11월 30일 승정원일기</p> <p>: 鹿皮의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함</p> <p>효종 4년(1653) 12월 5일</p> <p>: 제주도에 표류되어 온 외국인을 대우하는 도리에 대한 승지 서원리의 상소문</p> <p>효종 5년(1654) 02월24일, 비변사등록</p> <p>: 大臣과 備局堂上을 引見하여 서양 사람을 구제하여 살리는 문제를 논의함</p> <p>② 서울로 이송 후, 처리 문제 논의</p> <p>효종5년(1654) 5월 12일, 승정원일기</p> <p>: 朴延이 데려온 이들을 司譯院에 就舍하게 하고 廩給할 것 등을 戶曹 등에서 舉行하게 하고 이후 處置할 일들을 廣議하여 稟定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p> <p>효종 5년(1654) 5월12일, 비변사등록</p> <p>: 朴延에 데리고 온 서양인의 居處와 給料를 주고, 군인들에게 守直하도록 청하는 備邊司의 啓</p>	<p>효종 5년(1654) 5월13일, 비변사등록</p> <p>: 朴延에 데리고 온 서양인을 처리하는 일에 대한 備邊司의 啓</p> <p>③ 청나라 사신 앞에 뛰어들 사건</p> <p>효종 6년 4월 25일</p> <p>: 남만인 30여 인이 표류하여 제주에 이르러 목사 이원진이 잡아서 서울로 보내다</p> <p>④ 식량문제로 여수, 순천, 남원으로 분산됨</p> <p>현종3년(1662) 1월 20일, 승정원일기</p> <p>: 漂到蠻人의 식량 題給으로 발생한 문제를 엄금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p> <p>⑤ 탈출 후</p> <p>현종 7년(1666) 10월 24일, 승정원일기</p> <p>: 일본으로 도망간 阿蘭陀人의 조사를 묻는 備邊司의 계</p> <p>http://db.history.go.kr/</p>
--	--

과거 서양인들이 ‘하멜 보고서’와 그 안에 나타나는 ‘조선’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에 가깝다. 예를 들면, ‘죽’을 “물에 쌀을 넣고 끓이는 가장 흔한 음료”라고 풀이하는 식이다. 따라서 번역자인 유동익의 주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글임이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본분인 일지가 들어가는 기본 판면과, 역자주가 들어가는 방주, 연구서의 관련 주석이 들어가는 각주 그리드를 나누고, 이미지는 이 그리드선들을 기준으로 가로 사이즈를 맞추며 크고 작게 변형할 수 있도록 했다.

세로쓰기를 사용한 조선의 실록과 기타 기록들은 앞의 내용과 구분할 수 있도록 가로 기준선(flow-line)에 따라 만들어진 상단 그리드를 별도로 사용하며, 이 내용이 나올 때에 전체적인 그리드의 대체 변형(alter) 가이드를 사용했다.

하멜 보고서는 ‘꼰빠에르츠(제주), 쩌씨요(전주), 썰라도(전라도), 썩윽(정읍)’과 같은 자주 쓰지 않는 발음의 글자가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KS코드의 2350자 서체보다는 11,172개 글리프를 지원하는 유니코드 한글 본문용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한글과 라틴 알파벳, 한자를 섞어 쓸 때 발생하는 균형의 문제, 그리고 가로·세로 쓰기를 함께 쓰는 경우의 적절한 시선 유도과 구두점의 차이가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다. 그리고,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로서의 글과 주석들을 구분하고 정리하는 것, 하멜의 필사본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중간 제목과 장 구분들에 대해 기준을 세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읽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좀더 세분화한 읽기 목적을 적용한 지면짜기를 시도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므로 1차 작품의 결과를 토대로 에디션 기획 방향을 재정리했다.

<div data-bbox="305 203 598 705"> <p>1653</p> <p>인도 총독과 평의회는 명함으로 우리는 1653년 6월 18일 스페르베르 호를 타고 바타비아(Batavia) 자카르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있던 곳 양자 발음은 바타비아에서 포르모사(Formosa, 현재 대만)로 항해를 하게 되었다. 이 배에는 코르넬리스 케이사르(Cornelis canaar) 경이 함께 승선하고 있었는데 '포르모사' 총독으로 있던 니콜라스 페르베크호(Nicolaes Verburg) 경을 대신하여 그곳 총독으로 부임하려 가는 길이었다.</p> <p>순조로운 항해 후 우리는 7월 16일에 타이완(Taiwan 대만)의 정복지에 도착하여 케이사르 경과 화물들을 그곳에 내려놓았다. 7월 30일 우리는 타이완(대만) 총독과 평의회는 명함으로 다시 이반(Japan) 일본으로 출항하게 되었다. 순조로운 항해가 되길 하-나님께 기도 드리며 항해를 시작하였다.</p> <p>7월 마지막 날, 날씨는 매우 좋았지만 저녁 무렵부터 포르모사에서 폭풍이 불어 왔고 밤이 되자 날씨는 더욱더 거칠어졌다.</p> <p>8월 1일 새벽에 우리는 조그마한 섬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섬</p> </div>	<div data-bbox="883 203 1176 705"> <p>게 해서는 섬 뒤편에 앞을 내밀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화선을 다녔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앞을 내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 섬 바로 뒤편에 큰 앞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내린 상태로 있어야만 했으며, 바다는 더욱더 거세어졌다.</p> <p>이 섬은 선장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배 뒤편에 있는 전함대의 창문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섬에 난파되어 배를 잃을 수 있었을 것이다.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나중에 서아우리가 그 당시 화승총(Musket) 사창거리⁴ 내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날씨가 가고 나서 보니 우리가 있는 곳이 중국 해안 근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완전 무장을 한 중국 군대가 해안을 따라 행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가 그곳에서 화초퇴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천지 천황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그날 태풍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심해졌으며, 우리는 그 다음날까지 그곳에서 정박하였다.</p> <p>8월 2일 아침 무렵에는 바람이 매우 고요했다. 중국 병사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으며 마치 배고픈 늑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우리도 얼마나 밧줄 그리고 여러 가지를 대항하기 위해 밧줄을 물리고 항해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었고 그 곳에서 벗어나갈 수 있었다. 그날 낮과 밤에는 거의 바람이 불지 않았다.</p> <p>8월 3일 아침녘에 우리는 해류에 의해 20야일⁵이나 떠밀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포르모사 해안을 보게 된 우리는 포르모사와 중국 사이로 항로를 정하였는데, 날씨는 좋았고 이들이 붙었다.</p> </div>
<div data-bbox="305 844 598 1346"> <p>승진원일기, 효종4년(1653) 11월 30일조</p> <p>호포관에서 라사랑이 야직기를, [별조로] 직사의 형자가 있사오네, 무릇 역을할 문장을 미리 알고 조처를 취하고자 하고자, 그 중 속미가 시중에 통하여, 각자가 야국이 진한 말을 할 수 없음이라, 전에 세검이 있었음에도 물리 이복 같은 형미가 되었으니, 관제에 따라 일을 야국이 진한 것은 불자할 듯하옵나니, 삼일 일하기를, [적주무사의 정세를 보어 조복인의 아취는 속미의 속자야 같나고, 하나 이를 어떻게 취할지 모름이니]하네, 영리한 지혜자가 같하거늘, [이 속미는 쓸 수 있는 것을 막해서 표현해 쓰도록 하고, 물결의 거각만을 사복사가 박치는 문전 무학로 지극하여, 리로익 그물미 거울을 볼 수 있는 책으로 삼는 것이 실로 학광할 것임이라] 하나 삼일 일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건나.</p> <p>효종실록, 효종4년(1653) 12월 11일조</p> <p>유지 사헌(徐元龜)이 상소하기를, [적주에 조복해 온 사람이 가진 속미를 국가에서 값을 주고 사 와서 장차 전국 사신리 요구하는 때에 쓸 것이라]고 하는데, 신의 생각에는 긴 조의 사람을 제후라는 도리가 리기해하는 할 일 듯하네라. 저 사람들이 우가나야 조복해 와서 의지하여 이무를 좇이 길이 조지에서 음모로 직물해 우가만을 박자는데, 리히 리물을 보일지니 않고 곧은 서로 어미하여 장사꾼 같이 한다면, 이미 국가의 재복을 손상시키지 않겠나며, 하네, 고양에 의논하야고 민하겟는데, 의논이 가깝게 행해지지 않나나.</p> </div>	<div data-bbox="783 844 1176 1346"> <p>주</p> <p>A. (의정 보고서)에 자주 등장하는 '화승총 사창거리'는 화차들간에도 아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정확한 가리는 알 수 없다. 화차들에 따라 1200야일, 1000야일, 250야일 등 의견이 분분하다.</p> <p>B. 미림[米稈] 창자는 영어로 밀밭도 '미림'이라고 발음한다. 지역에 따라 '적림'로 발음하기도 한다. 당시 네덜란드와 독일은 같은 미실을 썼으며 미림은 대략 7.4킬로미터 정도이다. 문제는 이 단위에 맞춰 계산했나니 화물이 보고서에 쓴 양보다 좀 과장된 듯하다.</p> <p>C. 제사장: 이할에서 앞으로 휘아나온 뜻이다.</p> <p>D. 이물과 그물 = 배의 9야리 쪽이(물)과 배의 뒤쪽(고물)</p> <p>E. 신사계: 배에서 신장이 사용하는 자물 시간</p> <p>F. 미림[米稈]: 길이 측정 단위. 영어의 미를(athom)에 해당하며 미림은 대략 60로 정도이다.</p> <p>G. 10야리 발하는 자물은 당시의 대정청간 관주중이다.</p> <p>H. 당시 제주 복주 노를들 기어간다.</p> <p>I. '복은 행정단위를 나타낸다. 복관은 그 관아를 일하며, 육사(牧使)는 행정지휘권을 의미한다.</p> <p>J. 첫째(初日): 무제의 단위로 12월에는 약 625그월, 따라서 344명(하)는 대략 468그월.</p> <p>K. 현재서 2그월: 대략 1570년 네덜란드인 소케인과 해당시 사용한 것들로 위해서부터 소케인-원복-미림세트로 되어 있는 것일, 1630년 경부터 그 세일이 적세-원복-미림세트로 바뀐.</p> </div>

그림3-16. <A-1>의 각 장의 본문 포맷. 본문(위)과 조선의 기록(아래 왼쪽), 주석 부분(아래 오른쪽)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했다. 주석과 같은 추가 정보 파악에는 불편할 수 있는 구조, 본문을 읽을 때 글의 흐름에 집중하기에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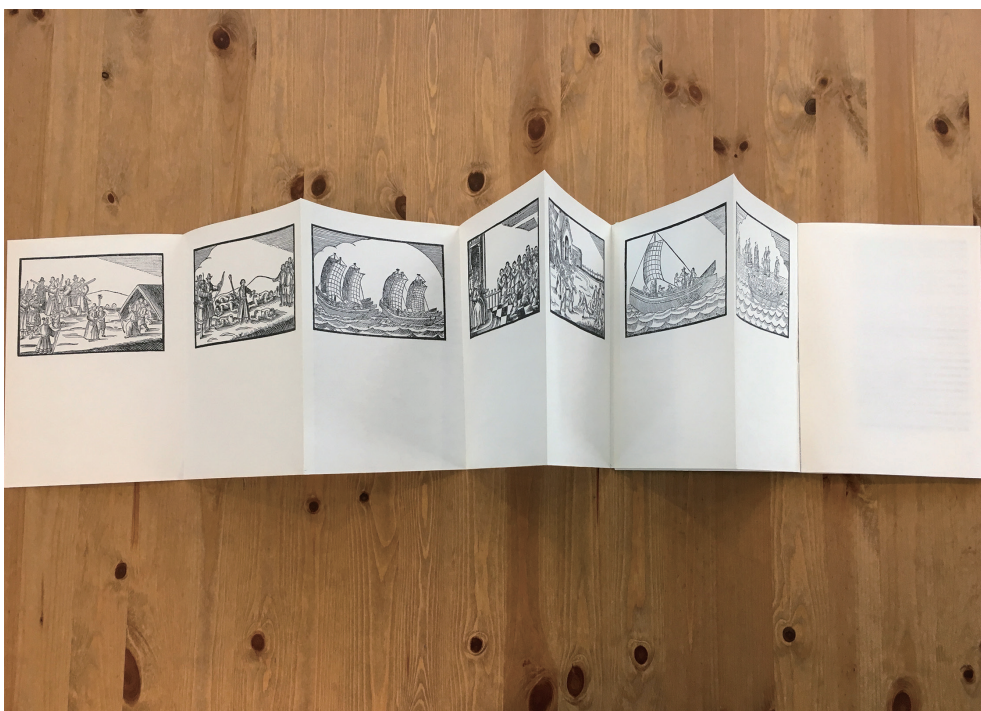


그림3-17. <A-1>의 가제본, 목판화 삽화가 전체에 이어진 상태의 fold-in으로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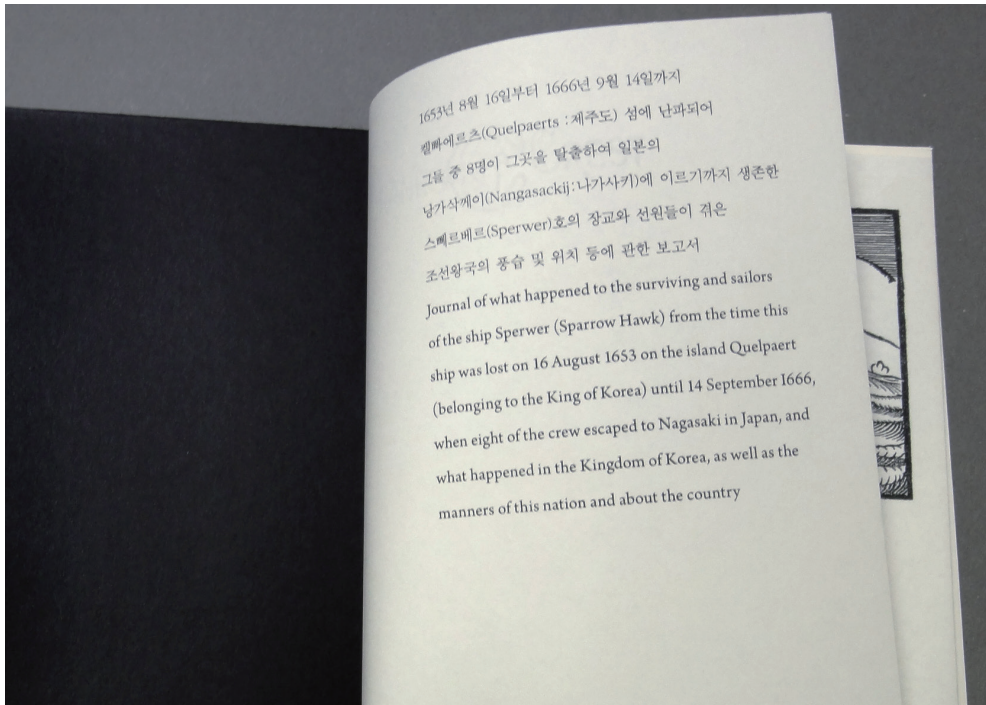


그림3-18. <A-1>의 가제본, 표제지

		<p>다. 정오가 지난 무렵 기병과 보병들의 엄청난 호위를 받으며 출발하였다. 저녁 무렵 우리는 따장(Tadjang:대정)이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p> <p>음식을 약간 먹고 난 후 그들은 우리 모두가 잠을 잘 수 있는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여관이나 숙소라기보다는 마구간 같이 보였다. 우리는 약4마일 정도를 여행하였다.</p> <p>8월 22일</p> <p>아침 무렵 우리는 다시 말을 타고 요새를 향해 가다가 아침을 먹었다. 그곳에는 전함 두 대가 있었다. 오후에 우리는 목관¹(Moggan, 牧官:제주목)²이라는 도시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은 그 섬을 다스리는 목사의 관저가 있는 곳으로, 그들은 주지사를 목소(Mockso:목사)라고 불렀다³.</p> <p>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우리를 관청 앞마당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마실 수 있는 죽⁴을 주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마시는 마지막 음식이며 우리가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무기와 복장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무장한 병사 약 3000명이 중국 혹은 일본식 의상을 입고 서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었다.</p> <p>앞에서 언급한 세 사람과 회계사가 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목사 앞으로 끌려가 땅을 보며 풀어앉아 있게 되었다. 잠시 후, 그는 우리를 관아의 큰 대청 위로 올라오라는 듯이 고향을 치며 손짓을 하였다. 그는 마치 왕처럼 그곳에 앉아서 우리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묻는 것 같았다. 우리는 예전처럼 손짓과 발짓을 해가며 야뵤(일본)에 있는 낭가사께이(나가사키)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p>			
1653	원본 페이지 참조 표시	[6]	flow-line	<p>1. '목'은 행정단위를 나타낸다. 목관은 그 관아를 말하며, 목사(牧使)는 행정지휘관을 의미한다.</p>	
		<p>2. 하멜은 '제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목관'(목관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그 섬의 행정관인 목사의 관저이다.(조선말 목록을 보시오.)</p> <p>3. 하멜은 제주도의 우두머리를 '총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라도에 속한 곳이다.(레드 아드, 147). '목사' 즉 도독을 병치하기 위한 포졸들이 주재하고 있는 고을의 행정 책임자(서열상 감사 밑에 있는 두번째 직위)(Dictionnaire Corean Francais, 244)</p>		<p>4. 물에 쌀을 넣고 끓이는 가장 흔한 음식.(Griffis, 'Corea', 1905, 267)</p>	

본문 일지글은
이 두 그리드
라인(alter)을 따라
아래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림3-19. 〈B-1〉의 본문, 방주, 각주를 모두 사용한 그리드. 상단의 가로기준선(flowline)을 따라 이미지, 부가 자료, 페이지(verso)의 면주인 년도가 위치한다. 본문 왼쪽의 꺾은 괄호(square braket) 속 숫자는 하멜 필사본의 페이지 번호이며, 후틴크(B. Hoetink)의 1920년판을 따랐다.

[illegible]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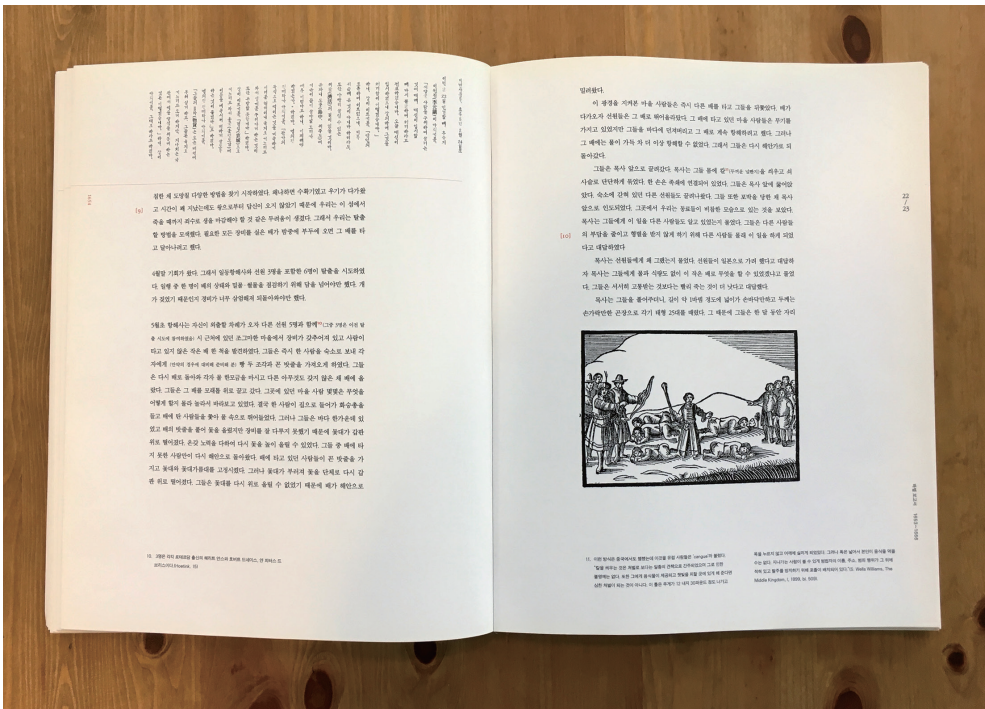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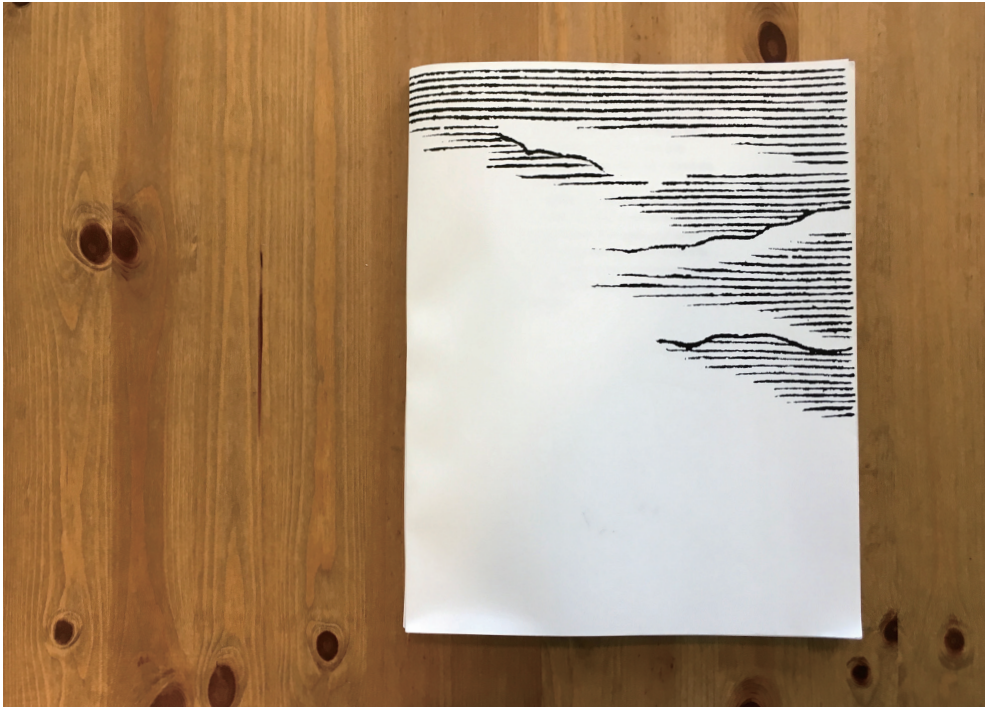


그림3-21. <B-1>의 제본 모습. 표지 이미지는 목판화 삽화의 일부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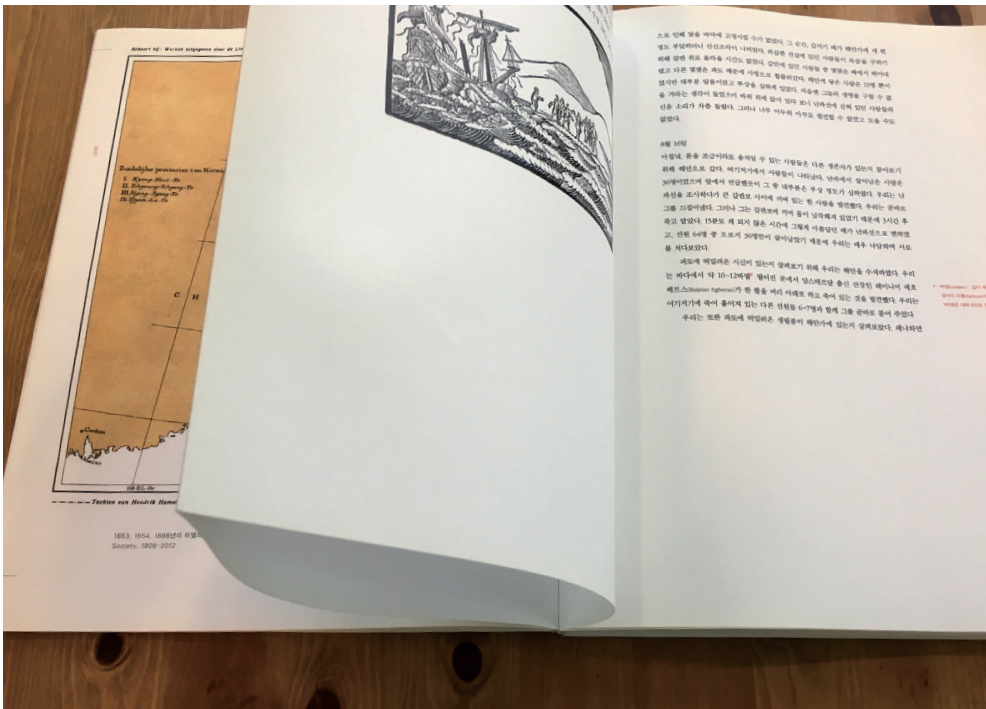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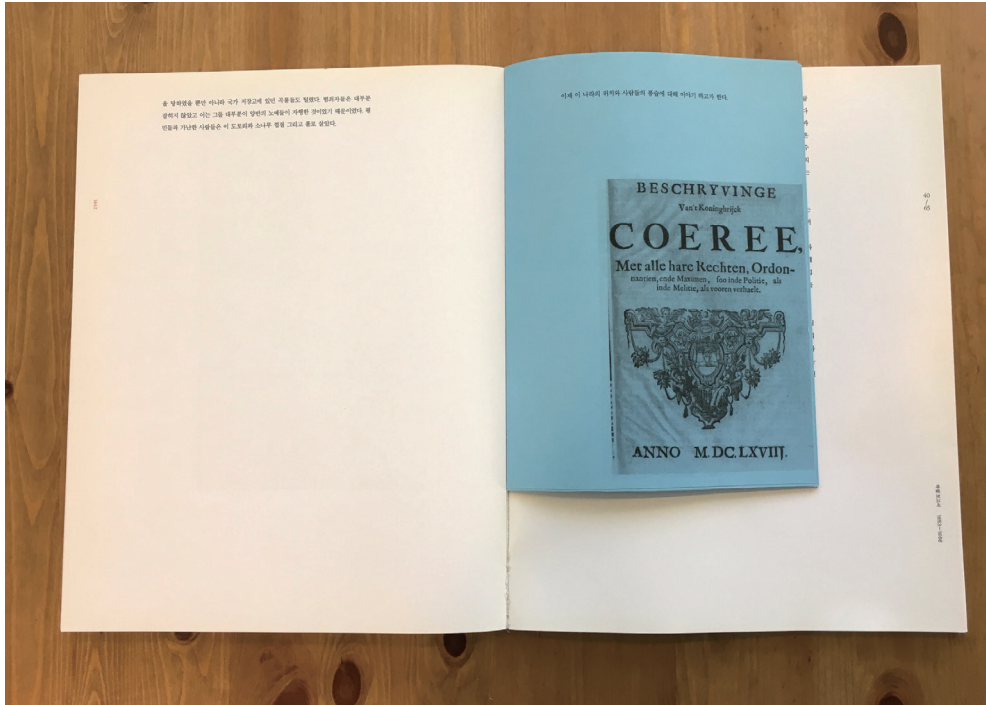


그림3-22. <B-1>의 제본 모습. 조선왕국기는 원본과 동일하게 배치했으나 페이지의 사이즈와 색을 달리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만들어 주었다. 전통 장정인 선장(線裝)은 아니지만, 책배면에서 종이를 한번 접는 프렌치 폴드(frech fold) 제본으로 책을 볼 때에는 동양서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2.2. 출판 기획 중심어 설정

1차 연구 작품은, A. 정서적 읽기(픽션) B. 전문적, 학술적 읽기(논픽션)의 두 가지 방향에서 시작하여, 일반적 장르 특색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의 시작품을 제작했다.

정서적 읽기는 기분전환이나 취미, 오락, 감상을 목적으로 하며, 공개적이거나 그룹에 의한 것이 아닌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방식이며, 해석에 있어 자유롭고, 불특정한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형적인 픽션은 몰입을 유도하는 간결한 구조를 가지므로, 원저작물을 ‘투명하게’ 사용하거나,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를 더하여 ‘장식적’인 차이를 줄 수 있다. 내용과 관련한 시대성과 관습적 요소를 반영하여 내용이나 분위기를 암시하는 ‘배경의 번역’을 고려할 수 있다.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읽기는, 독자의 숙련도(속도, 다독 여부), 해당 분야 지식의 전문성, 반복적 혹은 일회적인 독서 방식의 차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가, 일반상식과 같은 자유로운 목적의 학습인가, 그리고 역시 개인적인 읽기인가, 함께 읽기인가에 따라 다양한 포맷과 단순하거나 복잡한 정보 구조 설정이 가능하다.

‘책의 역사’에서 시각적 번역 체계를 보면, 음독에서 묵독으로 읽기 방식이 바뀌고 묵독이 책과 학습을 긴밀하게 결부시킴으로써, 글이 작은 단위로 나뉘고 구조화되었으며, 각종 참조기능이 발달했다고 지적했다. 헤릿 노르트제이가 ‘단어의 발명’이라고 매우 강조하기도 한 ‘의미 단위의 구분’으로부터, 눈으로 읽는 ‘묵독’이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 지점에 주목하여, 2차 작품을 발전시키고 읽기 방식과 관련된 차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글의 내용 구조와 단위의 조절’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

책의 형태와 지면의 구조는 내용의 기획과 맞추어 호응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연구자가 글의 기본적인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 표기나 구두점 사용과 같은 타이포그래피 조절부터, 단락과 장의 구분, 순서 변경, 소제목 변경, 추가 자료 삽입과 같은 글의 편집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를 통해서, ‘하멜 보고서’를 하멜의 모험담으로서, 혹은 17세기 조선의 재구성으로서 내용을 달리 구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읽기의 다른 목적에 대응하고, 각각의 흐름과 테마의 시각적 번역을 시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① 단위의 조정으로 흐름을 조절하고, ② 강조와 압축으로 단계적 읽기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③ 관련 글과 자료의 제공으로 보다 난이도 있는 전문적 읽기 또는 선택적 읽기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세 가지 방향을 시도했으며, 각각의 경우의 세부 페이지 요소들도 이와 같은 방향을 지지하도록 결정했다.

3.3. 2차 작품 연구 A: 정서적 읽기

2장에서는 책의 시각 요소를 외형, 권두와 권미(prelims and end-pages), 내부 타이포그래피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했^{smsep}, 여기서는 주로 내부 페이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므로, 내용 구성, 포맷(format)과 세부 타이포그래피에 관해서만 서술하였다.

문학적 텍스트로 읽기 위한 A 방향의 에디션은 내용의 정확함과 단순한 규칙성에 중점을 두며, 일반적으로는 북타이포그래피의 가장 관습적이고 보수적인 영역의 규범을 따른다. 〈A-2-1〉은 ‘소설’, ‘원본에 충실하게’를 키워드로, 〈A-2-2〉는 일지(journal)라는 구조의 ‘불규칙하고 임의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페이지의 요소를 조정했다.

〈A-2-1〉

‘하멜 보고서’는 전체 분량이 짧고 가벼운 일기 문학에 가까워, 일반 신국판 판형보다는 좀더 작은 판형이 어울린다. 참고할 만한 소형 판형 가운데 110×180mm¹²⁶로 먼저 판형을 테스트했고, 119×190mm으로 바꾸었는데, 이 사이즈이는 국4절 용지의 인쇄 조건에서 가능한 만큼을 키운 것이다.

하멜 보고서의 내용을 원래는 내용의 분절이 없이 시간 순서대로 이어서 쓴 글이나, 번역과정에서는 주요 사건의 흐름과 시간 흐름을 고려한 장 구분이 들어간다. 간략히 정리하면 [표5]와 같다.

〈A-2-1〉은 사건과 이야기가 연속되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번역본에서 추가된 중간 장 구분과 장제목을 빼고, 본문 중간의 불규칙한 행 분리를 최소화했다. 다만 원래부터 시기별로 내용이 없이 끊어지는, 1660~1662년과

126. 출판된 책을자로 채어 오차가 있다. 이 크기는 111×180mm인 펭귄클래식과 같으며 반세기 넘게 사용하기도 했다. 펭귄클래식의 크기는 로버트 브링허스트, 앞의 책, p.157 참조

꼬레이, 총독과의 대화 부분은 구별해 주었다.

하멜 보고서 등장하는 용어나 지명은, 17세기 조선말의 발음을 네덜란드어로 기록한 것을 다시 역자가 고증을 토대로 최대한 유추하여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을 ‘시오르’, ‘전라도’를 ‘썰라도’ 라고 적고 있다. 대부분의 하멜 보고서는 출판 목적에 따라 이를 지금 현재의 지명으로 바꾸거나 설명을 추가하는데, 〈A-2-1〉, 〈A-2-2〉에서는 번역문 그대로 적고, 로마자 원문 표기도 생략했다. 정서적 읽기를 목적으로 하는 픽션(fiction)의 장르적 속성상 정확한 표기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오히려 철저히 고립된 이방인 입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조선’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번역자 주석과 기타 용어 설명, 여러 한글 번역서에 자주 등장하는 후틴크 연구서의 주석 인용을 모두

1653	항해의 시작 / 난파 / 벨터프레이가 제주로 와서 만나다.
1654	5월말 왕으로부터의 교지 / 서울로 이동하다
1655	청나라 사신 앞에 나가 소란을 일으키다 / 두명이 죽다
1656~	귀양을 가서 일을 하며 지내다.
1659	왕이 서거하다.
1660~	흉년으로 기근이 계속되다

꼬레이(조선왕국기)

1662~	기근이 심하여 일행이 세 곳으로 나뉘어 배치되다
1664	꼬리가 달린 별을 보다
1665	식량과 배를 준비하기 시작
1666	운명을 시험하다 / 일본으로 가다

총독과의 대화
바파비아를 향해

표5. 하멜 보고서의 주요 사건과 흐름

인도 총독과 평의회령의 명령으로 우리는 1653년 6월 18일 스페르베르호를 타고 바타비아에서 포르모사로 항해를 하게 되었다. 이 배에는 꼬르넬리스 궤이사르경이 함께 승선하고 있었는데 포르모사 총독으로 있던 니콜라스 페르뷔룩호경을 대신하여 그 곳 총독으로 부임하러 가는 길이었다.

본문 내 용어의
원어표기, 편집자 주
생략

인도 총독과 평의회령의 명령으로 우리는 1653년 6월 18일 스페르베르(Sperwer)호를 타고 바타비아(Batavia) 자카르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있던 곳. 영어식 이름은 바타비아)에서 포르모사(formosa) 현재의 대만)로 항해를 하게 되었다. 이 배에는 꼬르넬리스 궤이사르(Cornelis caesar) 경이 함께 승선하고 있었는데 포르모사 총독으로 있던 니콜라스 페르뷔룩호(Nicalaes Verburgh)경을 대신하여 그 곳 총독으로 부임하러 가는 길이었다.¹²⁷

본문 내 용어의
원어표기, 편집자 주
사용

그림3-23. 〈A-2-1〉 본문에 포함된 인라인(in-line) 편집자 주, 설명글의 삭제
글쓰기와 독자 사이에 개입된 다른 목소리를 모두 지웠다.

삭제하여, 독자가 스스로 상상하며 이야기에 집중해 읽도록 했다.¹²⁷

〈A-2-2〉

일기 문학처럼 다루어, 날짜별로 페이지를 분리했다. 때문에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글의 양이 불규칙해지고 페이지의 여백이 늘어난다. 좌우페이지

127. 주석을 쓰는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며, 문학적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니콜슨 베이커(Nicholson Baker)의 메자닌(The Mezzanine, 1988)에서 주석은 인물의 머릿속 생각을 겉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와 평행하게 담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일상적인 표면과 달리 생각은 끝없이 펼쳐져서 때로 주석은 페이지를 꽉 채우기도 한다. Alexandra Horowitz, 'Will the E-Book Kill the Footnote?', October 7, 2011, The NYTimes Book Review. 참조

모두 오른쪽으로 치우친 비대칭을 이루는 여백 설정으로 화면에 대비를 강화했다. 페이지 번호도 년단위의 시간 흐름을 표시해 주는 면주(running head/page note), 두꺼운 라인과 그룹으로 묶어서 좌측 하단에 배치했다.

본문용 서체는 ‘쫄빠에르츠’와 같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한글 글리프(glyph) 표현이 가능한 윤명조700, 본명조(source han serif), 2016년 산돌명조NEO1 유니코드를 테스트했고, 9.7pt와 12pt의 두 가지 크기의 본문을 임의로 섞어서 썼다.

이런 방식은 〈A-2-1〉이 중앙 정렬, 좌우페이지 대칭, 안정감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을 따른 것과 대비되며, 불규칙함을 강조한다.

〈A-2-1〉, 〈A-2-2〉는 각각 미색 용지에 검은 글자, 백색 용지에 남색 글자로 인쇄하고, 양장 유선제본과 무선 제본으로 제작하여 본문의 디자인 차이를 극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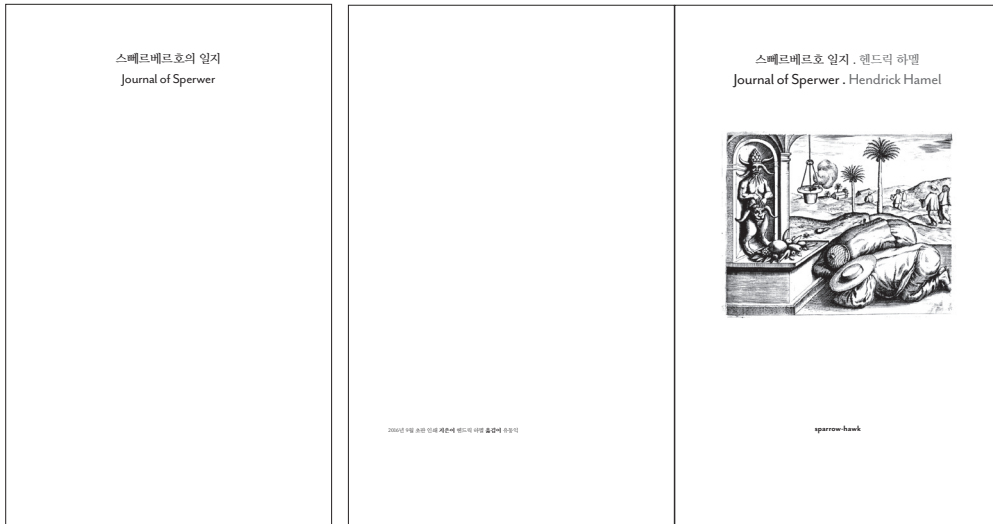


그림3-25. 〈A-2-1〉표제지

<p>추위지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입을 옷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임 목사는 우리 모두에게 가죽으로 만든 양말 한 켤레와 신발을 만들어 주어서 그것으로 추위를 견딜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압수했던 책들을 다시 우리에게 넘겨주었으며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큰 통 가득히 기름을 갖다 주었다.</p> <p>송별연에서 그는 우리를 용송하게 대접했으며 벨트프레이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 하여 우리를 일본으로 보내 주지 못한 점과 같이 본토로 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가 떠나는 것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조정에 가는 즉시 우리를 석방시키거나 가능한 한 빨리 우리를 조정으로 불러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가 배론 호의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선임목사가 부임하자마자 우리는 더 이상 부식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식사는 소금이 들어간 찰과 물이었다.</p> <p>역록 때문에 아직 섬에 남아 있던 전임 목사에게 우리는 불만을 토로하였지만 목사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불만을 없애기 위해 그는 선임목사에게 서신을 보냈고, 우리는 그가 섬에 있는 동안 몇 가지 새로운 부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p>	<p>1654</p> <p>1월 초</p> <p>전임 목사가 떠나자 상황은 악화되었다. 선임목사는 우리에게 할 대신 보리와 보릿가루를 주었으며 부식은 제공되지 않았다. 우리는 부식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보리를 팔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보릿가루 3/4컵에이만 만족해야만 했다. 그러나 매일 여섯 명씩 함께 외출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외기소침한 채 도망칠 다양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수확기였고 우리가 다가고 온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왕으로부터 답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섬에서 죽을 때까지 최후로 생을 마감해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탈출할 방법을 모색했다. 필요한 모든 장비를 실은 배가 밤중에 부두에 오면 그 배를 타고 달아나려고 했다.</p> <p>4월말 기뢰가 왔다. 그래서 일동항해사와 선원 3명을 포함한 6명이 탈출을 시도하였다. 일행 중 한 명이 배의 상태와 밀물-썰물을 점검하기 위해 달을 넘어야만 했다. 개가</p>	<p>1655년(청나라 사신 일행과 마주한 사건)</p> <p>1655년 3월 청나라 사신 일행이 다시 한양으로 왔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사신이 떠나려던 날, 우리 일행 중 알스테르담 출신 일동항해사 헨드릭 안스와 함께 출신 포수 헨드릭 안스 보스)가 장작이 다 떨어진 켄트럼 쉼터에서 숲으로 갔다. 그들은 청나라 사신이 지나가기로 되어 있던 길에 숨어 기다렸다. 수백 명의 기병과 군졸들의 호위를 받으며 사신이 지나가자 그들은 호병선을 뚫고 들어가 사신이 탄 말마려를 붙잡았다. 그들은 조선 의복을 벗고 안에 입고 있던 네덜란드 복장을 보여주었다. 이 일은 엄청난 소동을 불러일으켰다.</p> <p>청나라 사신은 그들에게 누구인지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청나라 사신은 자신이 하룻밤 묵게 될 곳으로 항해사를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청나라 사신은 그를 호위하고 온 병사들에게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왕은 즉시 벨트프레이를 그곳으로 보냈다.</p>	<p>우리를 또한 왕궁으로 끌려가 대신들 앞에 서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들은 이 두 사람이 외출한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처벌하였다. 판결은 각각 곤장 50대씩이었다. 보고를 받은 왕은 우리가 폭풍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지 도둑질이나 혹은 약탈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그 처벌을 승인하지 않았다. 왕은 우리를 속소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다른 지시를 기다리라는 명을 내렸다.</p> <p>항해사가 벨트프레이와 함께 청나라 사신에게 가자. 청나라 사신은 이런저런 일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동안 왕과 대신들은 청나라 사신에게 많은 돈을 뇌물로 주어 청나라 사신이 중국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청나라 사신이 제주도에서 건너낸 총과 물건을 넘기라고 할까와 직장이 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즉시 감옥에 투옥되었다. 얼마 후 그들은 죽었다. 그들은 항해사와 포수였는데 자언사였는지 처벌을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들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p> <p>6월에 청나라 사신이 다시 한양으로 왔을 때 우리</p>
---	---	---	---

그림3-24. 〈A-2-1〉의 본문 흐름, 전형적인 소설 형식의 판면 짜기 사용, 소책터에 중간 제목을 넣고, 내려쓰기(drop)를 사용하여 장표제지의 기능을 대신하는 방식.

<p>네덜란드령 인도 총독 요한 마에즈썬이꺼르(Joan Maetsuijker)와 평의회에 바침</p> <p>1653년 8월 16일부터 1666년 9월 14 일까지 켈빠에르츠(Quelpaerts) 섬에 난파되어 그들 중 8명이 그곳을 탈출하여 일본의 나가사키에 (Nagasackij)에 이르기까지 생존한 스페르베르(Sperwer)호의 장교와 선원들이 겪은 조선 왕국의 풍습 및 위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다.</p>	<p>8월 4일부터 11일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번덕스러운 바람으로 인해 중국 해안과 포르모사 해안 사이를 표류하였다.</p>	<p>8월 11일 우리는 남동쪽으로부터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을 다시 만나게 되어 동북 방향으로 항해했으며, 동북 방향에서 동북 방향으로 진로를 잡았다.</p>
<div>1653</div> <div>12</div>	<div>1653</div> <div>13</div>	

<p>8월 12일에서 14일 비를 동반한 거센 바람이 불어 날씨가 더욱 나빠져. 어떤 때는 항해가 가능했지만 또 어떤 때는 항해를 할 수가 없었다. 바다가 더욱 사나워졌고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나 배가 더욱 더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지만 더 이상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으며, 낯선 해안으로 떠밀려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저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p>	<p>8월 15일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갑판 위에서는 서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았다. 작은 돛조차도 올릴 수 없었다. 배에는 다시 물이 더 많이 새어들기 시작해서 스며들어 오는 물을 피내느라 매우 바빴다. 바다가 너무 사나웠고 때때로 거센 강풍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몰하는 것 외엔 어떤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거센 파도 때문에 배에 많은 물이 들어와서 우리는 침몰할 것이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 지덕 무렵이 되자 파도가 뿔머리를 쳤으며 그로 인해 유라창이 다 날라가고 제1사창(第1倉)이 부러져 나가 이물과 고물을 모두 잃을 위험에 처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 다시 고물을 고정시키려 하였으나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파도를 피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았으며, 알 돛대의 큰 돛을 약간 올리는 것이 좋을 듯했다. 그대야만 위기에 처한 우리의 생명과 배와 회사의 물품을 가능하면 많이 구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파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p>
<div>1653</div> <div>14</div>	<div>1653</div> <div>15</div>

그림3-26. <A-2-2>의 본문 흐름, 크기가 다른 불연속적인 본문 사이즈.

우리들 또한 왕궁으로 끌려가 대신들 앞에 서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들은 이 두 사람이 외출한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처벌하였다. 판결은 각각 곤장 50대씩이었다. 보고를 받던 왕은 우리가 폭풍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지 도둑질이나 혹은 약탈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그 처벌을 승인하지 않았다. 왕은 우리를 속소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다른 지사를 기다리라는 명을 내렸다.

항해사가 벨터프레이와 함께 청나라 사신에게 가져다 청나라 사신은 이런저런 일에 대해 물었다. 그러는 동안 왕과 대신들은 청나라 사신에게 많은 돈을 뇌물로 주어 청나라 사신이 중국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청나라 사신이 제주도에서 건져낸 총과 물건을 넘기라고 할까봐 걱정이 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즉시 감옥에 투옥되었다. 얼마 후 그들은 죽었다. 그들은 항해사와 포수였는데 자연사였는지 처형을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들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6월에 청나라 사신이 다시 한양으로 왔을 때 우리

8월 12일에서 14일

비를 동반한 거센 바람이 불어 날씨가 더욱 나빠져. 어떤 때는 항해가 가능했지만 또 어떤 때는 항해를 할 수가 없었다. 바다가 더욱 사나워졌고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나 배가 더욱 더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지만 더 이상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으며, 낯선 해안으로 떠밀려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저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1653

14

계 해서는 집 뒤편에 닿을 내릴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픽션을 다녔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뱃을 내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 섬 바로 뒤에 큰 암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뱃을 내린 상태로 있어야만 했으며, 바다는 더욱더 거세어졌다.

이 섬은 선장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배 뒤편에 있는 전망대의 창문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섬에 난파되어 배를 잃을 수 있었을 것이다.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나중에 서아 우리가 그 당시 화승총 (Musket) 사정거리¹⁾ 내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날씨가 개고 나서 보니 우리가 있는 곳이 중국 해안 근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완전 무장을 한 중국 군대가 해안을 따라 행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가 그곳에서 좌초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전지 전능한 하나님께 도움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그날 태풍은 가리않기는커녕 더욱 심해졌으며, 우리는 그 다음날까지 그곳에서 정박하였다.

8월 2일

아침 무렵에는 바람이 매우 고요했다. 중국 병사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으며 마치 배고픈 늑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우리도 일어나 밥을 그리고 여러 가지를 대비하기 위해 뱃을 올리고 항해를 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벗어나 수 있었다. 그날 낮과 밤에는 거의 바람이 불지 않았다.

8월 3일

아침네에 우리는 해류에 의해 20마일¹⁾ 더 떠밀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포르모사 해안을 보게 된 우리는 포르모사의 중국 사이로 항로를 정하였는데, 날씨는 좋았고 미풍이 불었다.

작별 보고서 . 1653-1668

5

그림3-27. <A-1>, <A-2-1>과 <A-2-2>의 본문 포맷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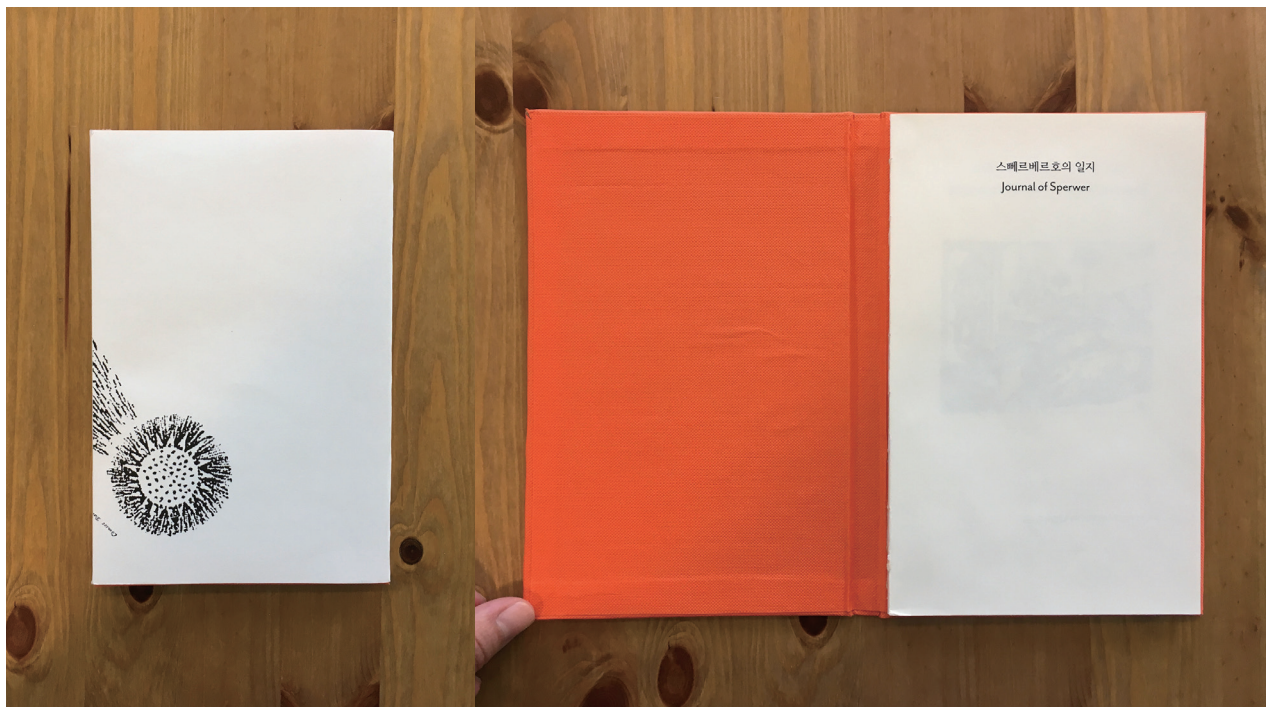


그림3-28. <A-2-1>, 실목음 양장 제본과 자켓을 입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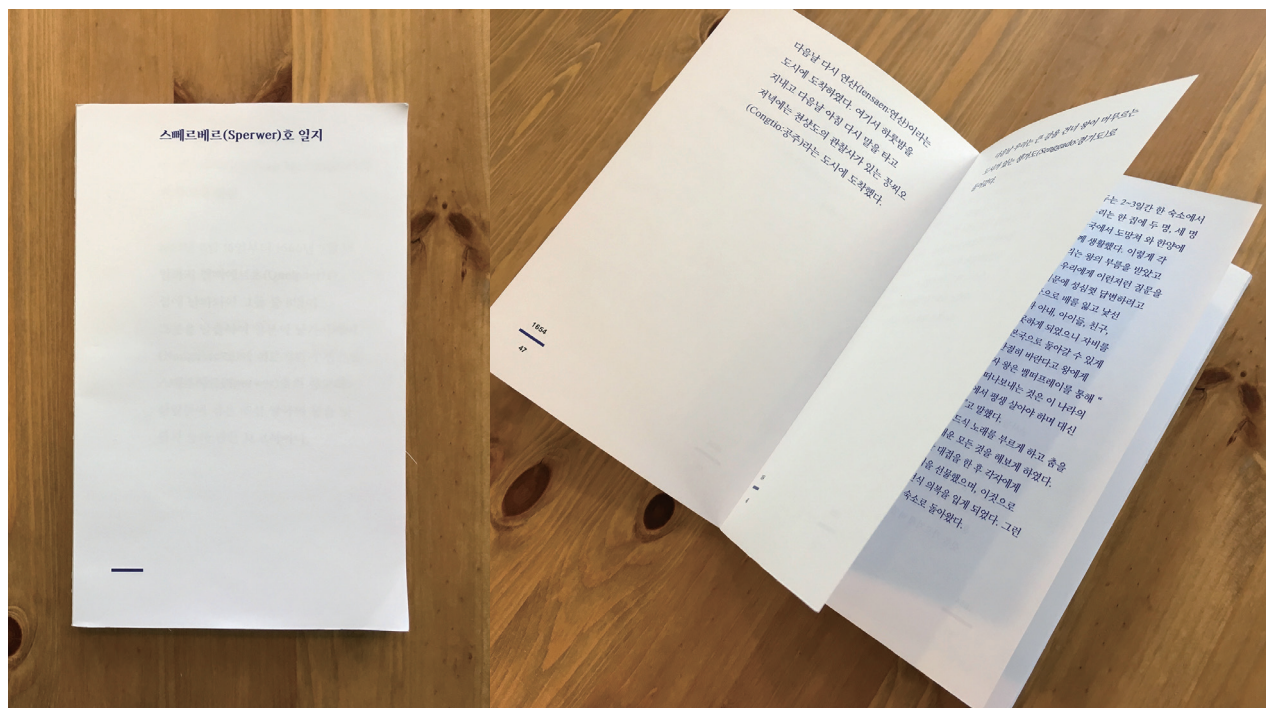


그림3-29. <A-2-2>, 무선 제본 상태

3.4. 2차 작품 연구 B : 전문적·학술적 읽기

논픽션 장르의 글은 일반적으로 ‘제목(=표제, title), 부제(sub title), 전문(lead-in), 발문(quotation), 본문(body copy), 중제(subhead), 편집자와 저자의 주석(note), 참조 자료와 도판 이미지(사진, 일러스트, 다이어그램), 도판설명(caption)’과 같은 여러가지 단위의 텍스트를 선택적으로 구성한다.

매거진처럼 작은 주제의 묶음이거나, 또는 사전식 구성일 경우, 순차적인 읽기가 중요하지 않고, 선택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읽어도 내용 이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목차와 장표제지, 페이지 번호와 면주(page note)또는 런닝헤드, 인덱스, 참고문헌과 같은 일종의 네비게이션 장치들을 이용하여 책 속의 정보들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 속성이 다른 텍스트의 조합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어 잘 통합될 수 있도록, 그 관계성과 위계 구조를 시각적으로 드러내 줄 필요도 있다.

〈B-2-1〉은 하멜 보고서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조선’을 좀더 강조하고, 원문의 구성을 바꾸고 기타 자료의 내용을 줄여 교과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보다는 ‘주제 위주’의 논픽션으로 바꾸고자 했으며, 〈B-2-2〉는 페이지 내의 정보를 더 많이 압축해서 넣도록 본문에 다단 그리드를 쓰고, 주석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장식적 활용성을 고려, 학술적이고 딱딱한 느낌을 완화하여 좀더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B-2-1〉

주석, 조선의 공식기록, 지도 자료와 네덜란드판의 삽화를 한 스프레드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면 정보가 풍부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여러 시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독자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한번에 모두 보여주기가 거추장스러운 정보의 과잉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B-2-1〉는 기본 포맷을 먼저 잡고, 여기에 한 가지씩 부가 텍스트를 더하는 방식을 시도했다. 최종 제작에서 POD를 가정하고 포맷과 그리드를 디자인한 것인데, 정보의 종류를 ‘기본 정보’와 ‘조선의 기록’, ‘참고자료’의 3가지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페이지에 추가하더라도 각각의 레이아웃이 성립하도록, 한가지 포맷으로부터 파생시키는 순서로 작업했다.

기본 정보는, 보고서 본문, 주요 사건의 타임라인, 조선왕국기(coree), 이동 경로이며, 조선의 기록은 디지털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실록과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의 글, 관련 참고자료는 스티히터판의 목판화 일부와 항해 지도, 1664년의 해성에 관한 기록을 사용했다.

기본 포맷은 165×247mm의 변형판으로, 신국판(152×225)보다 약간 크다. 본문의 포맷도 단순한 1단 그리드를 사용하여, 단순하고 집중하여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페이지 내의 구조를 단순화한 대신, 책의 오른쪽 페이지(recto)와 왼쪽 페이지(verso)를 분리하여 사용, 좌측 페이지에는 하멜 보고서 기록을 흘리고, 우측 페이지에는 조선왕국기의 내용을 분해하여 일지 흐름에 관련된 순서로 재배치했다. 왼쪽 페이지는 고정적이며, 오른쪽 페이지는 유동적으로 오른쪽 페이지에 이동경로와 조선의 기록이 추가된다.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마진이 넓은 비대칭구조다. 오른쪽 페이지의 좌측 페이지의 텍스트 단과 타임라인은 책의 처음에서 끝으로 이어지는 수평의 힘을, 반대로 오른쪽 페이지의 조선왕국기 내용은 위아래의 수직 방향의 움직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마진을 다르게 활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좌우페이지의 분리와 수평, 수직방향의 대비를 의도했는데, 부차적으로는 일지(journal)과 조선왕국기의 내용이 ‘주’와 ‘부’의 관계에서 동등하고 평행한 관계로 인식되는 것을 기대했다.

중앙의 붉은 라인은 시각적으로 가로의 흐름을 강조하는 축이며,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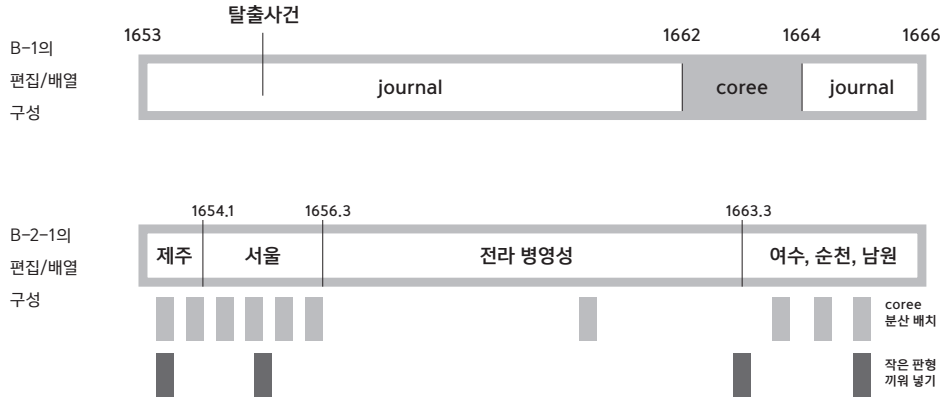


그림3-30. <B-1>과 <B-2-1>의 편집 구성 비교. 조선의 풍습과 위치에 대한 글은 작은 단위로 쪼개어 일지의 흐름과 맞추어 재배열했다.

일지의 시간 흐름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시각물이다. 스프레드의 중앙쪽에 기록의 시점인 연도 표기가 90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된 상태로 들어가며, 이 타임라인의 주요 기록항목을 라인을 따라 배치했다.

오른쪽 페이지는 조선왕국기(coree), 이동 경로, 조선왕조 실록의 자료가 들어가며 왼쪽 페이지의 ‘하멜’과 대비되는 페이지이다. 이동 경로에 관해서는 지도를 통해 지도 위에 그려지는 경로를 보여주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는 17세기 발음(유추 발음)의 당시의 지명이 더 흥미로운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 글 위주의 정보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이동 경로에 세로쓰기에서 사용하는 할주(글줄을 1/2이나 1/3로 나누어 주석을 다는 방식)를 사용했고, 글 줄 사이의 꺾선과 위쪽으로 내어쓰는 단락구분법, ○(권점)을 사용, 책 전체에서 한자문화권의 타이포그래피의 요소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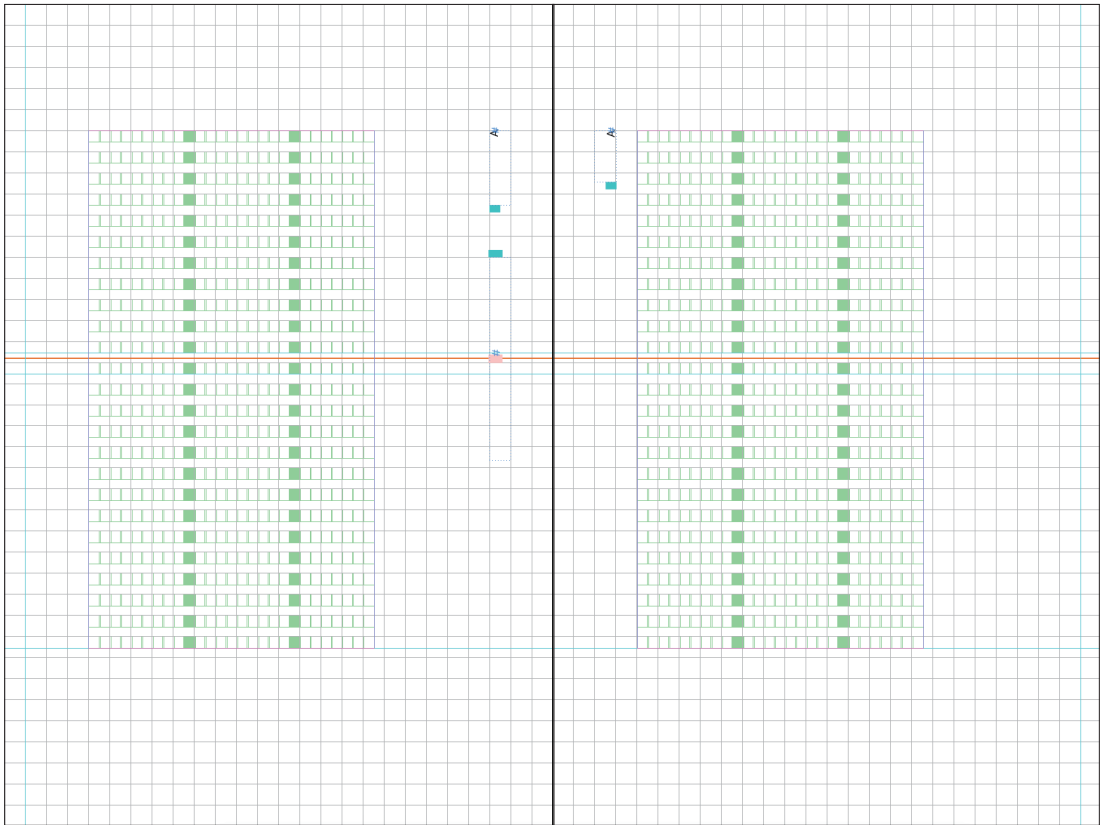


그림3-31. 〈B-2-1〉, 본문 포맷 설정. 레이아웃 격자를 사용하여(윤명조730, 10pt, 100%, 문자간격 -1pt(=자간 -9pt), 줄간격 8pt(=행간 18pt), 문자 27, 줄 25)의 초기 포맷을 잡았다. 본문은 작업 과정에서 본문 서체 크기는 9.7pt로, 판형은 165×247mm로 조정했다.

네덜란드령 인도 총독 요안 마에츠사이꺼르(Joan Maetsuijker)와 평의회에 바침

1653년 8월 16일부터 1666년 9월 14일까지 켈빠에르츠(Quelpaerts) 섬에 난파되어 그들 중 8명이 그곳을 탈출하여 일본의 나가사끼(Nangasackij)에 이르기까지 생존한 스페르베르(Sperwer)호의 장교와 선원들이 겪은 조선 왕국의 풍습 및 위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림3-32. 〈B-2-1〉표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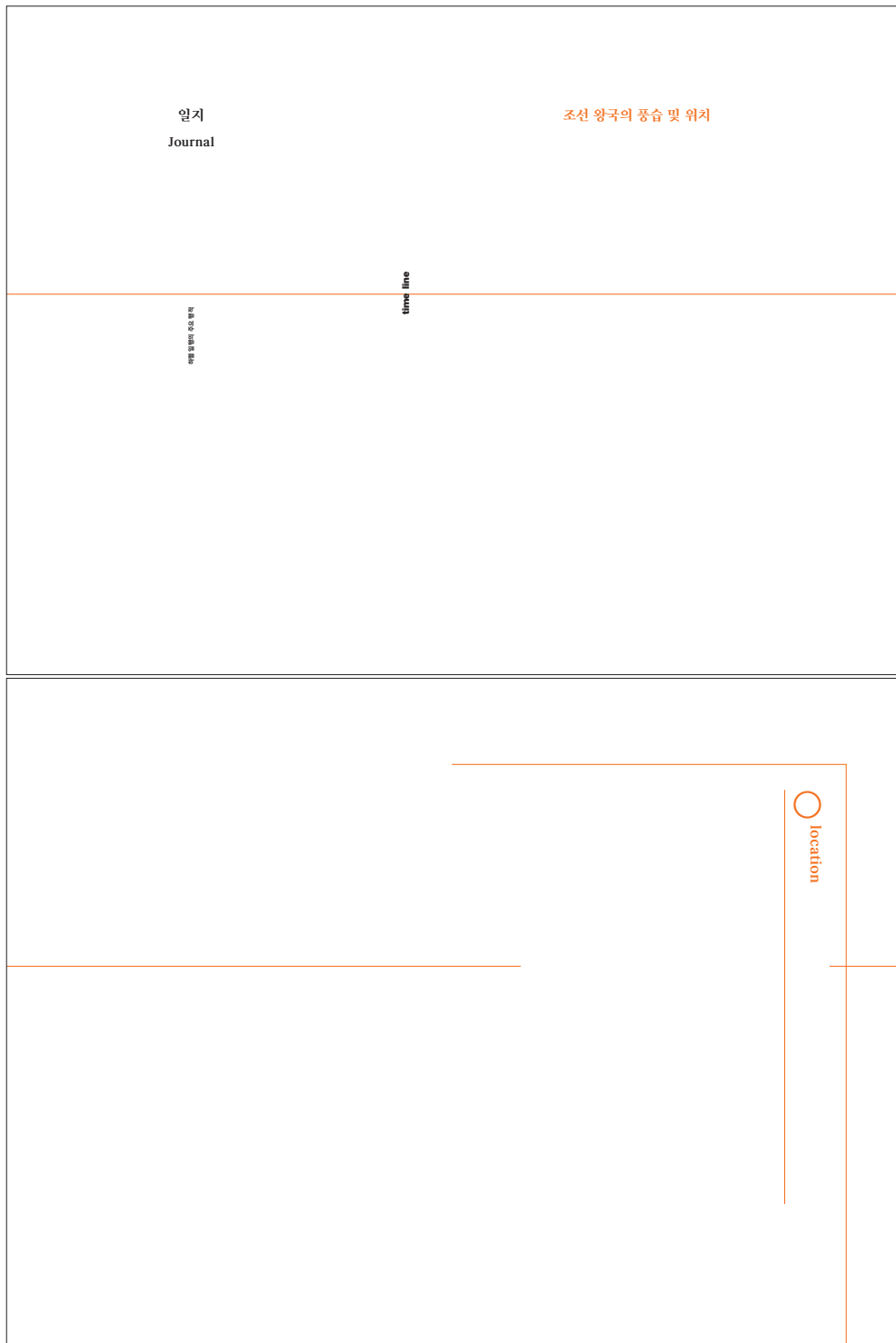


그림3-33. <B-2-1>의 권두. 표제지에 이어져 본문의 구조를 보여주는 페이지, 왼쪽 페이지는 ‘일지’가 오른쪽 페이지는 ‘조선왕국의 풍습 및 위치’가 배치된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일러두기의 역할을 한다.

<p>생각하였다. 거센 파도 때문에 배에 많은 물이 들어와서 우리는 침몰할 것이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p> <p>저녁 무렵이 되자 파도가 뱃머리를 쳤으며 그로 인해 유라창이 다 날라가고 제사장(祭司)이 부러져 나가 이들과 고물을 모두 잃을 위험에 처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 다시 고물을 고정시키려 하였으나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파도를 피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았으며, 앞 돛대의 큰 돛을 막을 줄리는 것이 좋을 듯했다. 그때야만 위기에 처한 우리의 생명과 배와 회사의 물품을 가능하면 많이 구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파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 다음으로 최선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p> <p>갑자기 뒤쪽에서 파도가 덮쳐 앞 돛대의 큰 돛을 올리던 갑판 위의 선원들은 거의 휩쓸려 갈 뻔하였다. 배에 물이 가득 차자 선장은 선원들에게 소리쳤다. "견송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이런 파도가 두 번 정도 더 밀려오면 죽는 일 외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두번째 선시계(船時計)의 두번째 시간함 되었을 때 배를 저다보던 사람이 소리쳤다. "육지다. 육지다!" 우리는 겨우 화승총 사정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어둠과 폭우로 인해 육지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p> <p>우리는 노를 내린 다음 즉시 돛을 내렸다. 그러나 파도와 수심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돛을 바닥에 고정시킬</p>	<p>12</p> <p>13</p>
<p>8월 21일</p> <p>아침에 우두머리는 우리에게 와서 몇 사람을 부르더니, 텐트 안에 있던 우리 물건들을 봉인해야 한다며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였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것들은 즉시 봉인되었다. 우리가 알아 있는 동안 몇 명의 도둑들을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였다. 난파선 물품을 인양할 때 모피, 철제류 그리고 그 외 물품을 훔친 자들이었다. 그들은 훔친 물품들을 등에 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물품을 보관할 것이라는 징표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처벌하였다. 그들은 길이는 약 1마일쯤 되고, 굵기는 보통아이 팔뚝만한 막대기로 각각 30대에서 40대씩 말바닥을 맞았는데, 그 중 몇몇은 말바닥이 떨어져 나갔다.</p> <p>정오 무렵 그들은 우리가 떠나야만 한다고 알렸다.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엔 말이 주어졌고, 부상 때문에 말을 탈 수 없는 사람은 지휘관의 명령으로 들것에 실렸다. 정오가 지난 무렵 기병과 보병들의 일한 호위를 받으며 출발하였다. 저녁 무렵 우리는 따장(Tadjang)이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p> <p>음식을 약간 먹고 난 후 그들은 우리 모두가 잠을 잘 수 있는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여관이나 숙소라기보다는 마구간같이 보였다. 우리는 약 4마일 정도를 여행하였다.</p> <p>8월 22일</p> <p>아침 무렵 우리는 다시 말을 타고 요새를 향해 가다가 아침을 먹었다. 그곳에는 전함 두 대가 있었다. 오후에</p>	<p>1653</p> <p>24</p> <p>26</p>

잡히는 장어와 비슷하며 2월-3월에 잡히는 것은 뱀하릴과 크기가 비슷하거나 약간 작다. 따라서 조선과 일본 그리고 바이가트(Waejikat) 사이에는 수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우리는 북동쪽 바다를 항해하는 조선인 항해사들에게 북동쪽에 육지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는 바다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따장
(Tadjang)
(.guaej)

그림3-34. 〈B-2-1〉 본문 레이아웃, 좌우페이지의 내용은 관련단어가 나오는 지점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연결된다.

<p>저녁 무렵 다시 그들은 우리가 먹을 밥을 조금 가져다 주었다. 그날 오후 항해사는 위도를 측정하여 우리가 북위 33도 32분에 위치한 켈파에르코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p>	22	
<p>8월 19일 그들은 표류물들을 육지로 옮기고 그것들을 췌발에 말리기 위해 바빠 움직였으며, 쇠불이 있는 목재를 붙여 태우느라 분주하였다. 상급 선원들은 지휘관과 그곳에 함께 와 있던 제독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원경을 주었다. 그들은 또한 보도주와 바위 등에서 발견한 화사의 은술잔을 함께 가지고 갔다. 그들은 보도주 맛을 보더니 맛있었던지 아주 많이 마시고 대단히 행복해 하며 우리의 상급 선원들을 다시 텐트로 돌려보냈다. 그 이후 그들은 상급 선원들에게 깊은 우호감을 나타냈으며 은술잔도 되돌려주었다.</p> <p>8월 20일 그들은 쇠불이를 얻기 위해 난파선과 나머지 목재를 분쇄했다. 그러던 중 화약이 발견되어 있던 대로 탄알 두 개가 터졌다. 그러자 지휘관뿐만 아니라 군졸들도 도망을 쳤다. 잠시 후 우리에게 오더니 또 폭발할 것이 있는지 손짓 발짓을 해가며 물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였으며 하루에 두 번씩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p>	1653	<p>우리가 코레이(Coreo)라 부르고 조선인들은 조선국(Tioccock)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는 북위 34.5도와 44도 사이에 위치한다.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길이는 약 140-150마일이며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약 70-75마일이다. 조선인들이 제작한 지도는 해안을 따라 많은 곳을 같이 표록한 카드 형태로 그리고 있다.</p> <p>이 나라는 8개의 도와 360여 개의 고을로 나뉘어 있으며 산에는 성채, 해안가에는 병영이 있다. 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해안으로 들어오기만 아주 위험한데, 해안하면 많은 암초와 바위 그리고 모래를 때문이다. 백성들의 수가 많은 이 나라는 풍년이 들면 남쪽에서 제해되는 곡물과 면화로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다.</p> <p>남동쪽에서 일본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데, 다시 말해 포우산(Pousaen)과 오사카(Osacca) 사이이며 이 두 곳 사이의 거리는 약 25-26마일 정도이다. 두 곳 사이에는 조선 사람들이 취씨암(Suissiam)이라고 부르도 섬이 있는데 그들은 그 섬을 씨맛테(Tymatte)라고도 부른다. 그들 말에 따르면 이 섬은 처음에는 조선국의 땅이었다. 그러나 전쟁 중에 함락을 통해 이 섬은 일본 땅이 되었으며 조선인들은 그 대가로 켈파에르코를 다시 얻게 되었다.</p> <p>서쪽으로는 중국 해안가 혹은 난킨(Nankin)이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중국의 북부 지역 중 하나와 산맥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동쪽에는 큰 바다만 있기 때문에 북쪽 경계를 맞대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의 섬 국가였을 것이다.</p> <p>북쪽의 큰 바다에선 네덜란드와 작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작살이 몸에 꽂혀 있는 고래들을 배변 발견할 수 있다. 또한 12월과 3월 사이에는 엄청난 양의 철아가 잡히는데 12월-1월에 잡히는 것은 네덜란드에서</p>
<p>서로 대화할 수 있었다. 목사는 우리에게 항연과 오락을 배울기도 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았고, 왕의 시신이 도착하는 대로 우리를 다시 아벤으로 보낼 것이냐는 말로 매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었고,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교도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해 주었다.</p>	30	<p>백성들은 잘 잊지 못했다. 세번째는 가장 간단한 시제로 여자들이나 평민들이 사용한다. 그 시제는 매우 쉽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하여, 알려지지 않은 일과 한번호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들을 다른 시제보다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못으로 능숙하면서도 빠르게 쓴다.</p> <p>그들은 옛날에 쓰여진 책과 인쇄된 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임금의 형제 또는 왕자가 항상 그 문서들에 대해 감독을 한다.</p> <p>사본과 활자판은 화제나 다른 제제로 인쇄 전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러 고을과 요새에 보관한다. 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력 및 그와 유사한 책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그들은 목판으로 인쇄하며 종이 각각의 장마다 다른 목판을 사용한다.</p>
<p>10월 29일 정오가 조금 지난 후, 목사는 서기와 일동행해서 그리고 이발사와 조수를 불렀다. 우리가 목사에게 갔을 때, 붉은 색을 띤 긴 수염을 가진 어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목사는 우리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고, 우리는 그가 우리와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목사는 웃기 시작하였는데,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 같았다.</p> <p>우리가 서로 손짓 발짓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때까지 조용히 있던 그 사람은, 서문 네덜란드 말로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다. 우리는 그에게 알스테르담에서 온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중이었는지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이완에서 출발하여 아벤으로 가는 중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로를 막았다고 대답하였다. 5일 동안 계속된 폭풍우로 우리는 이 섬에 표류하게 되었고 지금 큰 관대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p>	1653	<p>순문서전(1933) 8월 무주본 종족을 제국에서 이전하여 자제하여 일하기를, 해 안 적이 제주의 남쪽에 부사제 해안에서 영주장에게 대항한 관공들의 만만 노정으로 하여금 영주를 이끌고 나가 보게 하였으니, 이는 나라 사람의 모로전, 해가 바다 가운데서 천제되어 생겼다가 제국에서, 같이 통치하고 분사 다한다.</p> <p>해 안에는 적대, 북의 마귀 물건을 많이 삼킨다. 해안 94로, 풍신 제국이, 북적이 2만 7천이었다. 해안 눈이 높고 노란 마귀에 수염이 없었으며, 후 구해나를 향고 종사자를 삼킨 것도 있다. 그 후로 길에서 남쪽으로까지 내려오고 풍자하여 남으로 내려갔으며 풍신 제국 속에 들어 다 하여 해는 관이 있었으며 해지는 주를 많이 차지 않았다.</p> <p>영어를 아는 자를 서기, 물기를, 내리는 서양리 그리스도교인만 있다. 다음 아미(亞米)라고 하고, 우라나를 가리켜 물으니 고래라 하고, 문도 가리켜 물으니 고래도라 하고, 물건을 가리켜 물으니 후 제왕(후제왕)이라고 하고 대왕(大왕)이라고도 하였으며, 서쪽을 가리켜 물으니 남단이라 하고, 정통(正統)을 가리켜 물으니 말만이라고도 하고 남가(남가)를 제국이라고도 하였는데, 이어서 가라는 것을 물으니 남가(남가)의 정통(正統)이었다.</p> <p>이제 조항이라는 시제로 읽을 시제라고 하였다. 전에 남단인 백제라는 자가 보고 '괴란 만민'이라 하였으므로, 드디어 백제(백제)에 만민이라 하였는데, 대개 그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다. 후는 풍조를 부는 자가 있었고, 혹은 물줄을 풍을 주는 자가 있었다.</p>

그림3-35. <B-2-1> 본문 레이아웃. 이 지면 디자인은 원래의 하멜의 일지와 조선에 관한 기록만으로 완성된 구조이지만, 관련하여 추려낸 조선의 기록을 추가할 경우, 오른쪽 페이지의 바깥쪽 그리드를 사용한다.

우리는 목관(Moggan)이라는 도시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은 그 섬을 다스리는 목사의 관저가 있는 곳으로, 그들은 주지사를 목소(Mocxo)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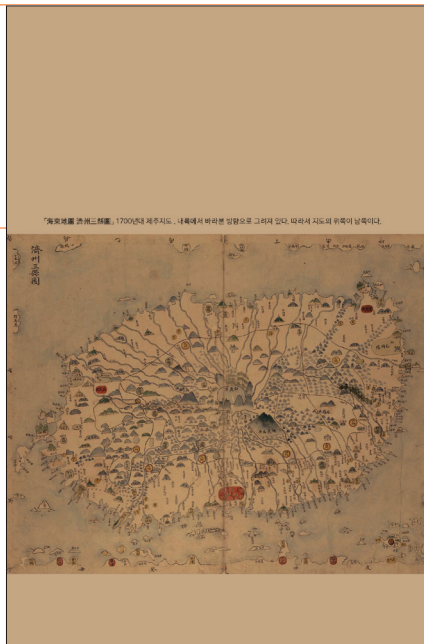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우리를 환영 할마당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마실 수 있는 죽을 주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마시는 마지막 음식이며 우리가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의복과 복장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다음에 무장한 병사 약 3000명이 중국 혹은 일본식 의상을 입고 서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었다.

앞에서 언급한 세 사람과 회계사와 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목사 앞으로 끌려가 땅을 보며 돌아앉아 있게 되었다. 잠시 후, 우리는 자리를 권하여 큰 대청 위로 올라오라는 듯이 고함을 치며 손짓을 하였다. 그는 마치 왕처럼 그곳에 앉아서 우리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묻는 것 같았다. 우리는 예전처럼 손짓과 밭짓을 해가며 야원에 있는 남가사슴이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또한 그 네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목사 앞으로
 끌려가서는 심문을 받았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어떤 집으로 가게 하였는데, 그곳은 왕의

26

1653



양쪽 다리를 묶은 후 작은 의자에 앉는다. 그리고 나서 발등 위와 무릎 사이에 손바닥 너비 만한 줄 두 개로 묶는다. 그 사이를 팔길이만한 곤장으로 때린다. 그 곤장은 참나무나 오리나무로 만들어졌다. 등굴과 앞면은 손가락 두 개만한

호종살록, 호종6년(1955) 4월 기묘조
당초에 남만인(南蠻人) 30여 인이
프류하여 제주에 이르렀으므로 목사
이원진(李元振)이 잡아서 서울로

이 나누어
이 왔을 때에
가 길에서
로 돌려보내
게 놀라
다리게
서 먹지 않고
근심하였으나
지 않았다.

현종 시대는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던 기묘한 시대였다. 지배층인 시대부류들 중 지배층의 상부 작물 기간이란 형식상으로는 존재를 가지고 격렬하게는 반영한 민중 피타제 혁성들은 결국 이라 유제를 갖지 않는 혼란 대대(大變 大政)에 시달렸다. 예수는 영적 한창이던 현종 즉위년 6월 『현종실록』은 『종부대 기록』이 틀어 상한정(上干正)에서 3월부터 국을 들어 기원들에게 제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종 재위 내내 계속된 대가근의 시작이었다. 문신들이 후종의 대에 강화 정책에 반대하

다. 문신에 의해 국이 멸망할까 두려워 의안이

7월 10일에도 흥선이 들었으니 실로
 7월 10년 동안 한 한 해도 거근에 없던
 때가 없었다. 그러나 이듬해 시종되는
 정승(廉休) 대거근에 비하면 약하다.
 홍문 11년(1670. 갑술년) 12년(신해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해년의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기상변화가 가해지면 경기도
 고리(高麗) 등 9읍에서는 풍흉(風凶)이
 극성을 부렸다. 남양(南陽) 한재(韓在)
 풍흉(風凶)가 대현된 것이다. 6월에는
 태풍이 부는 풍해(風害)가 거풍을 부렸다.
 기상변화는 천국의 현상이다. 여기에
 천후(天祐)와 순후(順祐)가 있는 풍흉(風凶)

조선 시대에는 간성감(杆城監)에서 남하의
하늘을 관측해 국왕과 조정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천문 현상에 관한 것이
『성종실록』(成宗實錄)이다.


현종 2년(1661) 거근에 전염병에 대항한다
 현종 2년(1661) 순7월 당초 미변사
 소속이었던 진을정(陳應正)을 사실상의
 상설기구로 독립시킨 것도 이 때부터였다.
 자자를 더 큰 재계가 열리고 전염병을 더 선
 전염병에 앞서는 정국이었다. 국왕 자리는
 비탈림이 되었다.

“몇 년이 지나면 초록한 남을 것”(한글판권, 11년 9월 15일)이라는 문헌(文獻)이 유했었다. 실로 국망의 위기였다. 한을 11년(1670~경술년)~12년(1671년)의 경신 대가근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절편이었다. 안해(單妻)를 두어 수해(水害)의 양해(兩害)를(장자(長子)·숙자(淑子)의 양해(兩害))

한글 4년(1668) 9월에야 함의 전염병이 크게 번졌으며, 소의 전염병도 유행했다. 그래서 한글 4년(1668) 9월 소의 중과가 급증하여 많은 이류(牛乳)를 죽인 것과 "사람을 죽여 내 자"의 질병도 사정사카기로 갈라졌다. 이따가 자빠서 조선에는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이 시기를 소병과 함께 해로라고 하는 한글 9년(1668) 10월 사서도 알량이 되어와, 집나라의 산동(山東) 장(江)나라의 산(山) 장(江)의 발생에 수천 명에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조선도 몇 년째 한류에 휩쓸릴 정도로, 자국이 격하게 병들었다. 사산되는 병들이 창녀에 연 방기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해왔다.

한글 전용을 위하여 한글 전용을 지향하는
 일제(七葉)였다. 여기에 겨울 죽은(冬卒)까지
 팔제(八葉)가 되었다.

이덕일, 『事源史 조선 왕을 말한다』, 제119호
 2009년 6월 21일, 제120호 2009년 6월
 28일, 제121호 2009년 7월 8일,



星度側候 單子
今十一月初七日甲子夜三更替星見於張宿十一度于極高主度
形色旌烈時明吉如滿

그림3-36. <B-2-1> 본문 레이아웃. 그림 79의 상태에서 다시 지도와 당대의 조선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더했다. 본문의 그리드를 그대로 적용하여 축소한 사이즈의 별도 페이지가 삽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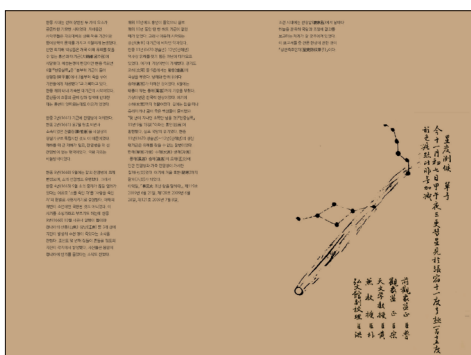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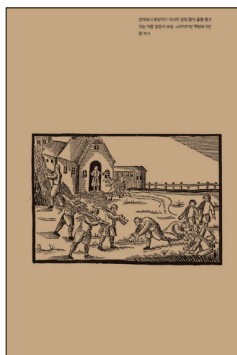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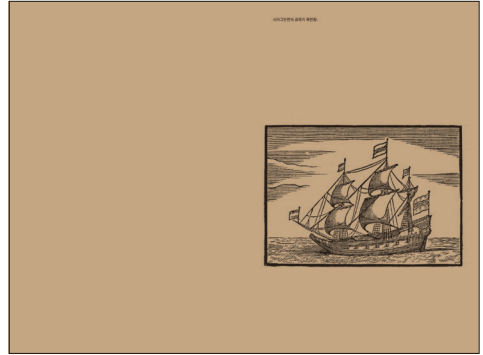


그림3-37. <B-2-1> 책 속의 책. 146.1mm×219mm, 본문은 8페이지 단위로 실목음하며, 그 사이에 4페이지 단위로 쪼개서 4번 추가하거나 분리하여 따로 묶을 수 있다. 4부분은 각각, 지도와 이동지역 정보, 효종과 현종대의 기상 이변과 재해로 인한 기근 문제, 하멜의 초기 네덜란드 판본에 실린 목판화 자료, 그리고 하멜 일행이 탈출한 이후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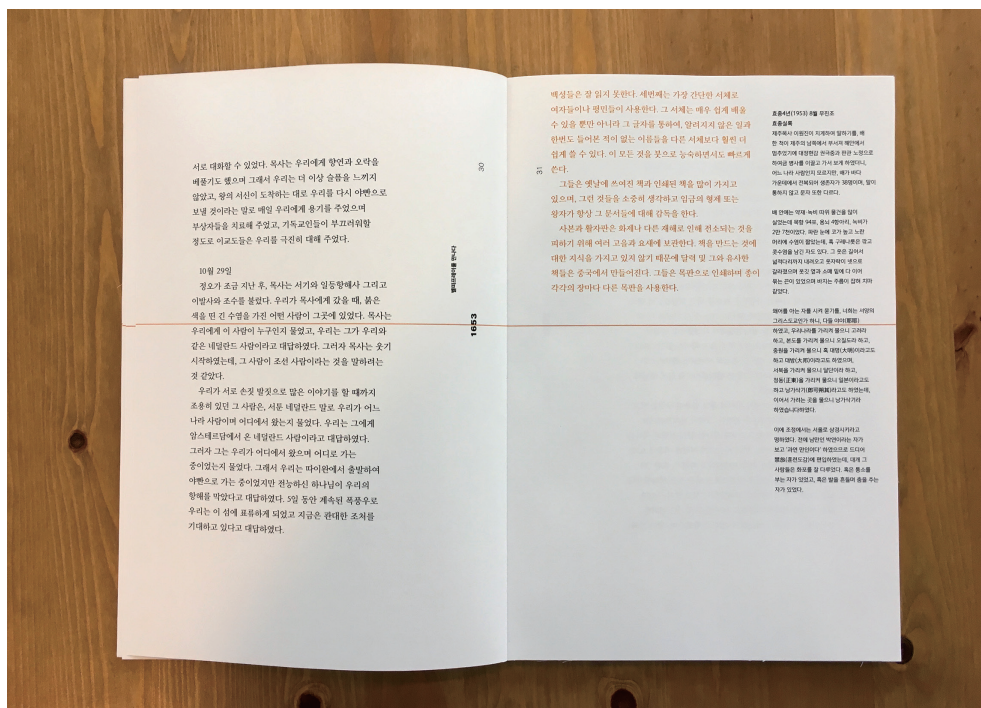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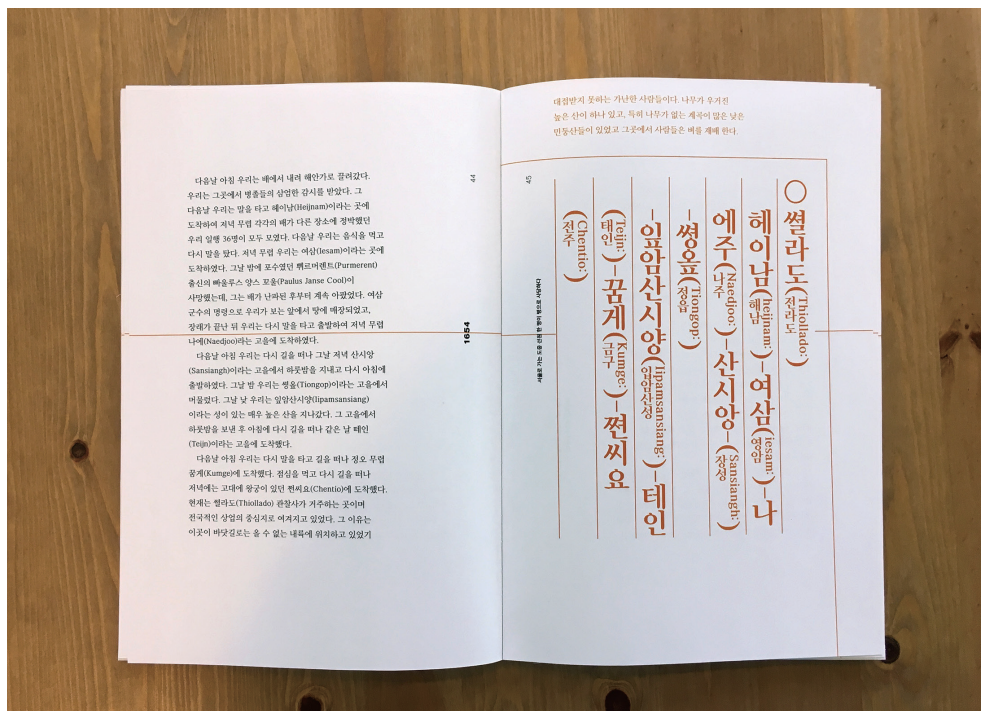


그림3-38. 〈B-2-1〉 제본 상태의 페이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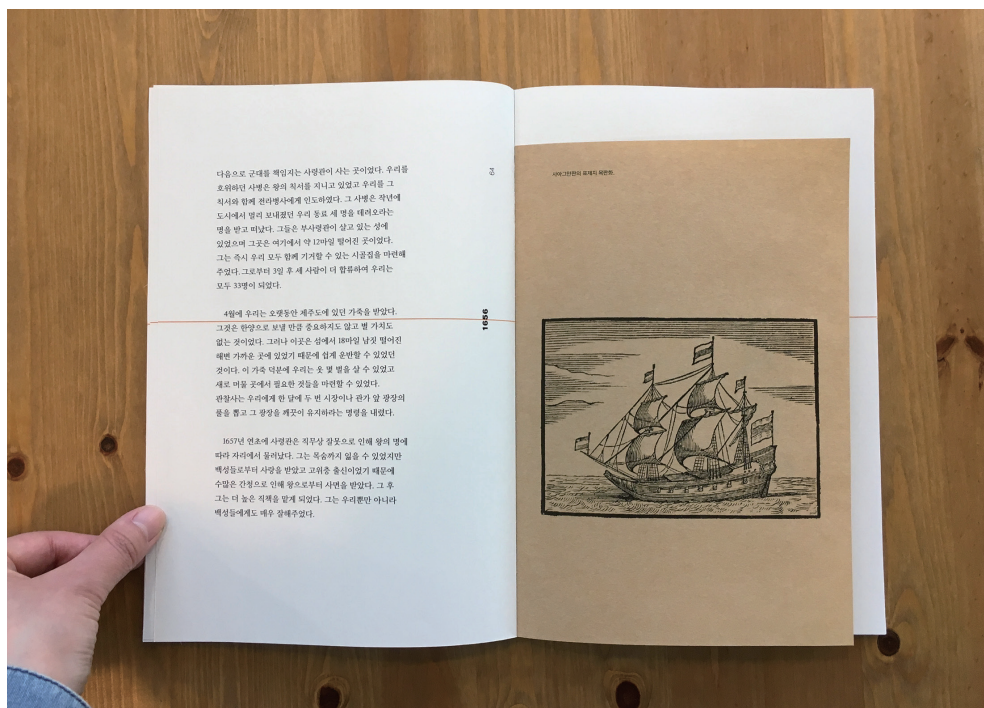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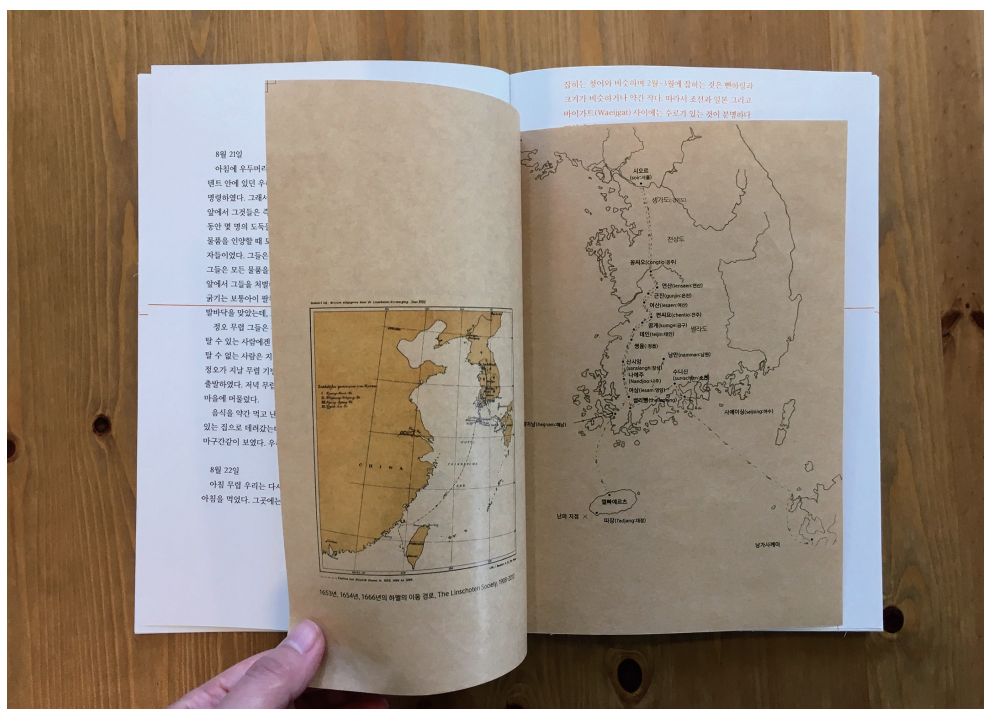


그림3-39. 〈B-2-1〉제본 상태의 페이지들.

〈B-2-2〉

화보 위주의 단행본, 단이 많은 주간지의 지면 구조를 참고하여, 〈B-2-1〉보다 페이지당 정보의 양이 많아 지면에 오래 머물며 검색과 선택적 읽기에 적합한 디자인이 되도록 했다. 작은 고딕 서체(민부리)로 짜서 뽁뽁하고 좁고 긴 텍스트 단은 짧고 빠른 속도감을 가지며, 문학적인 글이 아니라 기사와 같은 정보성 글이라는 느낌을 강화한다. 일지를 보완하는 주석과 조선의 자료를 본문 흐름에 맞추어 배치했고, 조선왕국기를 별도의 섹션으로 구별하지 않고 순서대로 배치하였다.

3단 가운데 안쪽의 1단은 주석과 자료를 넣는 단으로 활용하여, 본문의 뽁뽁함을 완화시켰고, 조선의 기록물들이 모두 음력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서로 참조해서 볼 수 있도록 위쪽 여백에 페이지 번호와 함께 면주(page note)로 처리했다.

주석은 푸른색 큰 글자로 각도와 배치를 불규칙하게 하되, 참조 가능하도록 번호와 방향을 지시하는 선을 과장되게 썼다. 본문에 부족된 글이면서도 독립적 장식의 기능을 강조했다.

그림2-29. 하멜 체류기간의 양력, 음력 달력

1653	효종 4년(계사)	1660	현종 1년(경자)
1654	효종 5년(갑오)	1661	현종 2년(신축)
1655	효종 6년(을미)	1662	현종 3년(임인)
1656	효종 7년(병신)	1663	현종 4년(계묘)
1657	효종 8년(정유)	1664	현종 5년(갑진)
1658	효종 9년(무술)	1665	현종 6년(을사)
1659	효종 10년(기해)	1666	현종 7년(병오)
		1667	현종 8년(정미)

그림3-40. <B-2-2> 포켓. 3단 그리드, 주석의 크기를 키우고 각기 원래의 참조점의 위치를 가리키는 선을 추가, 부속문을 장식적으로 활용했다. 182×245mm(188×257, B5=사육배판 변형), 여백(위26, 아래14, 안쪽16, 바깥쪽16)

[illegible]

134



그림3-42. <B-2-2>, 중철제본 상태의 페이지

3.5. 3차 작품 연구

〈A-3-1〉

〈A-2-1〉에서 판형과 포맷을 재검토하고, 영문 서체에 변화를 주었다.

단행본에 가장 흔한 판형은 신국판(152×225mm)이다. 국내 제지사의 규격 종이는 A계열(국전지, 636×939mm)과 B계열(788×1092mm)의 두 가지를 판매한다. 물론 대부분의 외국 종이도 이 규격을 따르지만, 이와 다른 규격도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복사지의 규격은 국전지를 4번 잘라 8장을 얻은 크기이므로 A4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포맷은 1: $\sqrt{2}$ 의 비례다. 이 비례의 포맷은 중세 시대에도 종종 두단으로 글을 넣어 사용했다. 중세 유럽의 책은 대부분 1:1.5~1:1.25의 비례를 사용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1:1.5의 전통이 이어졌으며, 베네치아의 출판물들은 좀더 좁은 판형인 1:1.87(긴 육각형), 1:1.7(긴 오각형), 1:1.67(3:5) 비례를 두루 사용했다.¹²⁸ 이같은 비례는 황금분할인 1:1.61803에 가깝도록 수많은 필경사와 출판가 타이포그래퍼들이 사용해 온 비례로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판형 119×190mm는 1:1.6의 비례이므로 약간 좁은 편이다.

판형의 비례를 고려하여, [그림3-43]의 아래와 같이 본문글의 비례를 세로로 좁게, 여백의 너비 차이를 더 크게 조정하고 양끝 맞춤으로 본문글을 조절했다. 이 시안은 낱장 페이지로 봤을 때보다 가제본 했을 때 그 특징이 더 잘 보이는데, 다른 무엇보다 지면의 텍스트 영역이 만드는 사각형이 강하게 느껴진다. 사실 한글 본문 단락짜기에서는 왼쪽 맞춤보다는 양끝 맞춤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때문에 여기서도 이 방법을 한번 더 고려해 본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2차 작업의 포맷을 선택하여 완성했다. 위의 비례감과 강한 사각형 본문 덩어리가 선택한 작은 판형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128. 로버트 브링허스트, 앞의 책, p.162

<p>되었다. 어떻게 해서든 섬 뒤편에 닿을 내릴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달을 내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 섬 바로 뒤편에 큰 알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을 내릴 상태로 있어야만 했으며, 바다는 더욱더 거세어졌다.</p>	<p>되었다. 어떻게 해서든 섬 뒤편에 닿을 내릴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달을 내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 섬 바로 뒤편에 큰 알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을 내릴 상태로 있어야만 했으며, 바다는 더욱더 거세어졌다.</p>
<p>이 섬은 전장이 유유히 발전한 것이다. 배 뒤편에 있는 전망대의 창문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섬에 날라되어 배를 잃을 수 있었을 것이다.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우리가 그 당시 화승총 사정거리 내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이 섬은 전장이 유유히 발전한 것이다. 배 뒤편에 있는 전망대의 창문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섬에 날라되어 배를 잃을 수 있었을 것이다.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우리가 그 당시 화승총 사정거리 내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날씨가 개고 나서 보니 우리가 있는 곳이 중국 해안 근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완전 무장을 한 중국 군대가 해안을 따라 행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가 그곳에서 좌초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그날 태풍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심해졌으며, 우리는 그 다음날까지 그곳에서 정박하였다.</p>	<p>날씨가 개고 나서 보니 우리가 있는 곳이 중국 해안 근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완전 무장을 한 중국 군대가 해안을 따라 행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가 그곳에서 좌초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그날 태풍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심해졌으며, 우리는 그 다음날까지 그곳에서 정박하였다.</p>
<p>8월 2일 아침에 바람이 매우 요요했다. 중국 병사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으며 마치 매고픈 늑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달과 밧줄 그리고 여러 가지를 대비하기 위해</p>	<p>8월 2일 아침에 바람이 매우 요요했다. 중국 병사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으며 마치 매고픈 늑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달과 밧줄 그리고 여러 가지를 대비하기 위해</p>
<p>8</p>	<p>8</p>

그림3-43. <A-3-1>포맷과 페이지 형태 짜기. 아래 시안은 여백 위=12.7. 아래=40.528. 안=18. 바깥=18

〈A-2-1〉에서 쓴, Mrs.Eves는 주지아나 리코가 디자인한 서체로 바스커빌의 아내의 이름을 딴 것이다. 섬세한 이음자(ligature) 디자인 때문에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된다.

영문 서체는 표제에 한정적으로 쓰이지만, 17세기라는 시기적 특성, 또는 네덜란드라는 지역적 특징과의 관련성을 선택 기준으로 삼아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르네상스와 바로크 로만과 같은 맥락의 형태적 특징을 가지는 것, 그리고 네덜란드 타이포그래피의 전통을 따르는 현대의 서체가 있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로만체와 블랙레터가 모두 사용되고 있었고 1668년 무렵 네덜란드에서 출판되었을 때는 [그림3-4], [그림3-45]과 같이 블랙레터로 본문을 인쇄했다. 그러나 블랙레터는 국내 독자들에게 다분히 중세로 비쳐질 수 있다. 따라서 로만체 가운데 손글씨 전통의 디테일이 남아 있는 인본주의와 바로크 로만체 종류 가운데 선택해 볼 수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개방적이었으며 실용적인 성격이 강했고, 이러한 전통은 디자인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네덜란드 타이포그래피는 전통의 맥락을 잊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실험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브링허스트는 17세기 바로크 서체를 복원한 예로 ‘모노타이프 가라몽(garamond)’, ‘엘제비르(elzvir)¹²⁹⁾’, ‘라이노타이프

129. 엘제비르(Elzevir)는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네덜란드에서 번성했던 인쇄 가문의 이름이다. 네덜란드 타이포그래피의 영향을 푸르니에(Pierre-Simon Fournier)는 ‘네덜란드 취향’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le goût Hollandois’라고 일컬었는데, 그 영향을 받은 서체들은 세로폭이 좁고 엑스하이트(x-height)가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불어권에서 올드스타일(old style)에 해당하는 활자 카테고리의 이름으로 엘제비르(Elzévir)를 쓰는 것도 네덜란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Lettres françaises : spécimen de caractères français』, ouvrage réalisé sous la direction de Jean-François Porchez & composé par Philippe Millot. Association typographique internationale, 1998. 참조.) Jan Middendorp는 현대의 네덜란드 타입디자인을 개괄하며 인쇄술의 초기부터 지금의 디자인 실천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강조했다. 16세기 17세기 편지커터공의 작업은 브람 드 도스(Bram de Does), 헤라르트 뢰어르(Gerard Unger), 프레드 스메이어스(Fred Smeijers)등으로 이어진다.(『Dutch type』, 010 Publishers, 2004 참조.)

abefoprstabefoprst
abefoprstabefoprst

Adobe Jenson Pro
Regular

abefoprstabefoprst
abefoprstabefoprst

FF Quadraat

abefoprstabefoprst
abefoprstabefoprst

Arnhem Display Pro

스페르베르호의 일지
Journal of Sperwer, Hendrick Hamel

윤명조 740
+ Adobe Jenson Pro

스페르베르호의 일지
Journal of Sperwer, Hendrick Hamel

윤명조 740
+ Quadraat Regular

스페르베르호의 일지
Journal of Sperwer, Hendrick Hamel

Sandoll 명조Neo1유니코드
+ Arnhem Display P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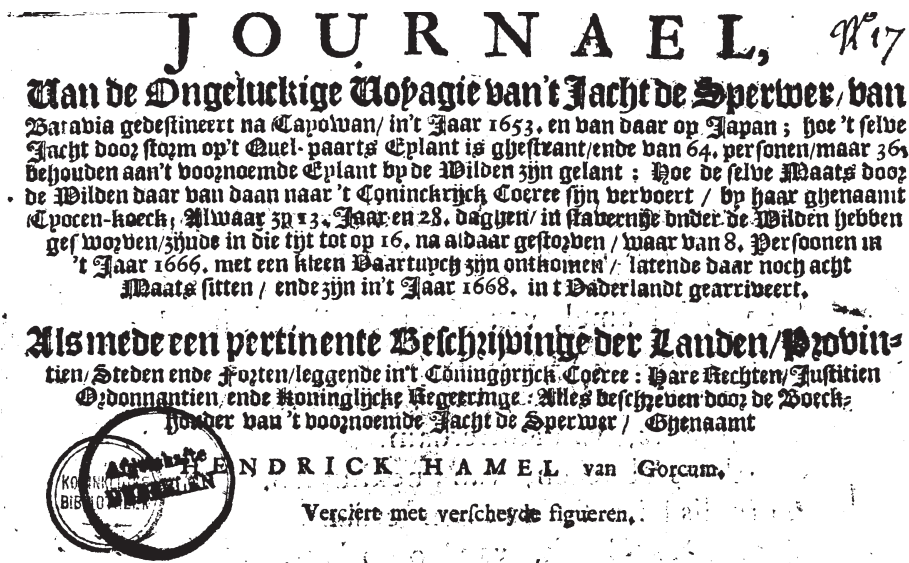


그림3-45. 하멜 보고서 스타히터 판의 표제지, 본문 상태를 보면, 블랙레터인 텍스트와 로만체를 섞어서 썼다. 제목은 전형적인 방식으로 로만체 대문자를 넓은 자간으로 썼다. 로만체에서는 쉼표(콜마)를, 블랙레터 부분은 쉼표 대신 버굴(/)을 사용했으며, 문장 또는 절 사이에 콜론(:)과 세미콜론(;)을 사용했다. 낱말로 끊어지는 부분은 단락으로 구별하지 않았고, 중간중간 빈 공간 좀더 벌어져 띄어쓰기한 것처럼 되어 있다. digitized by google

장송(jenson), ‘어도브 캐슬론(caslon)’을 꼽았는데,¹³⁰ 여기서는 이와 근접한 것으로 어도브 장송(adobe Jenson)과 정확히 바로크 서체는 아니지만, 네덜란드 디자이너의 서체인 콰드라트(Quadraat)과 아른헴(Arnhem)을 선택하고 적용해 보았다.

서체 선택은 서체 한 가지의 특징이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쓰게 되는 다른 서체와의 어울림도 매우 중요하다. 따로 썼을 때는 좋아 보일 지라도 함께 썼을 때 부적절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 가지 조합을 시도하되, 기획 방향에 맞는가와 조형적으로 안정적인가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130. 로버트 브링허스트, 앞의 책, p.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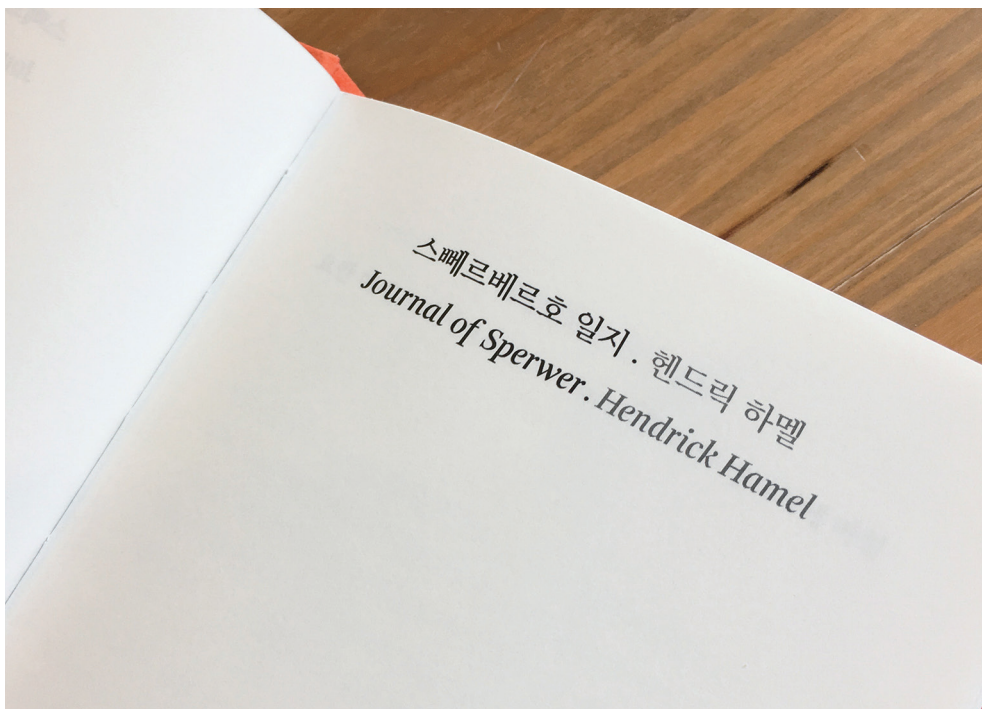


그림3-46. 〈A-3-1〉의 표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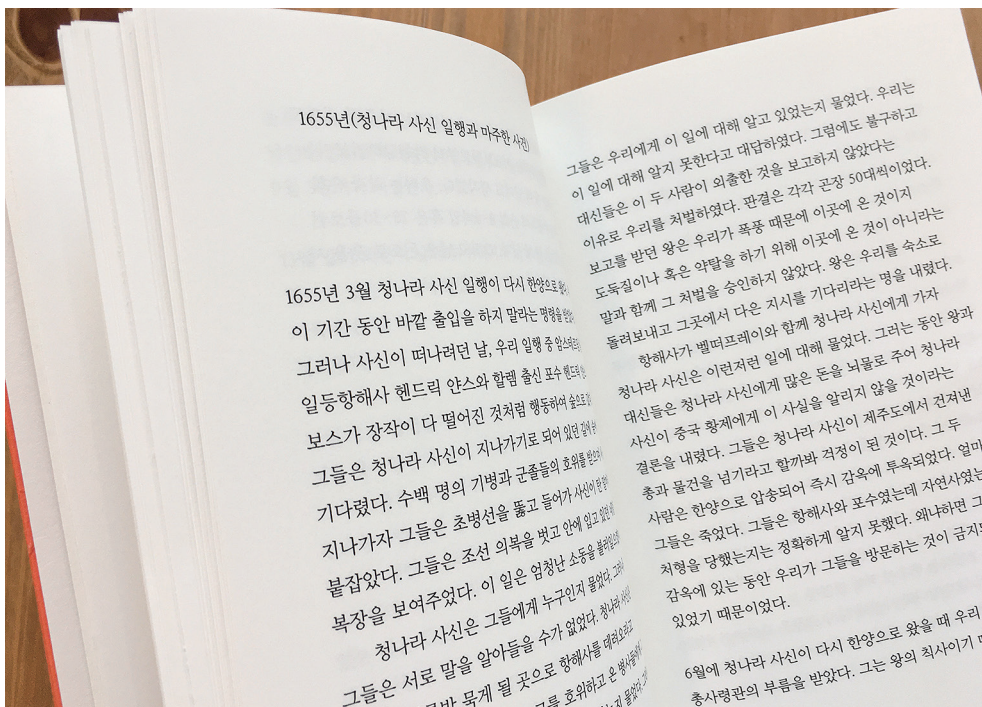


그림3-47. 〈A-3-1〉 양장 제본 상태의 본문.

〈A-3-2〉

〈A-2-2〉에서 낱자별로 끊어지며 불규칙하게 쓰인 글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두 가지 크기의 본문 단락 스타일을 섞어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추가로 단락의 폭에도 변형을 주었다. 글 영역에 6단 그리드를 설정하여 단폭을 1/6 단위로 줄이거나 늘렸다. 글의 흐름에 대한 시각적 은유와 리듬감을 부여하고자 시도한 것인데, 실제로 글줄의 길이에 차이를 주면, 글을 읽을 때 더 직접적으로 속도감에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설정상 지면에 길고 불규칙한 글덩어리와 흰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문 좌측에 있던 페이지 번호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꾸고, 시각적으로 정돈된 부분이 스프레드의 좌측 상단에 오도록 했다. 장을 분리하여 장표제지를 만들었으며, 단의 폭만큼 다양한 길이의 직선을 임의로 배치하여 관련성을 주었다.

<p>스페르베르(Sperwer)호의 일지 Journal of Sperwer</p> <p>Hendrick Hamel</p>		<p>네덜란드령 인도 총독 요안 마에츠쾨이꺼르(Joan Maetsuijker)와 평의회에 바침</p> <p>1653년 8월 16일부터 1666년 9월 14일까지 켈뻬에르츠(Quelpaerts) 섬에 난파되어 그들 중 8명이 그곳을 탈출하여 일본의 나가사키에 (Nangasackij)에 이르기까지 생존한 스페르베르(Sperwer)호의 장교와 선원들이 겪은 조선 왕국의 풍습 및 위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다.</p>
---	--	---

그림3-48. 〈A-3-2〉 표제지













<p>항해의 시작</p>  <p>1653 6</p>	<p>1655년(청나라 사신 일행과 마주한 사건)</p>    <p>1655 67</p>	<p>플레이</p>    <p>1655 91</p>
	<p>운명을 시험하다</p>   <p>1656 122</p>	<p>남가사케이 총독과의 대화</p>    <p>1656 146</p>

그림3-49. 〈A-3-2〉 장표제지.

<p>8월 4일(주) 11일</p> <p>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변덕스러운 바람으로 인해 중국 해안과 포르모사 해안 사이를 표류하였다.</p> <p>1853 16</p>	<p>8월 11일</p> <p>우리는 남동쪽으로부터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을 다시 만나게 되어 동북 방향으로 항해했으며, 동북 방향에서 동쪽 방향으로 진로를 잡았다.</p> <p>1853 17</p>	<p>8월 12일</p> <p>비를 동반한 거센 바람이 불어 날씨가 더욱 나빠져, 어떤 때는 항해가 가능했지만 또 어떤 때는 항해를 할 수가 없었다. 바다가 더욱 사나워졌고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나 배가 더욱 더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지만 더 이상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으며, 낯선 해안으로 떠밀려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저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p> <p>1853 18</p>	<p>8월 13일</p> <p>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갑판 위에서는 서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았다. 작은 돛조차도 올릴 수 없었다. 배에는 다시 물이 더 많이 새어들기 시작해서 스며들어 오는 물을 퍼내느라 매우 바빴다. 바다가 너무 사나웠고 때때로 거센 강풍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몰하는 것 외엔 어떤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거센 파도 때문에 배에 많은 물이 들어와서 우리는 침몰할 것이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이 되자 파도가 멧머리를 쳤으며 그로 인해 우리장이 다 날라가고 제사장</p> <p>1853 19</p>
<p>(斜風)이 부러져 나가 어물과 고물을 모두 잃을 위험에 처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 다시 고물을 고정시키려 하였으나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파도를 피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았으며, 앞 돛대의 큰 돛을 약간 올리려는 것이 좋은 듯했다. 그레이트만 위기에 처한 우리의 생명과 배와 회사의 물품을 가능하면 많이 구할 수</p> <p>1853 20</p>	<p>있고 어마어마한 파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을 다음으로 최선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뒤쪽에서 파도가 덮쳐 앞 돛대의 큰 돛을 올리던 갑판 위의 선원들은 거의 휩쓸려 갈 뻔하였다. 배에 물이 가득 차자 선장은 선원들에게 소리쳤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이런 파도가 두 번 정도 더 밀려오면 죽는 일 외에는 더 이상 건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두번째</p> <p>1853 21</p>	<p>선시계(船時計)의 두번째 시간쯤 되었을 때 밖을 쳐다보면 사람이 소리쳤다. "육지다. 육지다!" 우리는 겨우 화승총 사정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어둠과 폭우로 인해 육지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p> <p>1853 22</p>	<p>우리는 노를 내린 다음 즉시 닻을 내렸다. 그러나 파도와 수심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닻을 바닥에 고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배가 해안가에 세 번 정도 부딪히더니 산신조각이 나 버렸다.</p> <p>1853 23</p>

그림-50. 〈A-3-2〉 본문 흐름

<p>하갈판 신실에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갑판 위로 올라올 시간도 없었다. 갑판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배에서 뛰어내렸고 다른 몇몇은 파도 때문에 사방으로 휩쓸려 갔다. 해안에 닿은 사람은 15명뿐이었지만 대부분 알몸이었고 부상을 심하게 입었다. 처음엔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바위 위에 앉아 있다 보니 난파선에 갇혀 있던 사람들의 신을 소리가 차츰 들렸다. 그러나 너무 어두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고 도울 수도 없었다.</p> <div>1853 24</div>	<p>4월 10일 아침녘,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생존자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해안으로 갔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난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36명이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중 대부분은 부상 정도가 심하였다. 우리는 난파선을 조사하다가 큰 갑판보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우리는 곧바로 그를 끄집어냈다. 그러나 그는 갑판보에 끼어 몸이 납작해져 있었기 때문에 341차 큰 죽고 말았다.</p> <div>1853 25</div>	<p>15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아픔담던 배가 난파선으로 변화했고, 선원 64명 중 오로지 36명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낙담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p> <div>1853 26</div>	<p>파도에 떠밀려온 신선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해안을 수색하였다. 우리는 바다에서 약 10-12마일 떨어진 곳에서 알스테르담 출신 선장인 레이니어 에르베르츠(Reinier Egberse)가 한 뿔을 머리 아래로 하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여기저기에 죽어 흩어져 있는 다른 선원들 6-7명과 함께 그를 곧바로 묻어 주었다.</p> <p>우리는 또한 파도에 떠밀려온 생필품이 해안가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해14라면 약원후로 인해 요리사가 요리를 할 수 없어 지난 2-3일 동안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겨우 밀가루 한 봉지와 고기와 베이컨이 조금 들어 있는 상자 하나 그리고 모도주 한 상자를 발견하였다. 모도주는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것이었다.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불이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이 무인도라고 생각하였다. 절로 무덤 비바람이 찾아들었다. 우리는 모두 비를 피하기 위해 돌을 몇 개 이용하여 텐트를 만들었다.</p> <div>1853 27</div>
<p>4월 17일 우리는 맥이 빠진 채로 모여 앉아 사람들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는 일본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랐는데, 일본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미 보트와 사장을 바치는 나무는 산산조각 나 있어 그것들로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p> <p>정오가 조금 안 되어, 텐트에서 대로 사정거리쯤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그에게 손짓을 했지만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달아나 버렸다. 정오가 조금 지난 후, 우리가 머무는 텐트에서 화승총 사정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세 사람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과 손짓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결국 우리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다가가 우리가 결심해 필요로 하던 불을 마침내 얻었다.</p> <div>1853 28</div>	<p>그들은 중국식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말총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혹시 우리가 해적이나 추방된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난파된 게 아닌지 무척 두려웠다.</p> <p>저녁 무렵 무장한 사람들 100여 명이 텐트로 다가왔다. 그들은 우리 인원수를 세고 나타나 밤새도록 텐트 주위에서 우리를 감시하였다.</p> <div>1853 29</div>	<p>4월 18일 우리는 큰 텐트를 만드느라 바빴다. 경오 무렵 1000-2000원 명에 이르는 기병과 병사들이 우리 주위로 다가왔다. 그들은 텐트 주위에 군사들을 배치시켰다. 그런 후 서기, 일등 항해사, 아등갑판장, 사관을 텐트에서 끌어내 화승총 사정거리에 떨어져 있던 지휘관에게 데려갔다.</p> <p>그들 모두의 목에 쇠사슬을 감았는데, 그 쇠사슬 아래엔 큰 종이 매달려 있었다. 마치 네덜란드에서 양의 목에 매다는 종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이 바닥을 향한 채 엎드린 자세로 사령관 앞에 내팽개쳐졌다.</p> <p>그러자 병사들은 청천벽력 같은 큰소리를 내걸었다. 텐트 주위와 안에 남아 있던 우리 동료들은 그 정면과 소리를 듣고선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상급 선원들이 우리보다 먼저 끌려갔으니 우리도 곧 끌려갈 것이다."</p> <p>그들은 잠시 동안 그렇게 있을 후, 우리</p> <div>1853 30</div>	<p>선원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지휘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손짓 발짓을 해가며 야반에 있는 낭가사메이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려 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사였다. 왜냐하면 서로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그들은 야반을 왜 나라(leenare) 혹은 이어퐁(lepon)으로 불렀기 때문에 야반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지휘관은 우리에게 술 한잔씩을 따르게 하고선 우리를 다시 텐트로 되돌려 보냈다.</p> <p>우리를 호위하던 군사들은 우리 텐트에 먹을 것이 있는지 확인하러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위에서 언급한 고기와 베이컨뿐이라는 것을 알고 곧장 이것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였다.</p> <p>한 시간쯤 지난 후, 그들은 우리에게 활죽을 조금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갑자기 많이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p> <div>1853 31</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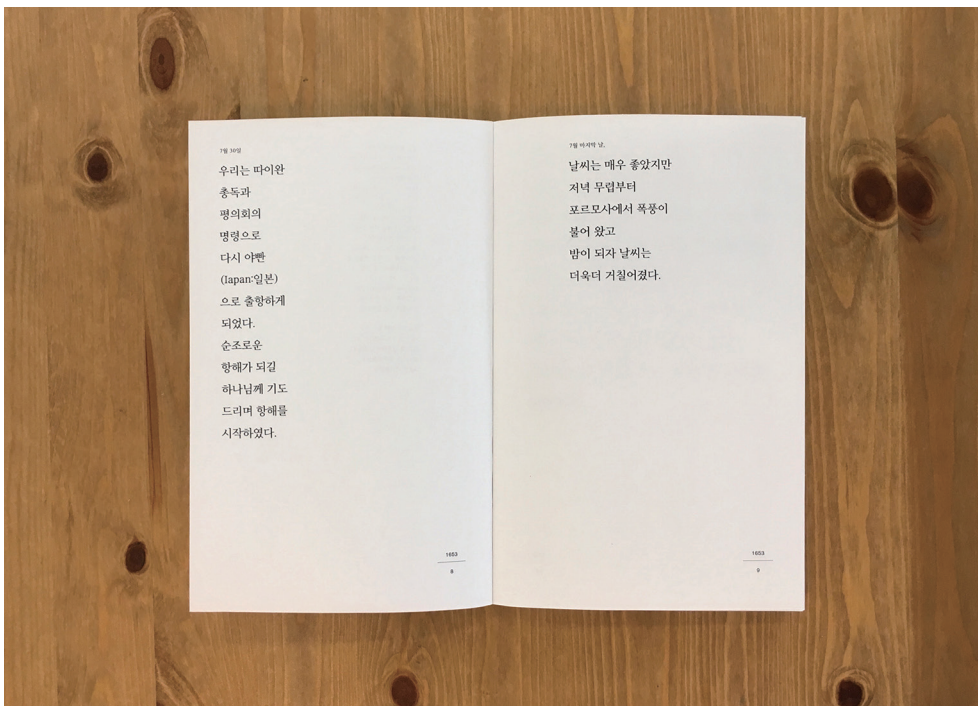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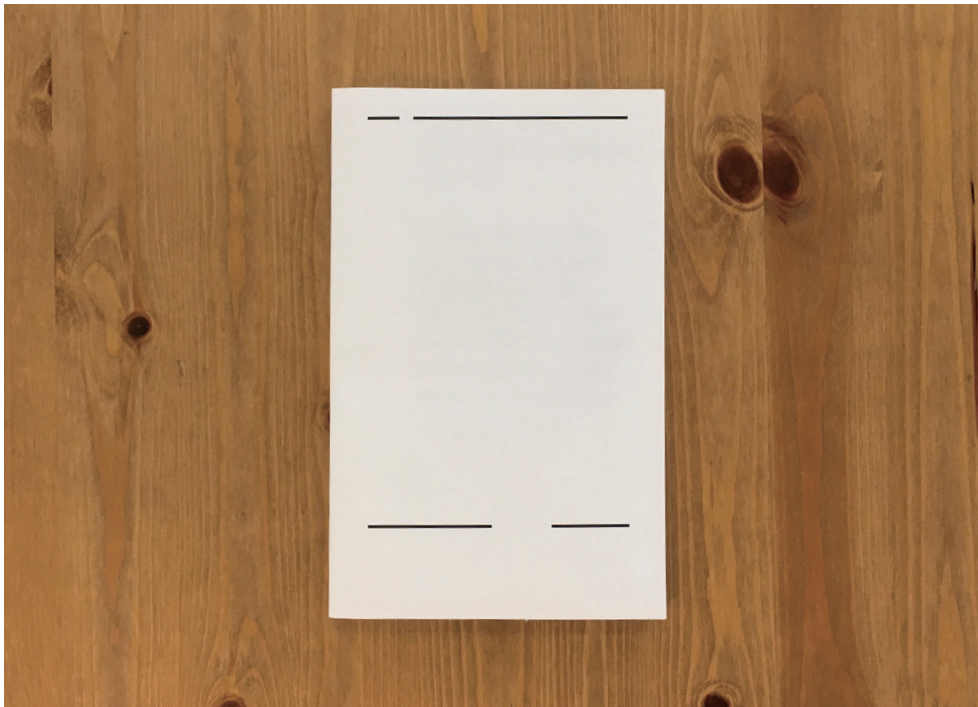


그림3-51. 〈A-3-2〉 제본 상태의 표지와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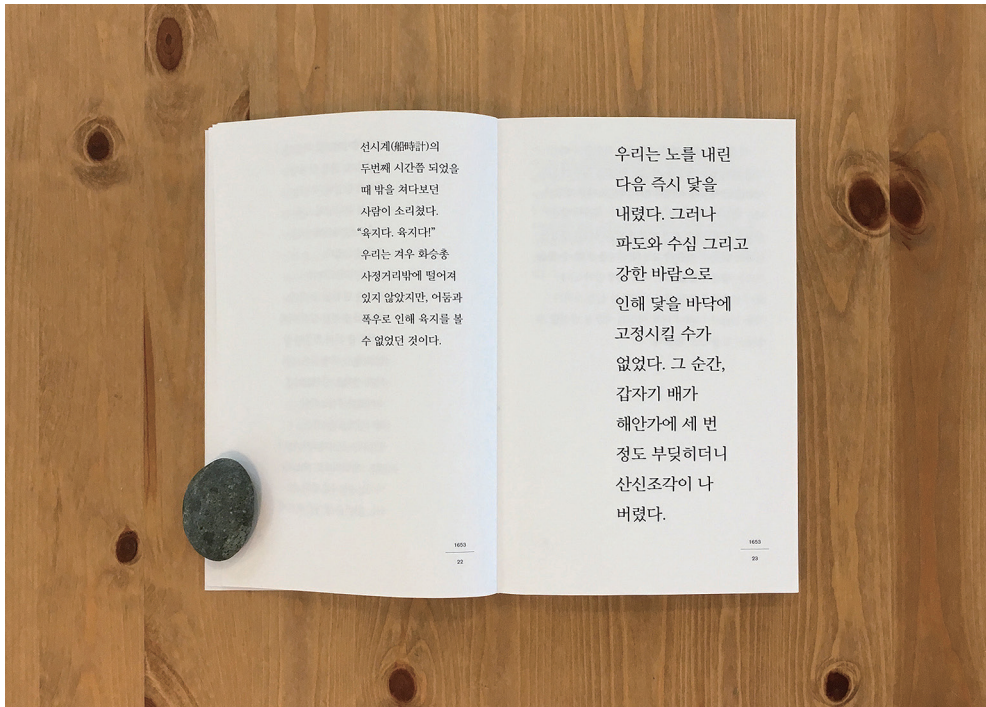


그림3-52. <A-3-2> 제본 상태의 본문

〈A-3-3〉

〈A-2-2〉, 〈A-3-2〉의 연장선 상에서 이번에는 ‘하멜 보고서’가 가진 낯설음과 모호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반영하고자 했다.

하멜 보고서의 글은 전문 작가의 글이 아니고, 기록도 규칙적이거나 일정한 편이 아니다. 저본으로 쓴 유동익의 ‘하멜 보고서’는 국내 최초의 네덜란드어 직역본이기는 하지만, 역자가 서문에서 밝혔듯, ‘중세 네덜란드어가 문장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어렵고, 현대어와 발음이나 표기가 달라 매우 난해한’ 원고였고, 원어민의 도움을 받은 고증과 유추를 절충한 번역이었다.

그런데 글을 읽을 때 느껴지는 직역 문장의 어색함과 ‘꺄빠에르츠’, ‘쩨씨요’ 같은 단어의 낯설음은 이 글에 독특한 질감과 개성을 부여하는 흥미로운 요소다. 보통은 완전한 현대어로 번역하면서 사라지게 될 이같은 특징을, 여기서는 감추기보다 드러내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독자가 글을 읽으며 17세기와 21세기라는 시간차와 언어 소통의 부정확성, 모호함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고자 했다.

디자인 방안은 글을 쓰는 규칙을 살짝 바꿔서 시대와 문화권 사이의 거리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단락 앞머리에 노출된 단락기호(plicrow)와, 마침표 대신 사용한 세미콜론(:)은 읽는 과정에서 곧 익숙해질 만한 정도의 구두법 변형이지만, 충분히 낯선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콜론과 세미콜론은 서양 타이포그래피에서 마침표 대신 사용하던 것이고, 스티히터판 하멜 보고서에서 사용 예를 확인할 수 있다.

8월 1일

☞ 새벽에 우리는 조그마한 섬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 섬 뒤편에 닻을 내릴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닻을 내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 섬 바로 뒤편에 큰 암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닻을 내린 상태로 있어야만 했으며, 바다는 더욱더 거세어졌다;

☞ 이 섬은 선장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배 뒤편에 있는 전망대의 창문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섬에 난파되어 배를 잃을 수 있었을 것이다;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우리가 그 당시 화승총 (Musquet) 사정거리 내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날씨가 개고 나서 보니 우리가 있는 곳이 중국 해안 근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완전 무장을 한 중국 군대가 해안을 따라 행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가 그곳에서 좌초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그날 태풍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심해졌으며, 우리는 그 다음날까지 그곳에서 정박하였다;

1653

9

그림3-53. 〈A-3-3〉의 본문 타이포그래피

<p>¶우리는 노를 내린 다음 즉시 닻을 내렸다; 그러나 파도와 수심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닻을 바닥에 고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배가 해안가에 세 번 정도 부딪히더니 산신조각이 나 버렸다; 하급관 선실에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갑판 위로 올라올 시간도 없었다; 갑판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배에서 뛰어내렸고 다른 몇몇은 파도 때문에 사방으로 흩날려 갔다; 해안에 닿은 사람은 15명뿐이었지만 대부분 알몸이었고 부상을 심하게 입었다; 처음엔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바위 위에 앉아 있다 보니 난파선에 갇혀 있던 사람들의 신음 소리가 차츰 들렸다; 그러나 너무 어두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고 도울 수도 없었다;</p> <p>15 84</p>	<p>8월 16일</p> <p>¶아침녘,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생존자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해안으로 갔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난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36명이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중 대부분은 부상 정도가 심하였다; 우리는 난파선을 조사하다가 큰 갑판보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우리는 곧바로 그를 끄집어냈다; 그러나 그는 갑판보에 끼어 들어 납작해져 있었기 때문에 3시간 후 죽고 말았다;</p> <p>15 85</p>	<p>¶15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아름답던 배가 난파선으로 변하였고, 선원 64명 중 오로지 36명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낙담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p> <p>15 86</p>	<p>¶파도에 떠밀려온 서신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해안을 수색하였다; 우리는 바다에서 약 10-12마일 떨어진 곳에서 알스테르담 출신 선장인 레이니어 에르베르스 (Reijnier Egberse)가 한 뿔을 버려 아래로 하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여기저기에 죽어 흩어져 있는 다른 선원들 6-7명과 함께 그를 곧바로 묻어 주었다;</p> <p>¶우리는 또한 파도에 떠밀려온 생원들이 해안가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해안하면 약원후로 인해 요리사가 요리할 할 수 없어 지난 2-3일 동안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겨우 말가루 한 통지와 고기와 베이컨이 조금 들어 있는 상자 하나 그리고 모든 주 한 상자를 발견하였다; 모든주는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것이었다;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물이었다;</p> <p>¶우리는 사람들을 전혀 보지 못했다기 때문이 이곳이 무인도라고 생각하였다; 정오 무렵 비바람이 찾아들었다; 우리는 모두 비를 피하기 위해 돛 몇 개 이용해서 텐트를 만들었다;</p> <p>15 87</p>
<p>8월 17일</p> <p>¶우리는 맥이 빠진 채로 모여 앉아 사람들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는 일본 사람이 나타나기를 보았는데, 일본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미 보트와 사장을 버치는 나무는 산산조각이 나 있어 그것들로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p> <p>¶정오가 조금 안 되어, 텐트에서 대포 사정거리쯤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그에게 손짓을 했지만 그는 우리를 보지마자 달아나 버렸다; 정오가 조금 지난 후, 우리가 머무는 텐트에서 화승총 사정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세 사람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과 손짓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결국 우리를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다가가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던 물을 바침내 얻었다; 그들은 중국식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말총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혹시 우리가 해적이나 추방된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난파된 게 아닌지 무척 두려웠다; 저녁 무렵 무장한 사람들 100여 명이 텐트로 다가왔다; 그들은 우리 인원을 세고 나타나 밤새도록 텐트 주위에서 우리를 감시하였다;</p> <p>15 88</p>	<p>8월 18일 아침</p> <p>¶우리는 큰 텐트를 만드느라 바빴다; 정오 무렵 1000-2000인 명에 이르는 기병과 병사들이 우리 주위로 다가왔다; 그들은 텐트 주위에 군사들을 배치시켰다; 그런 후 서기, 알도 황해사, 어둡갑판장, 사환을 텐트에서 끌어내 화승총 사정거리에서 떨어져 있던 지휘관에게 대리었다; 그들 모두의 목에 쇠사슬을 걸었는데, 그 쇠사슬 아래엔 큰 종이 매달려 있었다; 마치 네덜란드에서 알의 목에 매다는 종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이 비약을 팔한 채 앞에선 자세로 사령관 앞에 내뿜게져왔다; 그러자 병사들은 청천벽력 같은 큰소리를 내걸었다; 텐트 주위와 앞에 남아 있던 우리 동료들은 그 장면과 소리를 듣고선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상급 선원들이 우리보다 먼저 끌려갔으니 우리도 곧 끌려갈 것이다></p> <p>15 89</p>	<p>¶그들은 잠시 동안 그렇게 있을 후, 우리 선원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지휘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손짓 발짓을 해가며 야편에 있는 낭가사케어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려 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사였다; 왜냐하면 서로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그들은 야편을 왜 나라(teenare) 혹은 이어퐁(lepon)으로 불렀기 때문에 야편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지휘관은 우리에게 술 한잔씩을 따르게 하고선 우리를 다시 텐트로 되돌려 보냈다;</p> <p>15 90</p>	<p>¶우리를 호위하던 군사들은 우리 텐트에 먹을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왔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위에서 언급한 고기와 베이컨뿐이라는 것을 알고 곧장 이것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였다; 한 시간쯤 지난 후, 그들은 우리에게 쌀을 조금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갑자기 많이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p> <p>15 91</p>

그림3-54. <A-3-3>의 본문 흐름

<p>¶정오가 지나자 그들은 각각 손에 밧줄을 가지고 나타났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왜냐하면 우리를 밧줄로 단단히 묶어 죽이려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해안가에서 여전히 쓸 만한 것을 건져올리기 위해 큰 소리로 떠들이 대면서 난파선 쪽으로 걸어갔다;</p> <p>18 19</p>	<p>¶저녁 무렵 다시 그들은 우리가 먹을 밥을 조금 가져다 주었다; 그날 오후 항해사는 위도를 측정하여 우리가 북위 33도 32분에 위치한 펜배에르스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p> <p>20</p>	<p>8월 19일 ¶그들은 표류물들을 육지로 옮기고 그것들을 뿔뿔에 찢어기 위해 바비 옮기었으며, 쇠붙이가 있는 목재를 붙여 태우느라 분주하였다; 상급 선원들은 지휘관과 그에게 함께 와 있던 제독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방한경을 주었다; 그들은 또한 보드주와 바위 등에서 발견한 화서의 은술잔을 함께 가지고 갔다; 그들은 보드주 맛을 보더니 받았던지 아주 많이 마셨고 대단히 행복해 하며 우리의 상급 선원들을 다시 댈트로 돌려보냈다; 그 이후 그들은 상급 선원들에게 짙은 우호감을 나타냈으며 은술잔도 되돌려주었다;</p> <p>21 22</p>	<p>8월 20일 ¶그들은 쇠붙이를 얻기 위해 난파선과 나머지 목재를 불태웠다; 그러던 중 화약이 장전되어 있던 대포 탄알 두 개가 터졌다; 그러자 지휘관뿐만 아니라 군중들도 도망을 쳤다; 잠시 후 우리에게 오더니 또 폭발할 것이 있는지 손로 밧줄을 해가며 물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바딘 일을 계속하였으며 하루에 두 번씩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p>
<p>8월 22일 ¶아침에 우두머리는 우리에게 와서 몇 사람을 부르더니, 댈트 안에 있던 우리 물건들을 봉인해야 한다고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였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것들은 즉시 봉인되었다; 우리가 알아 있는 동안 몇 명의 도둑들을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였다; 난파선 물품을 언양할 때 모피, 청개류 그리고 그 외 물품을 흥권 자들이었다; 그들은 흥권 물품들을 등에 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물품을 보관할 것이라는 정보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들은 처벌하였다; 그들은 길이는 약 1마일쯤 되고, 굵기는 보통아이 팔뚝만한 막대기로 각각 30마일에서 40마일 발바닥을 밟았는데, 그 중 몇몇은 발카타이 말아져 나왔다;</p> <p>23 24</p>	<p>¶정오 무렵 그들은 우리가 떠나야만 한다고 알렸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선 말이 주어졌고, 부상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지휘관의 명령으로 등갓에 실렸다; 정오가 지난 무렵 기별과 보병들의 엄한 호위를 받으며 출발하였다; 저녁 무렵 우리는 따장(Tadjang:대정)이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 읍시를 약간 먹고 난 후 그들은 우리 모두가 잠을 잘 수 있는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여관이나 숙소라기보다는 마구간같이 보였다; 우리는 약 4마일 정도를 여행하였다;</p> <p>25</p>	<p>8월 22일 ¶아침 무렵 우리는 다시 말을 타고 요새를 향해 가다가 아침을 먹었다; 그곳에는 전함 두 대가 있었다; 오후에 우리는 목관(Moggan, 敎主)이라는 도시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은 그 성을 다스리는 목사의 관저가 있는 곳으로, 그들은 주지사를 목소(Mocco:목사)라고 불렀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우리를 관장 얼마당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마실 수 있는 죽을 주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마시는 마지막 음식이며 우리가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무기와 복장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질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무장한 병사 약 3000명이 중국 혹은 일본식 의상을 입고 서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 세 사람과 회색사기 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목사 앞으로 끌려가 말을 보며 물어알아 있게 되었다; 잠시 후, 그는 우리를 관어의 큰 대청 위로 올리자라는 뜻이 고함을 치며 손짓을 하였다; 그는 마치 황치런 그곳에 앉아서 우리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묻는 것 같았다; 우리는 예전처럼 손짓과 발짓을 해가며 아예는는 날가사메이로 고고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또한 그 세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목사 앞으로 끌려가서는 심문을 받았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p> <p>26 27</p>	<p>이용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어떤 집으로 가게 하였는데, 그곳은 왕의 숙무가 평생 동안 읍내되어 생활하다가 승경 때까지 지낸 곳이었다; 그가 이곳에 읍내된 이유는 왕의 자리를 전할하리다가 왕가에서 쫓겨나온 것이었다; ¶목사는 우리가 머무는 곳을 삼엄하게 경계하였으며, 우리에게 약 3/4마일의 팔과 그 정도의 밧가루를 배원 주었다; 그러나 반란은 거의 지극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또한 그것을 먹을 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하는 동안 반란 대신 소금을 이용해야 했으며 약간의 물을 타서 마셨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목사는 선하고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일본 살 정도는 그는 한양 출신이었으며, 조정에서도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는 왕에게 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시을 보내왔다고 했다; 그곳에서 신속한 왕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은 힘들었다; 왜냐하면 비자로 12~13마일을 거쳐 육지로 약 70마일을 가야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에게 아미급씩 약간의 육류와 다른 반찬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더 이상 소금과 쌀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우리는 가끔씩 허용할 것을 요청했고, 몸을 씻고 약간의 옷을 훔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p> <p>2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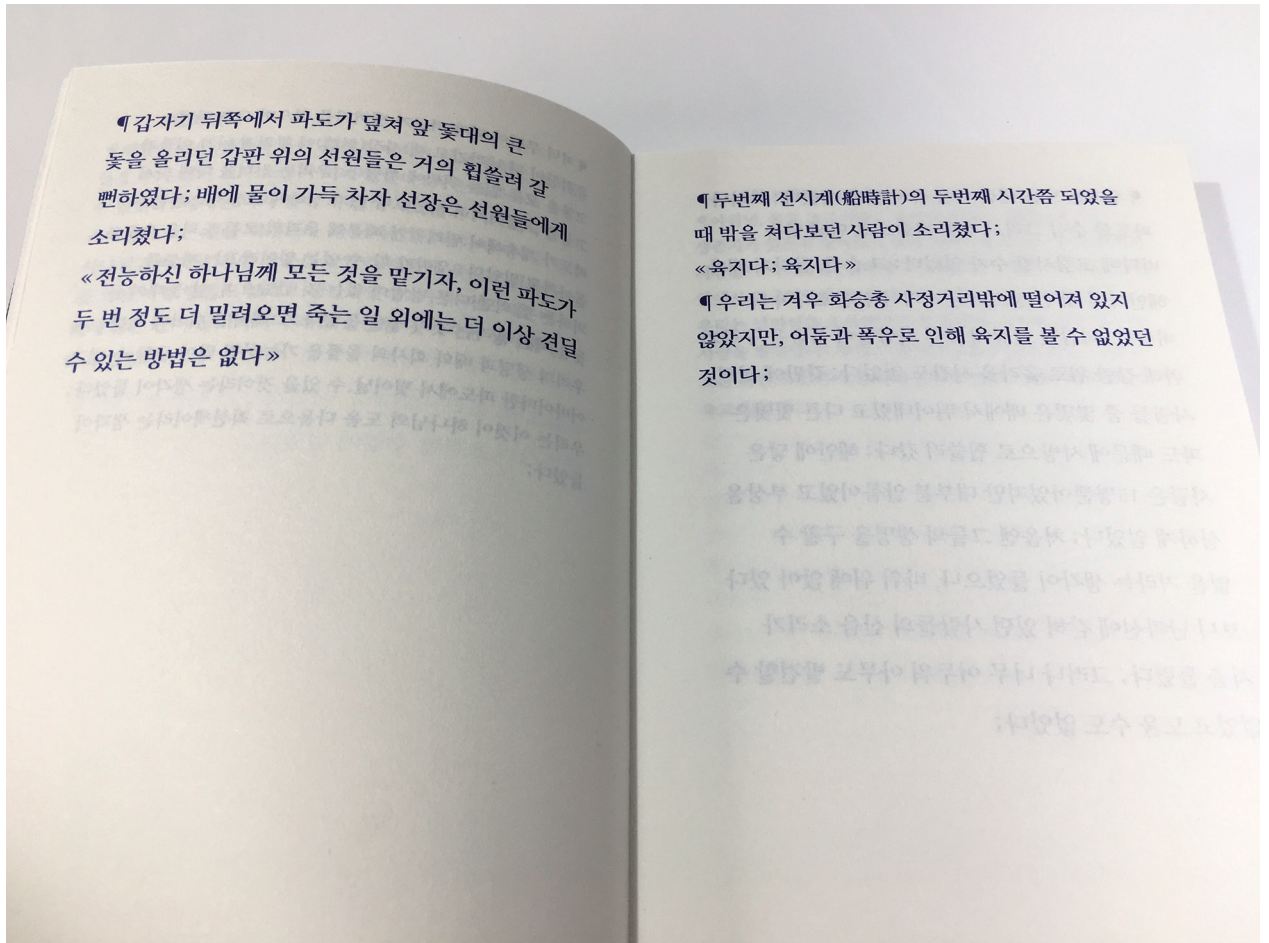


그림3-55. 〈A-3-3〉 제본 상태의 본문



그림3-56. 〈A-3-3〉 표지

〈A-3-4〉

〈A-3-4〉는 정서적 읽기에서 시작했으나, 픽션과 논픽션의 중간적 모습을 갖도록 변형했다.¹³¹

하멜의 서술 내용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서사적 설명 부분을 제외하고 조선에 대해 그가 수집한 정보와 평가 부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단락을 분리했다. 단락 왼쪽을 본문보다 들여쓰기 해주고 색으로 구별하였다.

이 시안은 책으로 완성하여 제본하지는 않았고, 뒤에 〈B-3-2〉의 본문 디자인에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131. 최근 많은 책들은 기존의 장르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서로의 요소를 적절하게 섞어서, 다양한 읽기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동화 형식으로 쓴 수학교재, 에세이 형태로 된 여행 가이드가 쉽게 볼 수 있는 예이다.

<p>8월 18일 아침</p> <p>우리는 큰 텐트를 만드느라 바빴다. 정오 무렵 1000~2000천 명에 이르는 기병과 병사들이 우리 주위로 다가왔다. 그들은 텐트 주위에 군사들을 배치시켰다. 그런 후 서기, 일등 항해사, 이등갑판장, 사환을 텐트에서 끌어내 화승총 사정거리에 떨어져 있던 지휘관에게 데려갔다.</p> <p>그들 모두의 목에 쇠사슬을 감았는데, 그 쇠사슬 아래엔 큰 종이 매달려 있었다. 마치 네덜란드에서 양의 목에 매다는 종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이 바닥을 향한 채 엎드린 자세로 사령관 앞에 내뻗게져졌다.</p> <p>그러자 병사들은 청천벽력 같은 큰소리를 내질렀다. 텐트 주위와 안에 남아 있던 우리 동료들은 그 장면과 소리를 듣고선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상급 선원들이 우리보다 먼저 끌려갔으니 우리도 곧 끌려갈 것이다."</p> <p>그들은 잠시 동안 그렇게 있을 후, 우리 선원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지휘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손짓 발짓을 해가며 야간에 있는 낭가사케이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려 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사였다. 왜냐하면 서로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았기</p>	<p>때문이었다.</p> <p>당시 그들은 야반을 왜 나라(leenare) 혹은 이어폰(lepon)으로 불렀기 때문에 야반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p> <p>지휘관은 우리에게 술 한잔씩을 따르게 하고선 우리를 다시 텐트로 되돌려 보냈다.</p> <p>우리를 호위하던 군사들은 우리 텐트에 먹을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곤 위에서 언급한 고기와 베이컨뿐이라는 것을 알고 곧장 이것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였다.</p> <p>한 시간쯤 지난 후, 그들은 우리에게 찹죽을 조금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갑자기 많이 주변 무순 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p> <p>정오가 지나자 그들은 각각 손에 밧줄을 가지고 나타났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p> <p>왜냐하면 우리를 밧줄로 단단히 묶어 죽이려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해안가에서 여전히 쓸 만한 것을 건져올리기 위해 큰 소리로 떠들며 대면서 난파선 쪽으로 걸어갔다.</p> <p>저녁 무렵 다시 그들은 우리가 먹을 밧줄을 조금 가져다 주었다. 그날 오후 항해사는 위도를 측정하여 우리가 북위 33도 32분에 위치한 켈빠에르츠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p>
<p>1653</p> <p>22</p>	<p>1653</p> <p>23</p>

<p>8월 21일</p> <p>아침에 우두머리는 우리에게 와서 몇 사람을 부르더니, 텐트 안에 있던 우리 물건들을 봉인해야 한다며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였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것들은 즉시 봉인되었다. 우리가 앉아 있는 동안 몇 명의 도둑들을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였다. 난파선 물품을 인양할 때 모피, 청제류 그리고 그 외 물품을 훔친 자들이었다. 그들은 훔친 물품들을 등에 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물품을 보관할 것이라는 징표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처벌하였다.</p> <p>그들은 길이는 약 1마일을 되고, 굵기는 보통아이 팔뚝만한 막대기로 각각 30대에서 40대씩 발바닥을 밟았는데, 그 중 몇몇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p> <p>정오 무렵 그들은 우리가 떠나야만 한다고 알렸다.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에겐 말이 주어졌고, 부상 때문에 말을 탈 수 없는 사람은 지휘관의 명령으로 들것에 실렸다. 정오가 지날 무렵 기병과 보병들의 엄한 호위를 받으며</p>	<p>출발하였다. 저녁 무렵 우리는 따장(Tadjang: 대정)이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p> <p>음식을 약간 먹고 난 후 그들은 우리 모두가 잠을 잘 수 있는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여관이나 숙소라기보다는 마구간같이 보였다. 우리는 약 4마일 정도를 여행하였다.</p>
<p>1653</p> <p>26</p>	<p>1653</p> <p>27</p>

그림3-57. <A-3-4> 본문 타이포그래피

〈B-3-1〉

〈B-2-1〉의 디자인에서 이동 경로 부분을 수정하였다. 처음에는 본문과 같은 윤명조를 이용했고, 세로쓰기에 더 적합한 디자인을 가진 ‘도웅체’로 바꾸어 적용했다. ‘도웅체’는 ‘조선’보다는 ‘근대 한국’의 특징을 가지는 방각본 계열의 반흘림체지만, 보다 적합한 세로쓰기용 서체의 대안을 찾을 수 없어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제목용 한글 서체들이 모든 발음의 한글 글리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쩨’, ‘쩨’, ‘썩’, ‘윽’, ‘쩨’ 글리프는 비슷한 글자를 조금씩 짜맞추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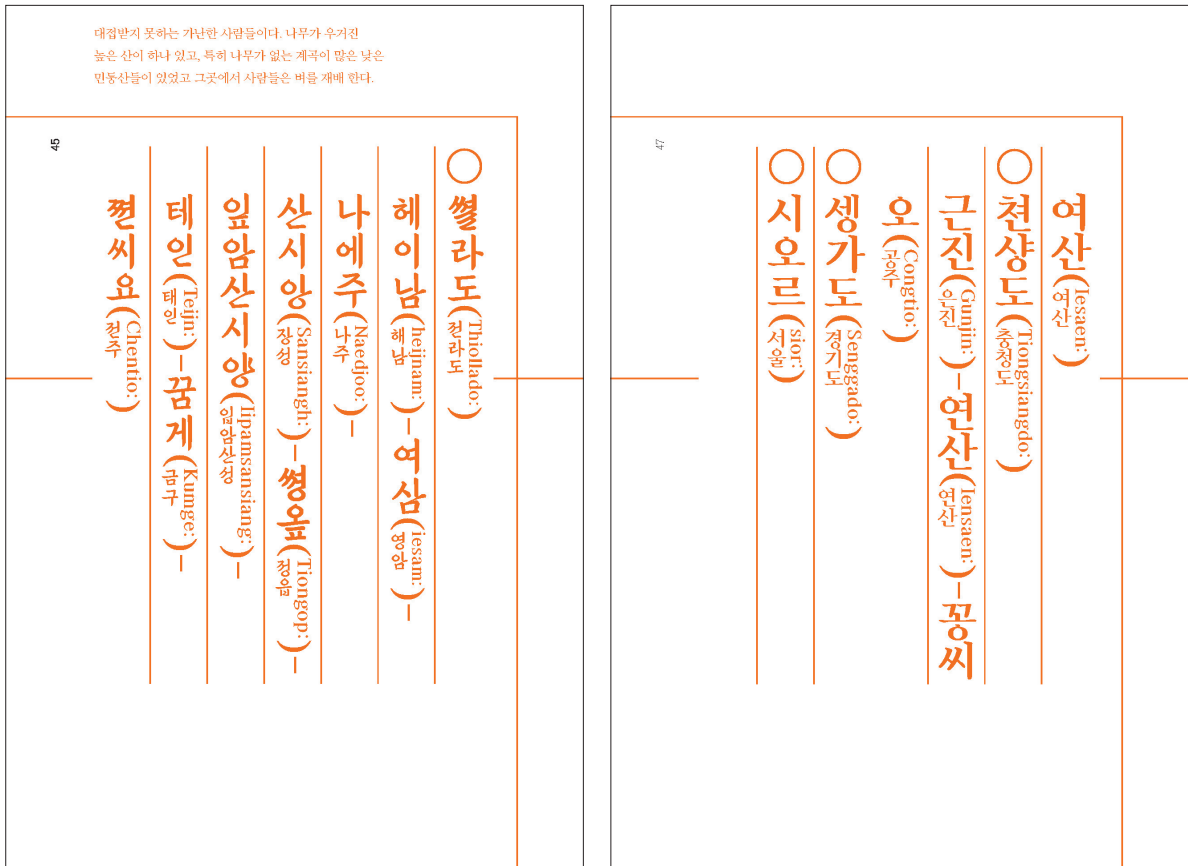


그림 3-58. 〈B-3-1〉, 제주도부터 전라도를 거쳐 서울로 이동한 하멜 일행의 이동 경로. 도웅체 사용(좌), 윤명조 사용(우)



그림3-59. 〈B-3-1〉 제본 상태의 본문. 책 속의 책을 빼고 제본했다.

〈B-3-2〉

‘조선’이라는 주제를 따라가며 읽을 수 있도록 상황 해설글과 그림을 추가했다. 글 자료로는 ‘하멜 漂流 무렵의 조선과 東아시아’¹³²의 일부를, 그림은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 조선풍속도』의 일부를 발췌하였다. 1653년 효종대는 청의 침략 이후 조선은 경제적으로 피폐하던 때로, 정치적으로는 청의 감시와 간섭으로 매우 경직되어 있던 때이다. 때문에 하멜 일행의 표착은 청의 간섭의 빌미가 될 여지가 있어 숨겨야 할 일이었고, 실제로 그들이 탈출하여 청의 사신 앞에 뛰어든 사건으로 더욱 그들을 활용하기보다 숨기고 방치하게 만들었다. 한편으로 현종대에까지 이어지기도 했던 재해와 기상 이변은 조선의 북벌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일지 본문 가운데 조선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A-3-4〉에서 했던 방식으로 구별해주고, 조선 사료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여 통합했다. 뒤에 나오는 조선왕국기도 본문에 같은 색을 사용했다.

앞의 디자인에서 각 글 단위의 관계를 지면의 그리드를 사용하여 분리하고 운용하였다면, 여기서는 각 내용이 페이지 단위로 분리되도록 흐름을 짜고, 서로 다른 인쇄 용지를 써서 물리적으로 뚜렷이 구분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림3-60]과 같이 바탕색을 다르게 표시한 부분은 다른 용지를 사용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에 관한 부분이 하멜 보고서 일지의 중간 중간에 끼워져 있는 구조임이 명확히 보이게 하였다.

132. 한명기, ‘하멜 漂流 무렵의 조선과 東아시아- 당시의 朝淸, 朝日關係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그림3-60. <B-3-2> 중철 제본 배열표

진한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종이를 다르게 하고, 이 부분에 해설, 주석, 참고도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흐름을 조정했다.

[illegible]

159

[illegible][illegible]



그림3-63. <B-3-2> 제본 상태의 본문, 두 종류의 본문 용지로 중절제본. '해설, 조선 기록, 조선왕국기' 부분을 색이 들어간 종이로 구별. 그림은 기산 김준근의 조선풍속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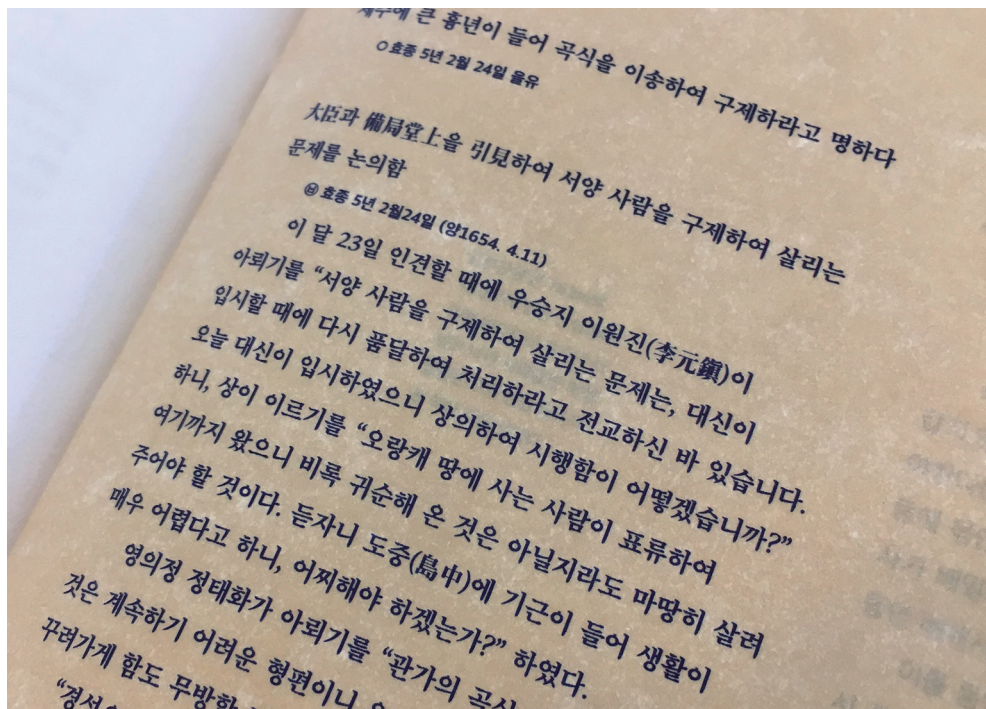


그림3-64. 〈B-3-2〉제본 상태의 본문.

〈B-3-3〉

〈B-2-3〉의 주석 활용을 중점적으로 재조정했다. 우선 적용할 부분을 ‘시작~1655년(청나라 사신 일행과 마주한 사건)’까지와 조선왕국기 이후 ‘1662년~탈출’까지의 시기로 한정했다. 이 부분은, 보고서의 전반과 후반으로 켈뎀에르츠호가 좌초되기 이전과 탈출 때의 항해 장면이 등장하고, 글의 분위기도 가장 모험기에 가깝다.

이러한 분위기와 배경이 드러나도록, 다른 섹션과 구분하여 페이지 상단에 넓은 여백을 주었다. 이 빈 공간에 좌우로 긴 주석글 덩어리를 띄워, 구름의 이미지와 풍경의 공간감을 만들고자 했다. 주석은 그 참조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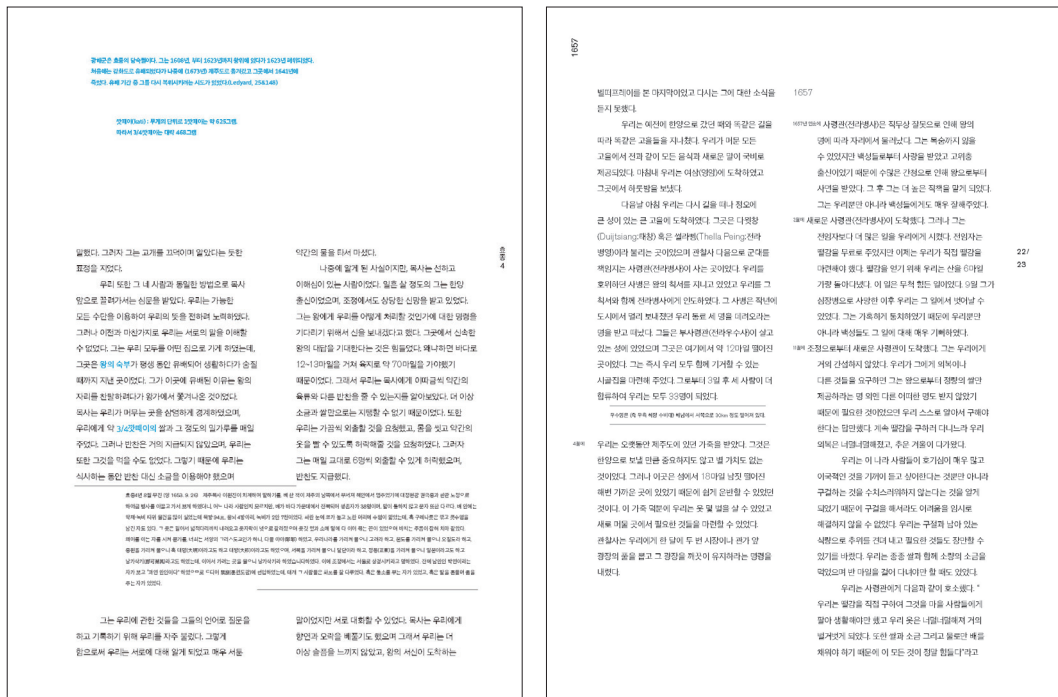


그림3-65. 〈B-3-3〉의 두 가지 포맷

나오는 순서, 위치와 대응하도록 규칙을 정했지만, 글의 정렬방식은 좌, 우, 중앙정렬을 섞어 써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되도록 했다.

한 지면 내에, 질서있게 조직된 텍스트 단과 장식적으로 변형된 주석이 이질감을 만들어내며, 진지하게 혹은 가볍게 읽는 방식을 선택하게 한다.

말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또한 그 네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목사 앞으로 끌려가서는 심문을 받았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우리의 뜻을 진화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어떤 집으로 가게 하였는데, 그곳은 **왕의 속부**가 평생 동안 유배되어 생활하다가 숨질 때까지 지낸 곳이었다. 그가 이곳에 유배된 이유는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왕가에서 쫓겨나온 것이었다. 목사는 우리가 머무는 곳을 삼엄하게 경계하였으며, 우리에게 약 **3/4갓데이의** 쌀과 그 정도의 밀가루를 매일 주었다. 그러나 반찬은 거의 지급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또한 그것을 먹을 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하는 동안 반찬 대신 소금을 이용해야 했으며

약간의 물을 타서 마셨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목사는 선하고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일흔 살 정도의 그는 한양 출신이었으며, 조정에서도 상당한 신망을 받고 있었다. 그는 왕에게 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신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곳에서 신속한 왕의 대답을 기대한다는 것은 힘들었다. 왜냐하면 바다로 12~13마일을 거쳐 육지로 약 70마일을 가야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에게 아마금씩 약간의 육류와 다른 반찬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더 이상 소금과 쌀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우리는 가끔씩 외출할 것을 요청했고, 몸을 씻고 약간의 옷을 빨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그는 매일 교대로 6명씩 외출할 수 있게 허락했으며, 반찬도 지급했다.

효종4년 8월 무진 (陽 1653. 9. 26) 제주목사 이원진이 지계하여 말하기를. 배 한 척이 제주의 남쪽에서 무서져 해안에서 망주암에 대정원감 권국중과 반관 노점으로 하여금 병사를 이끌고 가서 보게 하였더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지만.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전복되어 생존자가 38명이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 또한 다르다. 배 안에는 약재·녹비 따위 물건을 많이 실었는데. 곡량 94보. 종보 4방아리. 녹비가 2만 7천이었다.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흑 구레나룻은 깎고 콧수염을 남긴 자도 있다. 그 옷은 길어서 넓적다리까지 내려오고 옷자락이 넷으로 갈라졌으며. 옷깃 연와 소매 밑에 다 이어 묶는 끈이 있었으며. 바지는 주름이 잡혀 치마 같았다. 왜어를 아는 자를 시켜 물기를 너비는 서양의 그리스도교인가 하니. 다들 야야(耶耶) 하였고. 우리나라를 가리켜 물으니 고려라 하고. 본도를 가리켜 물으니 오일도라 하고. 종원을 가리켜 물으니 흑 대명(大命)이라고도 하고 대명(大命)이라고도 하였으며. 서복을 가리켜 물으니 달단이라 하고. 정동(正東)을 가리켜 물으니 일본이라고도 하고. 남가사기(南加刺基)라고도 하였는데. 이어서 가려는 곳을 물으니 남가사기라 하였습니다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서복을 상경시키라고 명하였다. 전에 남한인 박연이라는 자가 보고 "박연 만인이다" 하였으므로 "디어 禁烟(禁煙도강)에 변입하였는데. 대개 그 사람들은 화포를 잘 다루었다. 혹은 총사를 부는 자가 있었고. 혹은 말을 혼들여 쫓을 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관한 것들을 그들의 언어로 질문을 하고 기록하기 위해 우리를 자주 불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매우 서툰

말이었지만 서로 대화할 수 있었다. 목사는 우리에게 향연과 오락을 베풀기도 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았고, 왕의 서신이 도착하는

그림3-66. <B-3-3>의 본문 내 주석. 본문 바깥쪽에 들어가는 주석과 구분하여, 조선의 기록을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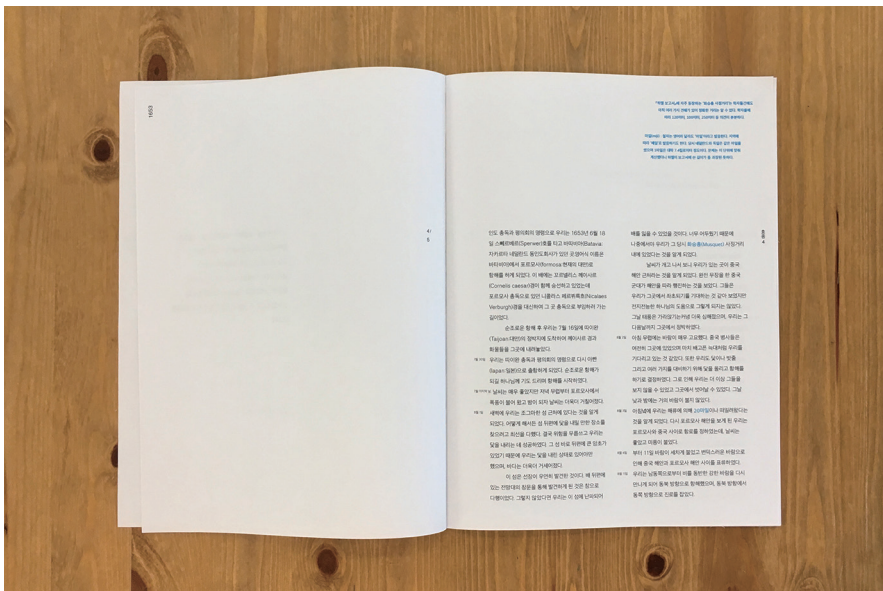


그림3-68. <B-3-3> 제본 상태의 표지와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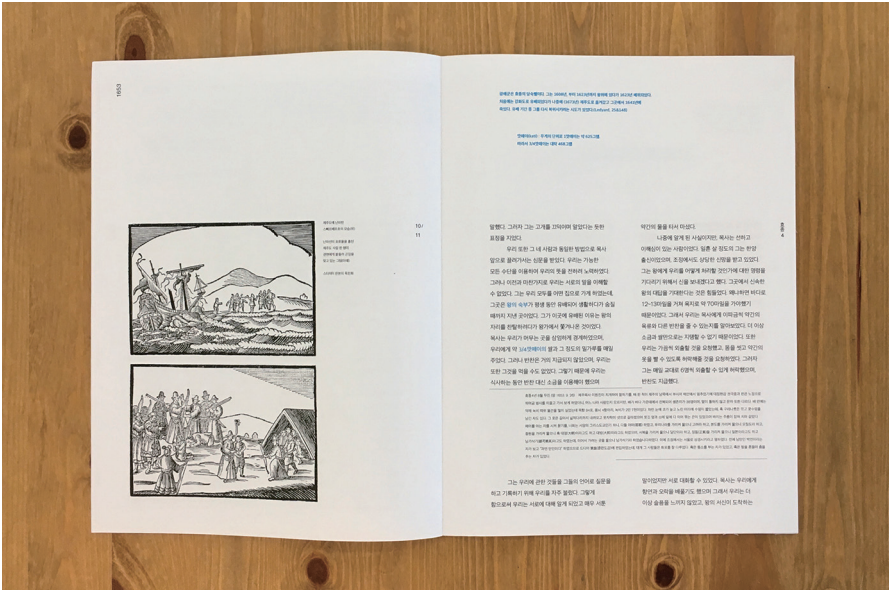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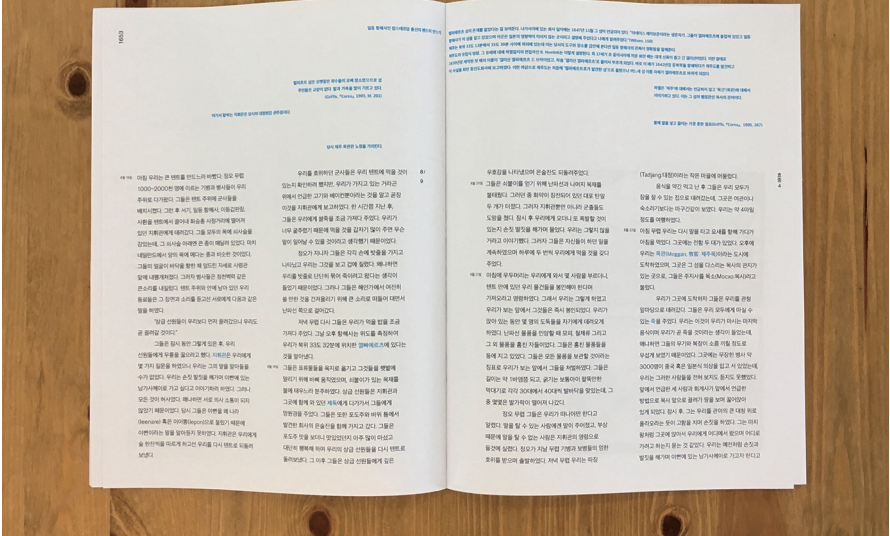


그림3-69. 〈B-3-3〉 제본 상태의 본문

〈B-3-4〉

하멜이 기록이 거의 없는 1660년~1663년의 조선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추가하여 ‘기근과 재해로 어려웠던 17세기 조선’의 모습을 재구성했으며, 글 단위의 변형을 통해 단계적인 읽기를 유도하는 디자인을 시도했다.

추가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의 디지털 버전 중, 1661년부터 1663년까지의 기상 이변과 재해에 관한 글(제목을 기준으로)을 모두 모은 것이다. 하멜은 원래 이 부분에 조선의 정치, 교육, 군사, 경제 등에 관한 자료를 모아 ‘조선왕국기’를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이 기록을 뺐다. 이 내용이, 재구성하려는 테마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일반 정보인 점과 글의 형식이 따로 발췌하거나 요약하기에 적합한 글이 아니어서 의도치 않게 전체 구성에서 따로 분리되고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판형은 230×300mm로 에디션 중 가장 큰 판형이다. 바깥쪽 단(column)은 일지(journal)가, 안쪽은 조선 사료가 흐르고 그 사이에는 일지의 본문 내용을 기준으로 일종의 요약문을 배치했다. 요약문은 상황의 변화를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부분을 발췌하여 한 문장 정도로 압축한 것인데, 본래 신문이나 매거진에서 사용하는 ‘중제(subhead)’를 변형했다. 중제는 레이아웃에 필요에 따라 적정한 양을 배치하여 지면의 활기를 띠게하며, 부분 부분마다 선택적인 읽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모두 끊어서 내용을 뽑았다. 즉, 이 단의 내용만 읽어도 필요한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다.

세로쓰기의 ‘도움’체로 된 부분은 이보다 더 큰 단위의 글의 제목 역할이다. 페이지를 분리하여 따로 장표제지를 만들지 않았고, 이 표제문을 통해 그 역할을 하게 했다. 따라서 페이지를 넘기는 독자는 장표제문, 발췌요약문, 일지 본문의 단계로 내용을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읽을 수 있다.

		출항		○: 순정원일기	
				□: 비변사등록	
				조선의 공식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http://silhak.history.go.kr 에서 검색	
				사은사 인평 대군 등이 북경에서	
				경국강제에 대해 직제하다	
				그해 4년 3월 23일 부사(당초 30)	
				목성이 낮에 나타나다	
				그해 4년 3월 23일 기록	
인도 총독과 평의회 의원으로 우리는 1653년 6월 18일					
스페르베르(Sperwer)호를 타고 바타비아(Batavia:					
자카르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있던 곳, 영어식 이름은					
바타비아에서 포르모사(formosa, 현재의 대만)로 항해를					
하게 되었다. 이 배에는 코르넬리스 게이사르(Cornelis					
caesar)경이 함께 승선하고 있었는데 포르모사 총독으로					
있던 니콜라스 페르뷔룩흐(Nicolaes Verburgh)경을					
대신하여 그 곳 총독으로 부임하러 가는 길이었다,					
순조로운 항해 후 우리는 7월 16일에 타이완	7월 16일	스페르베르호를 타고 바타비아에서 포르모사로 가서			
(Tajooan: 대만)의 정박지에 도착하여 게이사르 경과		화물들을 내려 놓았다.			
화물들을 그곳에 내려놓았다.					
7월 30일	7월 30일	우리는 다시 야만으로 출항하게 되었다.			
우리는 타이완 총독과 평의회 의원으로 다시 야만					
(Japan: 일본)으로 출항하게 되었다. 순조로운 항해가 되길					
하나님께 기도 드리며 항해를 시작하였다.					
7월 마지막 날	7월 마지막 날, 저녁에	포르모사에서 폭풍이 불어 왔다.			
날씨는 매우 좋았지만 저녁 무렵부터 포르모사에서 폭풍이					
불어 왔고 밤이 되자 날씨는 더욱더 거칠어졌다.					
8월 1일	8월 1일	폭풍이 심해 중국 해안 근처에 정박해 있었다.			
새벽에 우리는 조그마한 섬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 섬 뒤편에 닻을 내릴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닻을 내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 섬 바로 뒤편에 큰 암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닻을 내린 상태로 있어야만 했으며,					
바다는 더욱더 거세어졌다.					
이 섬은 선장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배 뒤편에					
있는 전방대의 창문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섬에 난파되어					
배를 잃을 수 있었을 것이다.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우리가 그 당시 화승총(Musquet) 사정거리					
내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날씨가 개고 나서 보니 우리가 있는 곳이 중국					
해안 근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완전 무장을 한 중국					
군대가 해안을 따라 행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가 그곳에서 좌초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그날 태풍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심해졌으며, 우리는 그					
다음날까지 그곳에서 정박하였다.					
8월 2일	8월 2일	아침 무렵에 바람이 고요해서 그곳을 벗어났다.			
아침 무렵에는 바람이 매우 고요했다. 중국 병사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으며 마치 배고픈 늑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우리도 닻이나 밧줄 그리고					
여러 가지를 대비하기 위해 닻을 올리고 항해를 하기로					

그림3-70. <B-3-4>의 본문 포맷, 230×300mm, ‘일지(journal), 발췌요약문, 조선의 기록’의 세 종류 텍스트가 2개 혹은 1개의 단을 사용한다. 해가 바뀌는 부분의 상단에 블랙 라인이 들어가 구별해주며, 텍스트를 내려써준다.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13차		제14차		제15차		제16차		제17차		제18차		제19차		제20차		제21차		제22차		제23차		제24차		제25차		제26차		제27차		제28차		제29차		제30차		제31차		제32차		제33차		제34차		제35차		제36차		제37차		제38차		제39차		제40차		제41차		제42차		제43차		제44차		제45차		제46차		제47차		제48차		제49차		제50차		제51차		제52차		제53차		제54차		제55차		제56차		제57차		제58차		제59차		제60차		제61차		제62차		제63차		제64차		제65차		제66차		제67차		제68차		제69차		제70차		제71차		제72차		제73차		제74차		제75차		제76차		제77차		제78차		제79차		제80차		제81차		제82차		제83차		제84차		제85차		제86차		제87차		제88차		제89차		제90차		제91차		제92차		제93차		제94차		제95차		제96차		제97차		제98차		제99차		제100차		제101차		제102차		제103차		제104차		제105차		제106차		제107차		제108차		제109차		제110차		제111차		제112차		제113차		제114차		제115차		제116차		제117차		제118차		제119차		제120차		제121차		제122차		제123차		제124차		제125차		제126차		제127차		제128차		제129차		제130차		제131차		제132차		제133차		제134차		제135차		제136차		제137차		제138차		제139차		제140차		제141차		제142차		제143차		제144차		제145차		제146차		제147차		제148차		제149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llegible]

조선왕국기가 들어가 있던 부분

[illegible]

[illegible]

1660년, 1661년 그리고 1662년

1660년 조예

즉시 신임 절도사가 임명되었다. 새로 온 절도사는 우리에게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자신에게 힘이나 권한이 있다면 우리를 부모와 친구들이 있는 본국으로 보내 줄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전임 절도사가 우리에게 준 것과 같은 자유와 부담을 주었다. 1660년과 그 다음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곡물과 작물 수확이 거의 없었다.

1662년

수확철이 되기 전까지 기근이 계속 되었으며 수천 명이 기아로 죽었다. 도로는 도적 때가 들끓어 거의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여행자들을 보호하고 기근으로 인해 길가에 죽어 있던 사람들을 묻어주고 또한 매일 발생하는 살인과 강도를 막기 위해 모든 길에 삼엄한 경비를 서도록 명령하였다. 여러 고을과 마을들이 약탈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저장고에 있던 곡물들도 탈렸다. 범치자들은 대부분 잡히지 않았고 이는 그들 대부분이 양반의 노예들이 자행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평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도토리나 소나무 껍질 그리고 풀로 살았다.

기
근
이
계
속
되
어
많은
사
람
이
죽
었
다

1660년 조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수확이 거의 없다

1662년 기근이 계속되고 도적 때가 들끓었다

밤에 월식이 있었다.

○원후 1년 9월 16일 신미

대사간 이경역 등이 기근이 심해 조처를 취할 것을 아뢰다
/ 황해도 등지의 우박 등의 피해를 알려오니 흉년을 행하도록 명하다
/ 경상도 평곡 땅에 눈이 내려 초목들이 얼어죽다
○원후 1년 4월 1일 을유

오래 가물어 가우제를 모시다

○원후 1년 4월 8일 임신

비국이 한성부로 하여금 전염병 환자를 치료받게 할 것 등을 아뢰다
○원후 1년 5월 19일 계유

강원도 강릉 등지에서 큰 비가 쏟아지고 바람에 뇌성까지 겹치다
○원후 1년 5월 27일 신사

평안도 각읍의 기민들에게 진구를 시작하다
개성부 기민들을 진구하다
○원후 1년 6월 29일 기유

평안도 용강 등지에서 수해를 입다
○원후 1년 6월 29일 임신

충흥도 목천 등지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다
○원후 1년 7월 3일 병진

해서의 황주 등지에서 황충(蝗虫)이 번져 버를 해치다
○원후 1년 7월 5일 무오

충정도 보은에서 우박으로 바와 곡식이 피해를 입다
○원후 1년 7월 7일 경신

평안도 지역에 창마가 저 피해를 입다
○원후 1년 7월 12일 을축

해서 지방에 황충이 번져 피해를 입다
○원후 1년 7월 15일 무진

경기 감사가 가동과 폭우의 피해를 알려오다/
함경 감사가 가동과 황충의 피해를 알려오다
○원후 1년 7월 18일 신미

가동이 심해 대신을 보내어 종묘와 서적에 가우제를 올리다
○원후 1년 7월 28일 신사

북도 경흥부에 우역(牛疫)이 크게 번졌다.
○원후 1년 7월 28일 신사

전통 1년	Journal 1660	전통 2년	23
전라도 전주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원종1년 8월 13일 목요일	㉔	사방이 3일 동안 회부영계 아득다 ○원종2년 3월 12일 신유	
전라도 전주(全州) 등 고을에 우박이 내려 폭화 열매가 모두 떨어졌고, 익어가는 올벼도 피해를 입었다. 도내 50여 고을이 한결같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우도(右道) 연해 지방이 가장 심했다. 도신이 치계하여 아뢰었다.	㉕	묘사에서 유사까지 사방이 회부영계 아득다 ○원종2년 4월 9일 무자	
호남에는 추수 후의 흉년이 봄이나 여름보다 심하다 ○원종1년 9월 20일 일요일	㉖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방이 회부영계 흐리다 ○원종2년 4월 12일 신묘	
호남에 해마다 흉년이 크게 들어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추수 후의 흉년이 봄이나 여름보다 심하였다. 담양(潭陽) 백성 이경일(李敬一)이 자식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여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감사가 아뢰었다. 백성들의 형편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㉗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방이 회부영계 흐리다 ○원종2년 4월 13일 일진	
전남도에도 서리가 내려 곡식이 많이 상했다고 감사가 치계하다 ○원종1년 9월 30일 일요일	㉘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방이 회부영계 흐리다 ○원종2년 4월 19일 무술	
오시에 우박이 내리다 ○원종1년 10월 15일 경유	㉙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방이 회부영계 흐리다 ○원종2년 4월 22일 신축	
평안도 순천에서 압탸이 수탈으로 변하다 ○원종1년 11월 4일 을묘	㉚	아침부터 종일토록 회부영계 흐렸다. ○원종2년 4월 24일 계묘	
호남의 임피·옥구 등지에 지진이 있다 ○원종1년 12월 1일 일요일	㉛	영남(嶺南)의 경유, 기민(飢民)이 4만 7천 5백여 인, [진구할 대상임] 전염병 환자가 1만 8천 90여 인, 물고(物故)된 자가 9백 38인이었다. ○원종2년 5월 11일 기미	
	㉜	충청도 대흥현의 사비 견육이 세쌍둥이를 낳다 ○원종2년 5월 16일 갑자	
	㉝	상평정이 2월 21일부터 죽을 곪어 진흙하다 ○원종2년 5월 28일 병자	
	㉞	관동 지방에 우박이 내리다 ○원종2년 6월 3일 을유	
	㉟	무장현의 여인이 아들 세 쌍둥이를 낳다 ○원종2년 6월 10일 계해	
	㊱	선천부(宣川府)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계란만하였다. ○원종2년 7월 21일 무진	
	㊲	평해군(平海郡)에 비가 많이 와 산이 무너져는 바람에 사람이 깔려 죽었다. ○원종2년 7월 25일 일진	
	㊳	경상 좌도에 큰물이 지다 현종 2년 윤7월 1일 무인 평안도에 한재(旱災)가 들어 기우제를 지내게 하다 ○원종2년 7월 26일 계유	
	㊴		

기근과 재변이 계속되었다

그림3-72. <B-3-4> 22-23p, ‘기근과 재해가 심했다’는 하멜의 언급을 참조하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조선의 공식 기록(조선왕조실록, 비변사일기, 승정원일기)을 찾아 채워 넣었다.



그림3-73. <B-3-4> 최종본에서 빠진 조선왕국기 페이지 디자인, 조선왕국기 부분은 앞의 내용과 구별하여 중앙단을 사용하고, 글의 내용과 관련한 이미지 풍속화를 사용했다.



**승지에게 재변을 그치게 할
직언을 널리 구하라고 하교하다**

○효종 5년 10월 20일 병자

상이 하교하였다.

“근래 재변이 잇따라 발생하는데
눈과 우레의 변은 옛날에도 별로
없던 일이라 나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승지는
나를 대신하여 교서를 초안, 널리
직언을 구하여 덕이 적고 사리에
어두운 나의 부족함을 보완토록
하라. 다만 염려되는 것은 지진과
겨울 우레에 대해서는 고인의
논의가 분명히 있으나 지금 후비
(后妃)나 외척으로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 허물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중외(中外)로 하여금
숨김없이 다 말하도록 하라. 또
모든 관리들을 책려(策勵)하여
서로 직분을 닦는 방도를 극진히
하도록 하라.”

전남도에 지진이 일다

○효종 5년 11월 6일 임진

**강원도에 오얏과 복숭아 꽃이
피다**

○효종 5년 11월 7일 계사

전남도에 해일이 일다

○효종 5년 11월 19일 을사

그림3-74. 〈B-3-4〉, 조선의 기록. 이부분을 뉴스페이지의 기사 목록처럼 보이도록, 제목, 날짜, 세부 내용 순으로 배열하고
위계를 표현했다.

〈B-3-5〉

글보다 그림을 먼저 읽는 책으로는, 아동출판의 ‘그림책’이 대표적이지만 어떤 장르의 책이든 ‘이미지에 익숙한’ 시대 분위기에 따라 ‘보는’ 재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지가 다량 들어가는 경우, 그 특성상 먼저 눈으로 훑어본 다음 읽기로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지면을 디자인한다. ‘하멜 보고서’에는 원래 이미지가 없지만 스티히터판에서 삽입된 목판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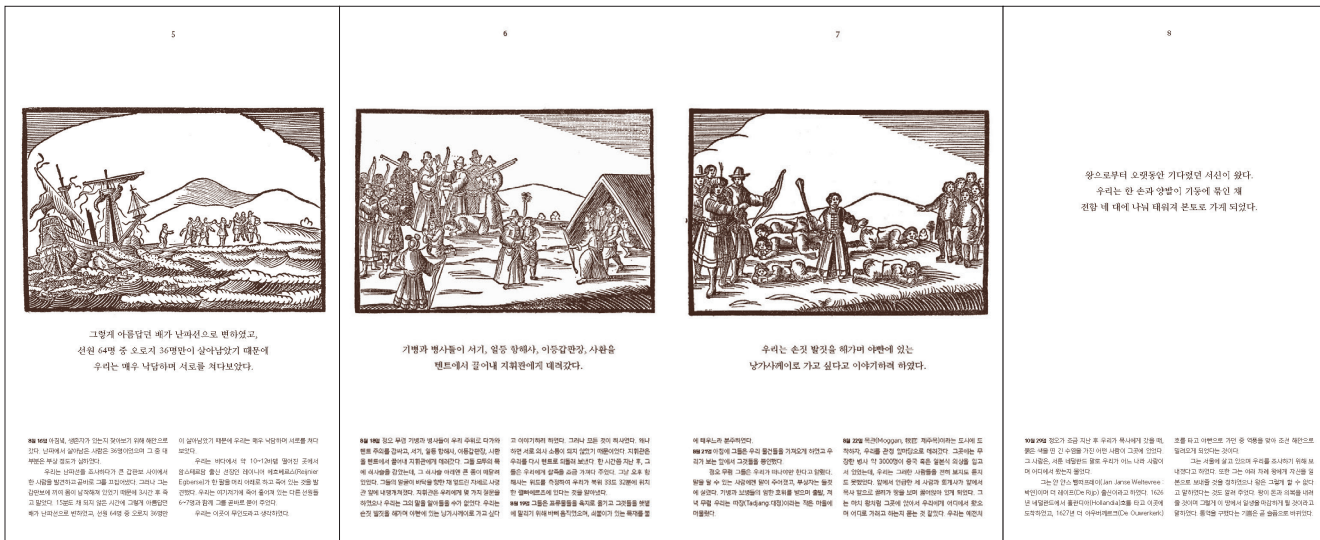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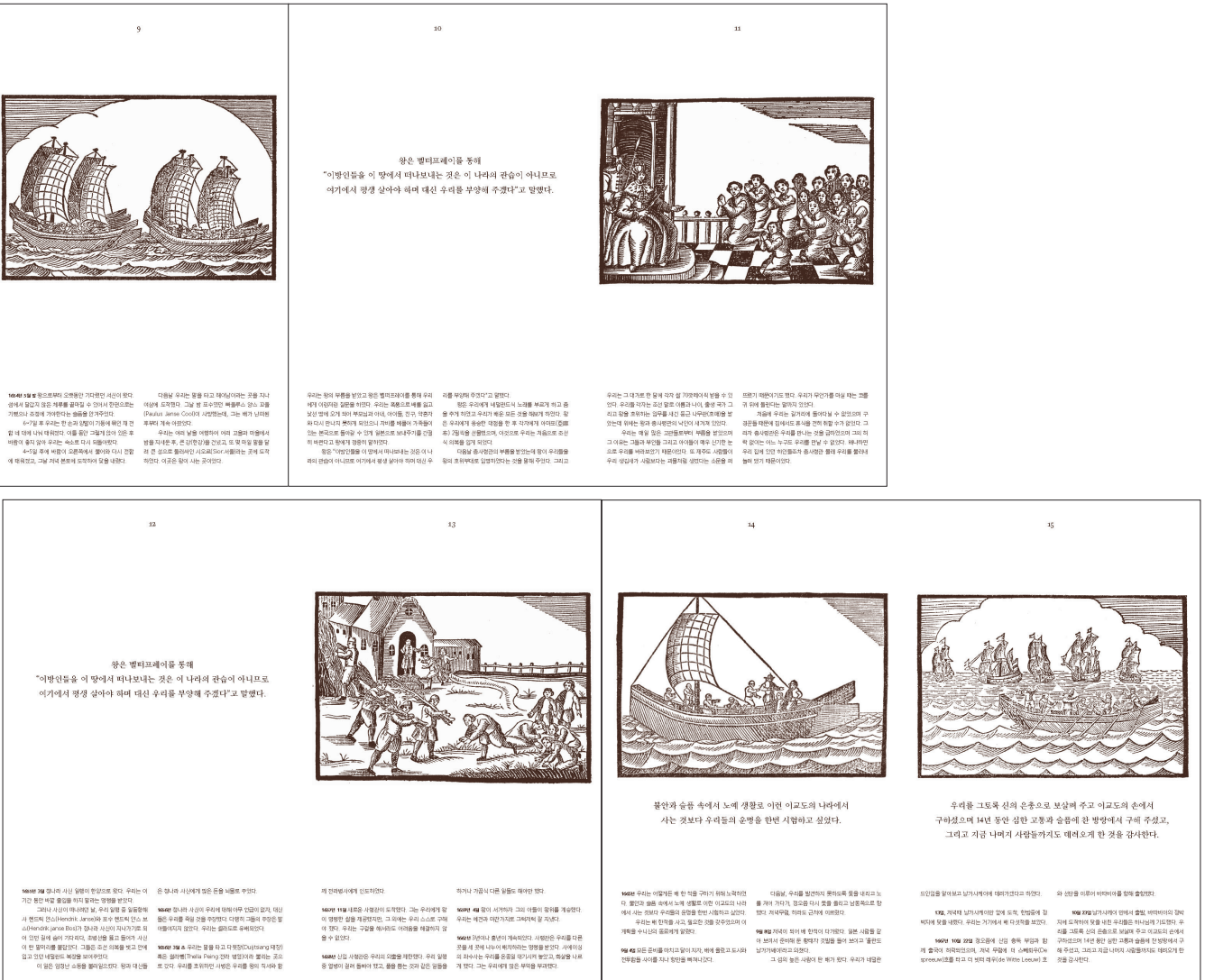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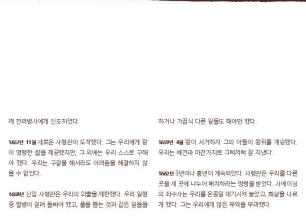


그림3-75. 〈B-3-5〉 본문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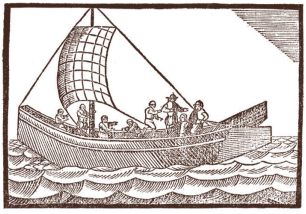
여기서는 이 목판화 8장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중심으로 흐름을 구성했다. 요즘의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목판화는 흥미로운 볼거리이자 내용을 읽을 수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본문글은 그림의 규칙적인 흐름을 위해 대폭 압축하거나 생략하여 짧게 편집했다. 책의 포맷은 앞의 <A-2-1>의 소설에 맞추어 만들어, 둘을 묶어 세트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페이지는 표지를 포함 12페이지고, 단면병풍접지로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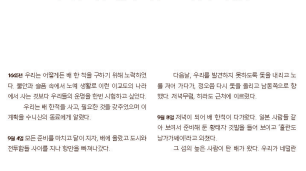
왕은 벨리프레이를 통해
"이방인들을 이 땅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이 나라의 관습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며 대신 우리를 부양해 주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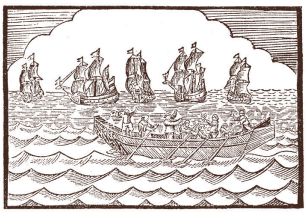
왕은 벨리프레이를 통해
"이방인들을 이 땅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이 나라의 관습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며 대신 우리를 부양해 주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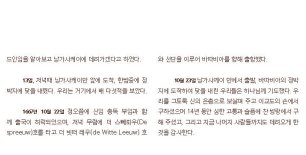
불안과 슬픔 속에서 노예 생활로 이런 이교도의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들의 운명을 한번 시험하고 싶었다.



우리를 그토록 신의 은총으로 보살펴 주고 이교도의 손에서
구하셨으며 14년 동안 심한 고통과 슬픔에 한 발짝에서 구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사람들을 데려오게 한 것을 감지한다.



우리를 그토록 신의 은총으로 보살펴 주고 이교도의 손에서
구하셨으며 14년 동안 심한 고통과 슬픔에 한 발짝에서 구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사람들을 데려오게 한 것을 감지한다.



우리를 그토록 신의 은총으로 보살펴 주고 이교도의 손에서
구하셨으며 14년 동안 심한 고통과 슬픔에 한 발짝에서 구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사람들을 데려오게 한 것을 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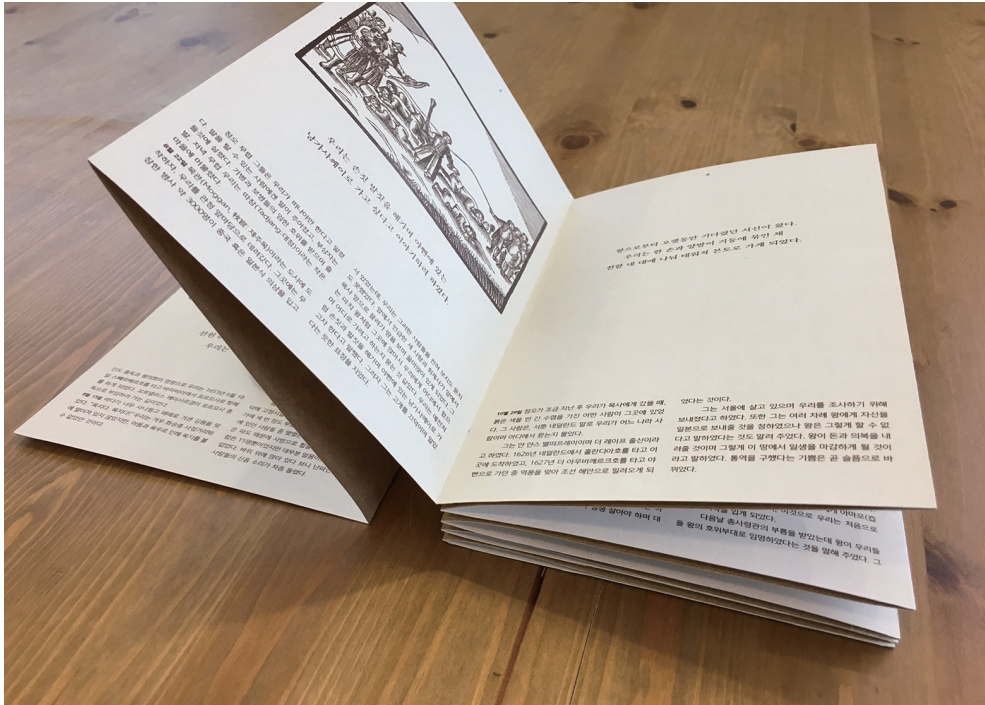


그림3-77. <B-3-5> 제본된 상태의 본문, <A-3-1>과 세트 구성

표6. 하멜 보고서의 포맷 정리

n.	keyword	size (mm)	margin(mm, 위/아래/안쪽/바깥쪽)	본문 text style
1차	A-1 픽션, 정서적 읽기	152×210	10 / 38 / 47 / 10	SM신신명조10 Std Regular, 9pt, 행간 18pt, 자간-70, 가로비율99%
	B-1 논픽션, 학습으로서의 읽기	220×280	14.8 / 122 / 42.8(좌) / 69(우)	SM신신명조10 Std Regular, 9pt, 행간 18pt, 자간-70, 가로비율99%
			65.5 / 71.3 / 42.8(좌) / 69(우)	
		152×210(조선왕국기)	15 / 30 / 35 / 13	SM중고딕 Std Regular, 8pt, 행간 16pt, 자간-70, 가로비율97%
2차	A-2-1 소설 읽기, 주석 삭제, 연결	119×190	18 / 35 / 15 / 15	윤명조730, 9.7pt, 행간 18pt, 자간0, 가로비율100%
	A-2-2 일기 단위 분리, 불규칙한 흐름	120×190	10 / 32 / 28.5(좌) / 12(우)	윤명조740, 9.7pt, 행간 18pt, 자간0, 가로비율100%
				윤명조740, 12pt, 행간24, 자간-10, 가로비율99%
	B-2-1 조선 테마 강조, 비대칭, 병렬	165.1×247.65	38.1 / 53.62 / 52.62(우) / 25.4(좌)	윤명조740, 9.7pt, 행간 18pt, 가로비율100%,
	B-2-2 3단, 가벼운 정보 읽기	182×257	26 / 13.5 / 16 / 16	윤고딕 755, 7.7pt, 행간14pt, 자간-10, 가로비율100%
3차	A-3-1 소설, 주석 삭제, 연결, 네덜란드	119×190	18 / 35 / 15 / 15	윤명조730, 9.7pt, 행간 18pt, 자간0, 가로비율100%
	A-3-2 일기 단위 분리, 불규칙한 흐름	120×190	10 / 32 / 변형	윤명조740, 9.7pt, 행간 18pt, 자간0
				윤명조740, 12pt, 행간24, 자간 -10
				윤명조740, 18pt, 행간34, 자간-10
	A-3-3 소설, 모호함, 17세기, 낯설음	120×190	10 / 32 / 14 / 12	윤명조740, 9.7pt, 행간 18pt, 자간0, 가로비율100%
				윤명조740, 12pt, 행간24, 자간-10, 가로비율99%
	A-3-4 소설, 단락 단위 정보 구별	120×190	10 / 32 / 28.5(좌) / 14(우)	윤명조740, 9.7pt, 행간 18pt, 자간0, 가로비율100%
	B-3-1 조선 테마 강조, 비대칭, 병렬	165.1×247.65	38.1 / 53.62 / 52.62(우) / 25.4(좌)	윤명조740, 9.7pt, 행간 18pt, 가로비율100%,
	B-3-2 조선 해설, 불규칙한 흐름	182×257	23.5 / 18 / 16 / 16	산돌고딕Neo1유니코드 04Rg 7.7pt, 행간15pt, 자간-15, 가로비율100%
	B-3-3 가벼운 정보 읽기, 향해 장면	182×257	85 / 15.5 / 9.57 / 22.4 (verso)	산돌고딕Neo1유니코드 04Rg 8pt, 행간16pt, 자간-15, 가로비율100%
			85 / 15.5 / 16 / 16 (recto)	
	B-3-4 17세기 조선, 단계적 읽기	230×300	12 / 14 / 12 / 10	윤고딕 755, 7.7pt, 행간14pt, 자간-15, 가로비율100%
	B-3-5 그림 읽기, 정보 압축	120×190	32 / 9.5 / 7 / 7	윤고딕 755, 6.3pt, 행간11pt, 자간-15, 가로비율100%

작품 연구 소결

〈A-1〉, 〈B-1〉으로부터 시작하여 〈B-3-5〉까지의 작품은, 우선 같은 ‘하멜 보고서’를 이용하여 ‘읽기 방식’을 고려한 최대한 다양한 디자인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였다. 책의 다양성과 독자의 ‘읽기’의 다양성은 일종의 긴장관계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단서를 연구자가 ‘하멜 보고서’로부터 얻었으므로, 이를 이 텍스트를 이용해 거꾸로 되짚어보려 했던 것이다.

초기의 작품은 ‘읽기’의 거시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미시적인’ 타이포그래피에 적용할 것인가,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시작점을 필요로 했었고, 그렇게 하여 대표적인 두 읽기 방식,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장르적 구분인 ‘픽션’과 ‘논픽션’을 설정했다.

14세기 무렵 스콜라적 읽기 관습이 ‘시각적 읽기’를 위한 다양한 페이지의 기호와 구분법, 텍스트의 분절을 낳았다는 것에서 ‘단위’와 ‘시각적 의미 분별(시각적 번역)’과 같은 키워드를 얻었고, 대중 독서 시장, 즉 저자와 출판가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글과 글의 시각적 형식인 책은 자유롭게 변용되고 다변화했음을 확인했으며, 이후의 하멜 보고서 작업에도 적절한 ‘변용’ 주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를 따르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A-2-1〉), 하멜 보고서 내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구두법으로부터 페이지별 글의 양, 전체 순서 변경에 이르는 모든 단위와 규모에 ‘조절’을 시도했고(〈A-2-2〉〈A-3-2〉〈A-3-3〉), 비로소 조금씩 다른 모습의 지면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이에 관해 읽을 수 있도록 가능한 자료들을 모아 추가하고, 혹은 기존의 내용 일부분을 들어내면서 좀더 효과적으로 다양화를 할 수 있었다. (〈B-2-1〉〈B-3-4〉)

세부적으로 사용한 구두법, 서체, 레이아웃, 비례 등은 문헌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페이지의 시각적 형식들에서 관련성을 검토하여 차용하였고, 기존의 편집디자인 방식들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면서, 조금씩 이들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림3-79. 작품 전시

4. 결론

이 논문은 책의 역사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책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읽기 방식’이라는 기준을 편집디자인의 접근법으로 새롭게 재정의하고, 『하멜 보고서』의 디자인에 적용한 연구이다.

2장의 문헌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작품 제작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1) 책자형 책은 애초에 이것저것의 ‘묶음’에서 시작했으며, 부분에서 부분으로 옮겨가는 ‘조각 독서’를 쉽게 하는 구조물이다. 책은 안정성, 고정성, 단일성은 책에 내재된 근본 특성이기보다, 유기적 통합을 기대하는 독서 관습의 작용과 그러한 특징을 뒷받침하는 시각적 장치들의 발전을 통해 강화된 것이다. 글과 정보는 근본적으로 불안정성을 띠며, 상당히 자유롭게 전유되고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로 쓰이고 읽힌다.

2) 글의 시각적 번역 기술은 음독에서 묵독으로의 변화와 같은 ‘읽기 방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읽기가 학습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경우에는 글의 ‘내용 구조’와 ‘단위의 조절’이 읽기 방식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되며, 이를 ‘눈으로 읽고’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 번역’이 곧 책의 형태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책의 형태도 ‘읽기 방식’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대와 독서 공동체의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에는, ‘시각적 번역’에서 글의 직접적인 뜻과 구조를 드러내는 ‘의미의 번역’이 두드러졌고, 또 다른 경우에는 좀더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영역, 즉 ‘배경의 번역’이 고려되었다. 따라서 책의 역사가 제시하는 ‘읽기 방식’을 기준으로한 편집디자인 접근법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포괄적인 시각을 뒷받침한다.

3) 인쇄술과 같은 단일 기술이, 사회와 문화의 결정적 분절점을 만들지 않으며, ‘역사는 변화 뿐 아니라 강한 항상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책의

역사의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읽기 방식의 큰 변화 이전에 항상 독자의 규모 변화가 선행했으며, 책을 만들 때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변화는 출판 제작과 관련된 일련의 회로에 변화를 일으켰다. 이 의미는 디지털 책이 나타난다 한들, 기존의 책의 형식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할 충분한 요건이 되지는 않으며, 그것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 더 편리한 접근성과 선택권에 익숙해진 독자의 습성, 더 짧고 빠른 정보 교환으로서의 쓰기와 읽기, 그리고 달라진 출판 시장의 구도들로부터 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3장에서는 먼저 하멜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획의 구심점을 잡기 위해 ‘조선’, 즉 과거의 한국이라는 중심어를 도출하였다. 하멜이 보았던 1664년의 꼬리 달린 별처럼, 하멜의 조선행은 우연이자 이변에 해당한다. 이 일 이전으로도 이후로도 그와 같이 오랫동안(13년) 체류하며 조선에 대한 경험을 자세한 기록으로 남긴 경우는 없었다. 때문에 이 하멜 보고서는 오랫동안 서양인이 조선에 대해 가지는 관념의 뿌리가 되었다.

그의 기록은 애초의 작가의 글쓰기와는 목적도 주변 조건도 달랐다. 그가 쓴 일지는 밀린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보고서였으므로, 일행의 배가 좌초하게 된 상황이나 탈출 노력에 대해서 길게 적고 있지만, 다른 내용은 별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하다. 또한 1660년부터 1663년까지는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고, 대신 ‘조선왕국기’로 불리는 내용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그의 일지와 조선왕국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17세기 조선의 모습이 재구성될 여지가 보인다. 당시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면, 병자호란 이후의 청의 내정 간섭과 효종의 북벌 의지, 현종대로 이어지는 끔찍한 기상 이변과 재해, 연이은 기근의 상황을 만나게 된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면 하멜의 기록 속 조선의 모습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방인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이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은 1차적으로 픽션-‘정서적 읽기’와, 논픽션-‘전문적 또는 학습과 관련한 읽기’의 두 가지 모형을 시작업하여, 각각의 읽기에서 세부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해보는 작업을 진행한 뒤 2차적으로 다양화를 시도했다.

정서적 읽기에서는, 글이 유기적이며 자연스러운 단일 흐름이 되도록 편집하고, 해석된 정보를 줄여서 각자의 상상과 판단에 따라 이야기에만 집중하여 읽도록 했다. 학습과 관련한 읽기는, 관련한 자료와 주석 정보를 지면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위의 2차 작품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문헌 연구에서 주목한 사항인 ‘글의 내용 구조와 단위의 조절’을 중점적으로 디자인 판단에 적용시키고자 하였으며, 각 에디션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① 단위의 조정으로 흐름을 조절하고, ② 강조와 압축으로 단계적 읽기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③ 관련 글과 자료의 추가로 보다 난이도 있는 전문적 읽기 또는 선택적 읽기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세 가지 기본 디자인 방향을 정리했다.

단위의 조정 : 짧아 읽는 부분, 단락, 단, 장, 섹션의 분할과 페이지 내의 정보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읽는 속도와 연결성에 영향을 준다. 연결성을 높이는 것은 글의 단위가 길어지거나 느려지게 하며 몰입도 높은 글 읽기에 더 어울리며, 분할하여 만들어내는 짧은 호흡과 단위별 검색성을 높이는 것은 글의 몰입도를 낮춘다.

강조와 압축으로 단계적 읽기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 제목과 본문의 단순한 구분으로 된 글에, 부제, 전문, 발문, 중제를 뽑아 넣어주거나, 책 머리에 서문, 목차를 넣어주는 것은 책 전체를 읽기 전에 대강의 내용을 가늠하거나 짧은 단위의 주제와 강조점을 파악하기 쉽게 한다. 따라서 먼저 훑어보기로부터, 부분 읽기, 전체 읽기로의 단계별 읽기와 원하는 것을 임의

순서로 선택적으로 읽는 방식을 유도한다.

관련 글(부속문)과 자료 제공 : 주요 문맥을 따라 읽다가 부분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인 지류로 옮겨가며 읽게 된다. 흔히 주석으로 나타나며, 때에 따라 박스글(참고서류나 매거진에서), 본문의 특정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나 주제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지면에 배치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나 전문적인 이해, 관련 문헌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선택적, 교차적인 읽기가 일어나게 한다.

최종적인 연구의 결과물은 〈A-1〉, 〈B-1〉로부터 시작하여, 〈A-3-4〉, 〈B-3-4〉까지로 순차적으로 발전시켰으며, 각각의 완성된 단행본 형태로 구성하였다. 연구를 통해 만든 에디션은, 읽기의 ‘기술적 요인’, ‘목적성’, ‘난이도 혹은 복잡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페이지의 시각 요소’들을 찾아가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이는 내용의 의미와 구조를 분명히 파악하고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의 번역’에, 내용과 관련한 시대와 문화적 배경, 독자층의 성향을 반영한 ‘배경의 번역’을 동반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좀더 풍부한 해석의 형태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작품은 처음 픽션과 논픽션의 장르적 구분에서 시작했지만, 세분화를 통해 그 구분이 점차 모호해져 갔고, 나중에는 연구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뒤섞거나 전도시키면서 ‘읽기 방식’을 축으로 한 작품 전개에 더 가까워갈 수 있었다. 편집디자인은, 독자의 자의적이고 자유로운 읽기를 통제할 수는 없다. 다만, 명확한 의미 전달을 돕고, 특정한 구조와 흐름으로 읽고 이해하게 하며, 더욱 풍요로운 경험이 되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 무엇보다 ‘읽기’에 다시금 주목함으로써, 장르적 규범과 스타일의 동어반복적 적용을 피한 디자인 방법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이것이 새로운 독자와 출판 시장에 대응하는 대안 마련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응중, 『아날학파의 역사세계』, 아르케, 2001
- 김준근 그림,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 조선풍속도 : 스왈른 수집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8
- 김준근 그림,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 조선풍속도 : 매산 김양선 수집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8
- 남태우, 김중권, 『한국의 독서문화사』, 태일사, 2004
- 닐 맥그리거, 『(대영박물관과 BBC가 함께 펴낸) 100대 유물로 보는 세계사』,
 강미경 옮김, 2014, 다산북스
-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역음, 『읽는다는 것의 역사』, 이종삼 역,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 로버트 단턴, 『로버트 단턴의 문화사 읽기』, 김지혜 역, 길, 2008
- 로버트 단턴, 『책의 미래』, 성동규, 고은주, 김승완 역, 교보문고, 2011
- 로빈 킨로스, 『현대 타이포그래피 : 비판적 역사 에세이』, 최성민 옮김, 스펙터
 프레스, 2009.
- 뤼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책의 탄생』, 강주현, 배영란 역, 돌베개, 2014
- 리차드 헨델, 『북 디자인 이야기』, 이재구 역, 국민, 2005
- 마이클 베이루트, 제시카 헐펀드, 스티븐 헬러, 릭 포이너 역음, 『그래픽
 디자인 들여다보기3』, 비즈앤비즈, 2010
- 마틴 라이언스, 『책, 그 살아있는 역사』, 서지원 옮김, 21세기북스, 2011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세상 사람의 조선여행』, 글항아리, 2012
- 스티븐 로저 피셔, 『읽기의 역사 : 나는 읽을 때 살아 있음을 느낀다』, 신기식
 역, 지영사, 2011
- 오병근, 강성중, 『정보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2008

- 육영수, 『책과 독서의 문화사』, 책세상, 2010.
- 이광주, 『아름다운 책 이야기 : 윌리엄모리스에서 중세 사본까지』, 한길아트
 켄 화이트, 『편집 디자인』, 정병규, 안상수 옮김, 안그래픽스, 2013
- 제이 데이비드 볼터, 『글쓰기의 공간 : 컴퓨터와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인쇄의
 재매개』, 김익현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 지명숙 ; B.C.A. 왈라벤, 『보물섬은 어디에 : 네덜란드 공문서를 통해 본
 한국과의 교류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칼 샤피로, 헬 배리언, 『정보법칙을 알면.COM이 보인다』, 임세운 옮김,
 미디어퓨전, 1999
- 크리스토퍼 버크 지음, 『능동적 도서 : 안 치홀트와 새로운 타이포그래피』,
 박활성 옮김, 위크룸 프레스, 2013
- 필립 B 맥스,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황인화 역, 미진사
- 한기호, 『하이콘텍스트 시대의 책과 인간 - 초연결 사회와 책을 바라보는
 시선』, 북바이북, 2017
- 헤릿 노르트제이, 『획: 글자쓰기에 대해』, 유지원 옮김, 안그래픽스, 2014
- 헨드릭 하멜, 『蘭船濟州島難破記』, 이병도역, 박문서관, 1956
- 헨드릭 하멜, 『하멜 보고서』, 유동익 역, 중앙 M&B, 2003
- 헬렌 암스트롱, 『그래픽 디자인 이론 : 그 사상의 흐름』, 이지원 옮김. 서울 :
 비즈앤비즈, 2009.
- Jan Middendorp, 『Dutch type』 010 Publishers, 2004
- Jost Hochuli, Robin Kinross, 『Designing books : practice and theory』, Hyphen,
 c1996.
- Porchez, Jean-François; Millot, Philippe, 『Lettres françaises : spécimen de
 caractères français』, Association typographique internationale, 1998.
- Roeper, V. D., 『Hamel's world : a Dutch-Korean encounter in the seventeenth
 century』, Vibeke Roeper & Boudewijn Walraven (ed.) ; with the

collaboration of Jean-Paul Buys, 2003

논문

오정숙, '프랑스에서 한국이미지 표상의 역사 및 지형도', 프랑스문화연구,
제12집, 2006. pp.107~127

한명기, '하멜 漂流 무렵의 조선과 東아시아- 당시의 朝淸, 朝日關係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Boudewijn Walraven, '내키지 않은 여행자들 -헨드릭 하멜과 그의 동료들의
관찰에 대한 해석의 변화(Reluctant Travellers: Shifting interpretations
of the observations of Hendrik Hamel and his companions)',
대동문화연구, 2006, Vol.56, pp.51-71

잡지

박경식, 심우진, 이용제, '타이포그래피 교양지 히읏' 6호, 활자공간, 2014, 1.

박경식, 이용제, 심우진, '타이포그래피 교양지 히읏' 7호, 활자공간, 2014, 7.

웹사이트

강진군하멜캡슐시스템 www.hamel.go.kr/index_new.html

De Digitale Bibliotheek voor de Nederlandse Letteren, www.dbnl.org

<http://www.hendrick-hamel.henny-savenije.pe.kr/>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http://classes.bnf.fr/index.php>

Abstract

Designing Hamel's Journal : A study of visual styles & ways of reading

Jung, Heesook

Faculty of Craf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book is the most common medium of containing written information. The diverse page layouts that we see today, which act as a genre pattern or sign, are derived from different writing techniques, reading customs and purpos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printing culture. Readers nowadays can see the visually edited pages and find clues as to what content is contained in the page.

While the visual forms that relate to the genre of writing allow for easy communication, it has become an issue of typographical standards and aesthetics, and problems arise due to the superficial engrossment of details and stylistic concerns.

Based on such background, this research focuses not on the aesthetics of books but the 'history of reading' and the 'history of books.' The research investigates the objectives of the visual forms, how the interaction between readers, writers and the book industry influenced the formatting of the book, and how this transformed over the years.

Through th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different 'ways of reading' is of importance. The book is a medium of writing technology and documentation, which in itself does not define the way of reading. Rather, the reading practices of readers, contemporary notions of books and expectations are what influences the format of the book. Therefore,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book formats and page layouts based on the different ways of reading.

Hamel's journal, originally a 17th-century voyage report, is a well-known adventure story and a unique text that has been reproduced as a novel and a historical material. This text has been selected because it is suitable for investigating the 'errors' and 'flexible transformations' of a book rather than the correctness or authority which are commonly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books. The text itself is not very long while providing ample information for the research, and it is of particular historical interest as it introduced Korea to the Western world.

The research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regarding the history of the book, and based on the first edition design of the fiction and non-fiction versions of Hamel's report, derived differences in ways of reading. While fiction and nonfiction are basic division in writing genre, there were also contrasting visual attributes in the editorial design which relate to personal and intimate reading versus professional and scholarly reading.

Examining the different ways of reading and the changes in visual formats in the history of the book, it was found that from the process of initial writing to the production of the book, the most efficient way of ensuring that the text is read in the right context is associated with the basic 'unit.' Structuring the writing and controlling the contents through words, paragraphs, and chapters is in itself a method of visually translating a piece of writing.

In the second edition of Hamel's report, variations in both fiction and non-fiction versions were found in three ways: first, by controlling the 'unit'; second, by emphasizing and compressing certain materials; and third, providing supplementary materials to the text. These methods allow the differentiation in reading speed and concentration, text flow and the various levels of reading difficulty, ultimately allowing the readers to actively engage in the book by being selective of their reading.

In the process of the research, the original orthography, order of contents and organization of the book has been changed in order to highlight certain themes and ways of reading, which is a realm of work largely left for editors to perform. This was done in order to translate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book,

and also to translate the context of the book through visual elements which imply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whil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text.

The final product was developed as a thematic edition which focuses on 17th century Joseon that had been observed through a foreigner, and the produced pages have been made into separate editions. The initial division between fiction and non-fiction became blurred eventually, and later these materials were mixed to develop a writing based on the researcher's intention regarding how the text can be read.

Despite the emphasis on the way of reading and the corresponding visual format in editorial designs, how a reader approaches the text cannot be controlled. Nevertheless, it can provide a holistic reading experience by delivering the content accurately, and allow readers to better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flow of the writing. Most importantly, considering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elements allow designers to avoid repetitive application of genre standards and styles and appropriately transform the material based on the original purpose of the text.

Keywords : reading method, history of the book, printing culture, editorial design, book typography

